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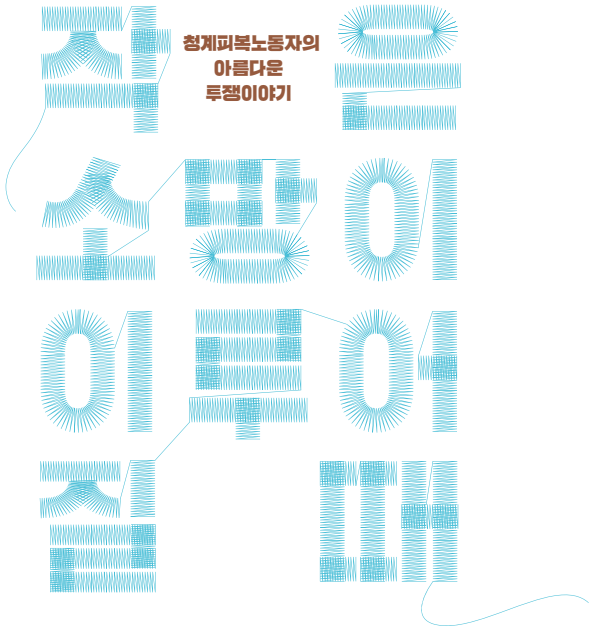
**When a Small Wish Comes True:  
A Garment Worker's Beautiful Protest**

- 전시총괄 오동진
- 전시기획 양윤미
- 전시진행 및 도록 김혜미
- 전시·도록·홍보물 디자인 스튜디오 언씬
- 전시영상 ㈜더플레이 크리에이티브 한일피앤이
- 전시시공 공객
- 영문번역 배영재
- 사진촬영 박민구(0100 스튜디오)
- 논고 안재성 유경순
- 자문 및 자료 제공 이승철 신순애 정선희 전태일재단

#### 일러두기

- 이 도록은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6월 16일까지 진행된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 청계피복노동자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기획전의 전시 유물을 수록한 것이다.
- 이 도록의 모든 글은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원칙을 준용하였다.
- 도판 설명은 유물 명칭, 시대, 크기, 소장처, 기증자, 설명 순으로 명시하였으며, 전태일기념관 소장 유물은 소장처를 생략하였다.
- 유물의 크기는 평면은 세로x가로x높이 순이며, 단위는 ㎝로 작성하였다.
- 전태일기념관 수탁품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1차 정리된 자료에 한해 유물 번호를 기재했다.
- 신문은 《》，책은 『』, 논고는 「」로 표기하였다.
- 인명·상호명·지명 등의 이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에 반하더라도, 그 주체들이 자신을 지칭한 방식으로 표기하거나 오늘날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용적인 표기를 채택했다.  
그러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일반 원칙에 따라 기재하였다.
- 본 도록에 수록된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전태일기념관에 있으며, 이용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23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기획전 도록



When a Small Wish Comes True:  
A Garment Worker's Beautiful Protest



# CONTENTS

<b>발간사</b> Forward	<b>006</b>
<b>전시를 열며</b> Preface	<b>007</b>
<b>청계피복노동조합 연표 1970~77</b> Chronology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1970~77	<b>008</b>
<b>Prologue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b> We are not machines. We are human beings.	<b>010</b>

## 1 결성

<b>1 전태일 이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b> Chun Tae-il Brought Change	<b>014</b>
<b>1-1 숨 가쁘게 달리는 청계피복노동조합</b> The Union Wasted No Time	<b>016</b>
<b>1-2 노동조합의 미래를 정하는 대의원대회</b> Representative Conventions Determined the Union's Future	<b>038</b>

## 2 활동

<b>1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b> The Union Strive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b>052</b>
<b>1-1 노동 환경을 알아보는 실태조사</b> Surveys on Working Conditions	<b>053</b>
<b>1-2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킨 초기 노동조합</b> The Union Changed the Workers' Lives	<b>072</b>
<b>2 살아가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b> The Union Spoke Up for Survival	<b>094</b>
<b>2-1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b> Surveys to Improve Wages	<b>096</b>
<b>2-2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b> Activities to Increase Wages	<b>111</b>

## 3 행동

<b>3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 많아졌습니다.</b> Solidarity Made Much Possible	<b>136</b>
<b>3-1 1975~77년도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투쟁</b> 1975-77 Union Protests	<b>137</b>
광진복장사 임금인상·퇴직금 투쟁 Protest Against Gwangjin Apparel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임금 직불제 요구 투쟁 Protest for Jacket Factories to Directly Pay Apprentices	
와이셔츠 조합원 임금인상 투쟁 Protest Against Dress Shirt Makers	
<b>3-2 그날의 기억</b> Remembering Those Days	<b>164</b>
<b>Epilogue 우리는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b> We had a dream.	<b>166</b>
<b>논고</b> Research Papers	<b>168</b>
1. 유경순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활동과 특징: 조합원 직접 투쟁을 중심으로」 The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in the 1970s: With a Focus on the Union Members' Direct Involvement in Protests	
2. 안재성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청계노조」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taught me how to live like a human being	
<b>전시장 전경</b> Exhibition Views	<b>188</b>
<b>도판목록</b> List of Plates	<b>200</b>

##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

노동조합 활동에 '조사 없이 교섭 없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임금, 근로조건 개선사항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분석해서 정당한 요구를 해야 교섭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태일은 일찍이 바보회 회원들과 설문지를 돌려 평화시장의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 언론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매년 투쟁을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교섭을 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와 꿈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망입니다. 일한 만큼, 법이 정한 만큼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작은 소망조차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싸워 하나하나 쟁취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간부들의 헌신성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태일은 자기의 전부를 바쳤고, 뒤를 이은 간부들도 앞장서서 노력했기에 조합원들이 함께했고, 투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투쟁 이야기를 기획한 이번 전시는,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50년 전 당시의 소중한 자료와 생생한 증언을 통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전시가 도록을 통하여 소중한 기록으로 남고, 전태일 정신이 더 넓게 퍼져 나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전시와 도록에 함께하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관장

오 동 진

## 전시를 열며 Preface

평화시장, 그 공간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발전의 상징인 동시에 열악한 노동 환경의 현장... 그 곳에서 청년들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심은 작은 소망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전태일이 꾸던 꿈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전태일 사후 결성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의 노동 환경과 임금 개선 활동 등 초기 노동조합의 성과를 조망합니다. 1부 결성에서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의 결성과 조직 운영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2부 활동은 초창기 청계피복노동조합이 노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사협약과 단체교섭을 진행, 노동 환경과 임금제도를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부 행동은 조합 활동에서 벗어나 조합원 스스로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화를 위해 노력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함께하니 불가능할 것 같았던 노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합원들은 한 명의 노동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어린 노동자의 마음이 오롯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학예연구사

김 혜 미

청계피복노동조합  
연표 1970~77

Chronology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1970~77

- 1. 9. 제1회 노사협의회 구성과 단체교섭 시작
- 2. 20. 복지의원 운영(노동청 설립, 대한산업보건협회 주관)
- 2. 21. 후생식당 운영(서울특별시 설치)
- 4. 9. 청계피복노조 단체협약서 최초 체결
- 5. 소모임 '아카시아회' 시작
- 12. 19. 제1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971

- 1. 10. 제1호 《청계피복노보》발행
- 5. 21. 새마을노동교실 개관(동화상가)
- 6. 22. 제3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7. 3. 새마을노동교실 운영권 박탈
- 11. 1. 후생식당 폐쇄
- 12. 후생식당 재운영  
(대한 적십자사 서울지사 지원)

1973

- 1. 20. 동대문 종합시장과 단체협약 신규 체결
- 2. 7. 노동교실 운영권 복구 투쟁(동화상가 옥상, 새마을노동교실 점거 시위)
- 4. 광진복장사 임금인상·퇴직금 투쟁
- 4. 30. 운영권을 되찾은 새마을노동교실 이전 개관(유림빌딩)
- 6. 26. 제5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12. 24. 노동교실에서 근로조건개선요구 단식시위 진행 결과,  
저녁 8시 퇴근을 노동청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에게 약속받음

1975

- 5. 5. 와이셔츠 조합원 임금인상 투쟁
- 5. 21. 4개시장과 임금협정 신규 체결
- 6. 26. 제7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7. 22. 이소선 구속, 노동교실 폐쇄
- 9. 9 이소선 석방과 노동교실 반환을 위한  
결사 투쟁(유림빌딩 3, 4층)

1977

1970

- 11. 13. 전태일 분신항거
- 11. 16. 노동청장 8대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 수락
- 11. 20.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결성준비위원회 발족
- 11. 27.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결성 및 창립식 개최

1972

- 4. 평화새마을노동교실 운영
- 10. 13. 새마을노동교실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 11. 26. 제2차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

1974

- 1. 1. 복지의원 폐쇄
- 1. 30. 제1호 《청계피복노조소식》발행
- 1. 31.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 발족
- 6. 14. 제4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8. 20. 복지의원 이전 개원식  
(노동청, AAFLI 아세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 지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운영)

1976

- 1. 27. 부관상가와 단체협약 신규체결
- 3. 6.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직불제 투쟁 시작
- 3. 노사협의회에서 견습공 직불제 최종 결정
- 6. 24. 제6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9. 16. 풍천화섬 연대투쟁(청계피복노조 총무부장 구속)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We are not machines.  
We are human beings.**

하나의 돌이 우리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힌 돌은 빠지지 않고 더욱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에 박힌 그날의 기억은,  
지우려 해도 차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결단으로 시작된 일의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라고 외친 그 목소리에,  
“우리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해야 했습니다.  
일터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작은 소망을 꿈꾼 전태일을,  
헛되이 보낼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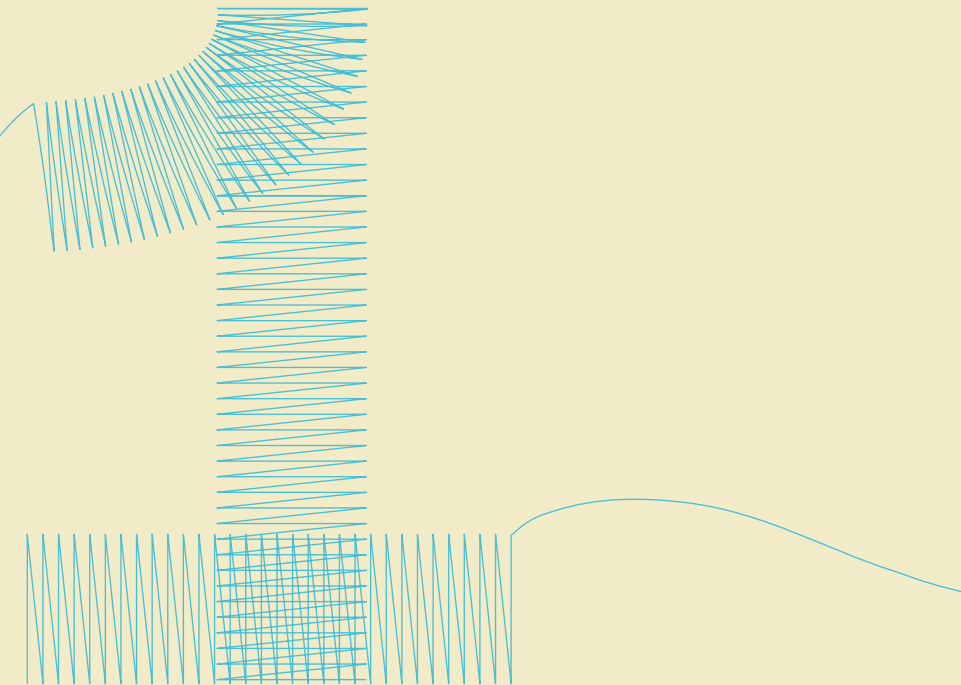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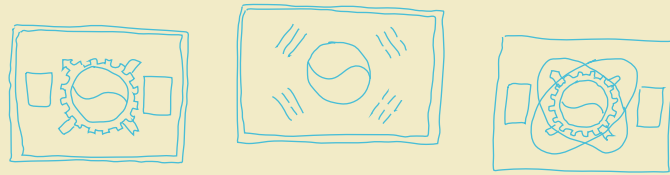
우리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잃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시작했습니다.

A stone is lodged in our hearts.  
A stone that only bores deeper with time.  
We cannot bear to erase  
the memory of that day from our hearts.

We had to finish what he started.  
To his cry, “We are not machines,”  
our response could only be, “We are human beings.”  
We could not let Chun Tae-il’s small wish  
to have workplaces centered around human beings  
die in vain.

We chose to be brave.  
We couldn’t lose anyone else.  
For everyone and for ourselves,  
we decided to join forces.  
That’s how we began.





결성



# 전태일 이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 1.

## Chun Tae-il Brought Change

노동자를 위해 세상을 떠난 전태일의 이야기가 평화시장을 넘어 전국에 알려지자, 사회 곳곳에서 노동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힘을 모으면 노동현장을 바꿀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태일의 뜻을 이어받은 이소선 어머니와 삼동회 친구들, 어린 노동자들은 전태일 사후 14일 만에 청계피복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전태일 죽음을 계기로 결성된 청계피복노조는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 인권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Once the news that Chun Tae-il had died for his fellow workers at Pyeonghwa Market spread across the country, it sparked discussions about working conditions throughout Korean society. People came to realize that if they joined forces, they could bring change to workplaces. Fourteen days after Chun Tae-il's death, his mother Lee So-seon, members of the Samdong Society, and other young garment workers formed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Naturally, the Union's purpose wa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defend workers' rights.



### 노동 조건개선 8개 요구 조항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은 노동 조건개선 8개항을 노동청장에게 요구하며 장례를 거부했다. 이승택 노동청장이 전태일의 빈소에서 8개항 개선을 약속하자, 1970년 11월 20일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됐다.



1) 주일휴가(주휴제) 실시



2) 법으로 정한 정기 임금 인상



3) 8시간 근로제 실시(시간 외 수당제)



5)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6) 여성 생리 휴가



7) 이중 다락 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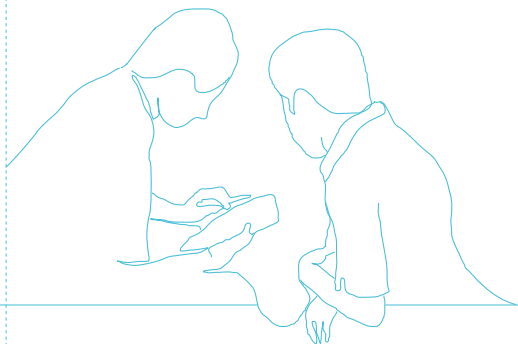
8) 노조 결성 지원



# 1-1

## 숨 가쁘게 달리는 청계피복노동조합

1970년 11월 27일 이소선과 삼동회 친구들은 공식 명칭 전국연합 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를 결성했다. 당일 열린 청계피복노조의 결성대회에는 한국노총회의실에서 가입조합원 560명을 대표하는 56명의 대의원이 참여했다. 노조는 빠르게 준비해서 다음 해 1월 9일 사업주와 처음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또한 결성 약 5개월 만에 4개 시장<sup>평화시장·통일상가·동화상가·동신상가</sup>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 The Union Wasted No Time

On November 27, 1970, Lee So-seon and members of the Samdong Society formed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which was officially called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Branch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Labor Unions. On the same day, the Union held a convention a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meeting room where fifty-six representatives of the Union's 560 members were present. The Union wasted no time in preparing for discussions on equal terms with factory owners and held its first meeting with them on January 9, 1971. As a result, in only five months since its formation, the Union managed to start negotiating a collective agreement with garment manufacturers in four markets including Pyeonghwa Market, Tongil Shopping Mall, Donghwa Shopping Mall, and Dongsin Shopping Mall.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결성준비위원회 임원명단  
List of Executives of the Committee to  
Form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Branch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Labor Un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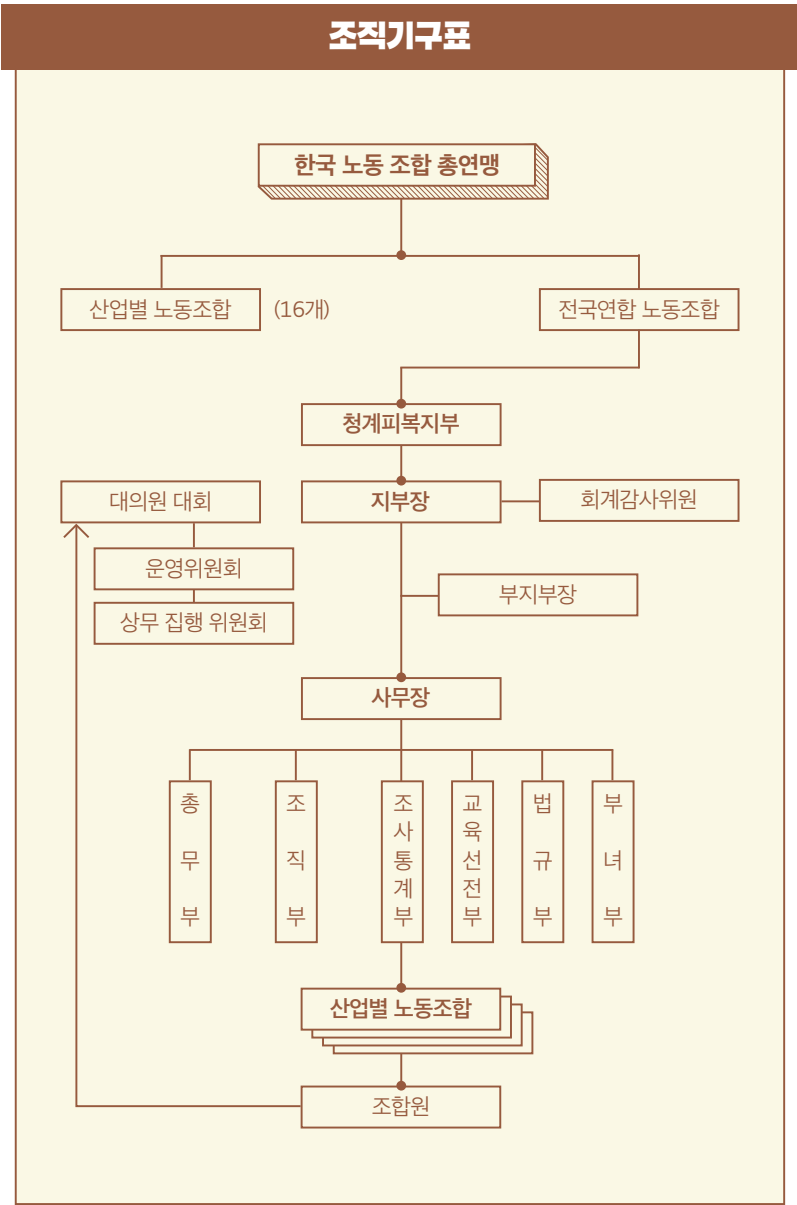
1970년대 | 25.3x18.3

전태일 분신행거 직후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노동 환경 변화를 위해 노동조합 설립 준비를 맡은 임원명단이다.



“노조 결성하는 날 한국노총에 가는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대의원대회를 할 수 없지  
조합원이 없는데, 할 수가 없지. 사람을 좀 더 많이 데려가야 했어...  
그래서 우리 공장 사람들 13명을 다 데리고 갔어요”

『2020 전태일노동구술기록 1』 중에서...



**청계피복노조 초기 조직구성**

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된 1970년 11월 27일 지부장, 부 지부장, 회계 감사위원, 운영위원 등 초기 임원을 선정했다. 이후 실질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담당하는 6개 부서 부장을 12월 1일 임명했다. 특히 조사통계부장은 조합의 활동에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청계피복노조 가입원서**  
The Union's Membership Application Form

1970년대 | 26.1x19

청계피복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 모집에 사용된 가입 원서로 인적 사항 외 임금이나 건강 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을 묻고 있다.



### 노조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

Photo Taken in Front of the Union's Office

1970년대 | 7.6x11.2

이승철 기증

평화시장 옥상에 마련된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앞에서 간부와 조합원들이 함께 촬영한 사진이다.



###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조합활동 현황

Status of the Activities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Branch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Labor Unions

1971 | 25.8x18

초창기 청계피복노조의 조합활동 현황 자료이다. 연혁, 가입 조합원 수, 근로개선사항, 체불노임 청산현황, 조직확장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헌거일이 연혁의 시작점인 것으로 보아 전태일의 유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체 협 약 서  
(본안 비교본)  
정 제 하 서

외부 노사 합의회  
연구 소위원회

서 기 1971년 4월

단 체 협 약 서

1971년 4월

단 체 협 약 서

평화시장주식회사  
동화상가주식회사  
봉일상가주식회사  
동신상가상인위원회  
전국연합노동조합청계외북지부

평화시장  
동화상  
동신상  
전국연합노동조합

제 5 장 노 사 협 의 회  
제 6 장 시 청 및 효 려  
제 7 장 기 타



청계피복노조 단체협약서(원본)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Union  
(Original Copy)

1971 | 26.9x19.4

청계피복노조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통칭 4개시장  
평화시장, 평화시장, 동양시장, 동신시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이다.  
문서 뒷면에 도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단체협  
약서 원본으로 파악된다. 1월 노사협의회 구성 후  
단체교섭을 시작한 결과물로 노조와 사용자주의 조합  
활동, 근로조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협  
약 내용이 담겨있다. 제3조와 제5조는 문구를 수정  
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아 단체 협약 체결 과정  
이 치열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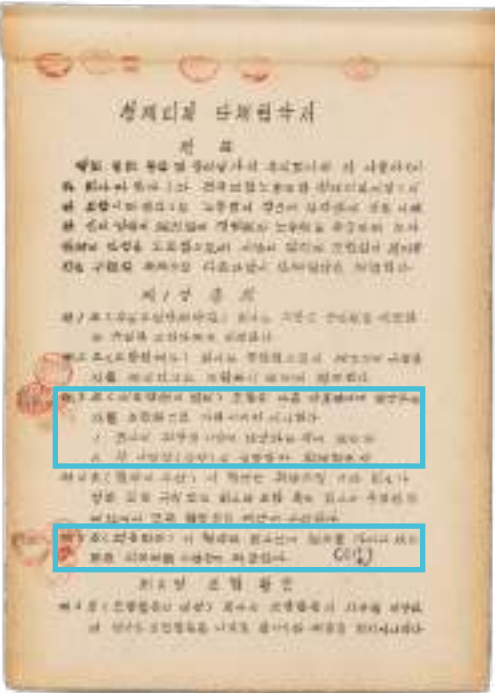


단체협약서(배포용)

Collective Agreement (Distribution Co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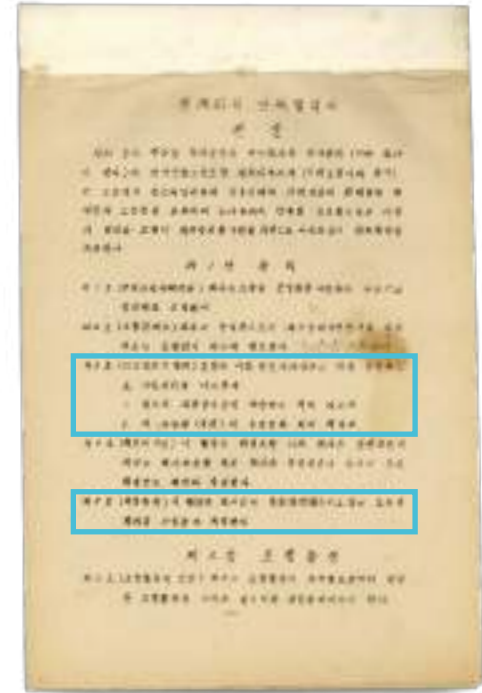
1971 | 26.5x18.5

청계피복노조가 4개 시장과 단체협약서를 체결한 후  
사업주들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알리고자 배포한 문서  
이다. 제3조와 제5조가 단체협약 당시 수정된 문구로  
인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들에게 단체협약  
서를 배포했지만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에  
단체협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제3조 <비조항원의 협회> 조항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은 가리키지 아니함  
1. 회사의 과반수 이상에 달하는 직원  
2. 각 사업장(공장)의 과반수 이상에 달하는 직원

제5조 <의결방법>의 협회 조항은 회사에 원본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복제품 사업장에 적용한다 (3강)



제3조 <비조항원(협회)> 조항은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은 가리키지 아니함  
1. 회사의 과반수 이상에 달하는 직원  
2. 각 사업장(공장)의 과반수 이상에 달하는 직원

제5조 <의결방법>의 협회 조항은 회사에 원본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복제품 사업장에 적용한다

청계피복 단체협약서로 보는  
협약 체결 과정

노조측 초안 제시

소위원회  
(노조·사용주 소수 인원 구성)  
초안비교표 작성 후 협상

소위원회에서  
가조인된 단체협약서로  
협약 체결

단체협약서 인쇄 후  
사용주에 배포





참고철(청계피복노조 단체협약서 초안)

Reference Files (Draft of the Union's Collective Agreement)

1970~71 | 28.1x21.3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당시 생산된 문서를 모아놓은 자료철이다. 노조 결성 시 발기취지문과 청계피복지부결성대회 결의문, 단체협약서 초안과 교정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계피복 단체협약서(초안비교표)의 노조가 제시한 초안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청계피복 단체협약서 (초안)

전문

평화, 동화, 통일 및 동선상가의 주식회사와 각 사용자(이하 회사라한다)와 전국연합노동조합청계피복지부(이하 조합이라한다)는 노동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밑에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유일 교섭단체 약관) 회사는 조합을 종업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

제2조(유니온 샷 제도)

- ① 회사의 종업원은 제3조에 규정한자를 제외하고는 고용일로부터 모두 조합원이 된다 다만 조합에 가입을 거부하는 종업원은 즉시 이를 해고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고하여야 한다

제3조(비조합원의 범위)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지 아니한다

- 1. 회사의 과장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자
- 2. 각 사업장(공장)의 공장장과 회계책임자

제4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모든 규칙 또는 회사와 조합 혹은 회사와 종업원간에 있어 서의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안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복제품사업장에 적용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6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아니 한다

제7조(조합 전임자) 조합은 조합원 중에서 각 회사 단위로 명씩의 조합업무 전임종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은 그 성명을 당해 회사에 통보하며 전임자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8조(조합비 징수방법) 회사는 조합원의 급료 지불에 있어서 조합으로부터 통지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즉시 이 를 조합에 인도한다

제9조(회사 시설등의 이용)

- ① 조합은 회사 시설내에 조합사무소를 설치하며 조합활동상 필요한 토지 건물 집기 비품 통신 기타 회사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회사구내에 있어서 게시 혹은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를 자유로히 행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조건

제10조(인사권의 원칙) 조합은 종업원의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인정한다

제11조(해고)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 1. 당사자가 희망하였을 때
- 2. 불구 또는 노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이상 계속하여 무단 결근한 자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

5. 경영방침의 변경으로인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전4, 5호의 경우 회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행한 해고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시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시간) 1일의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업기의 업무량에 따라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휴식시간) 1일의 휴식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하며 회사는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

제14조(시간외 및 휴일근무)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조합과의 협의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15조(여자, 연소자의 취업제한)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심야작업(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을 시키지 못한다

제16조(휴일)

①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정휴일 매주 일요일

2. 특정휴일

가. 년시 3일간, 구정 5일간

나. 노동절, 추석 5일

다. 노사간에 합의한 날짜

② 회사는 업무상 사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합과 합의하에 휴일을 대체 또는 임시휴일을 설정할 수 있다

제17조(월, 년차휴가)

① 회사는 1개월간 개근한 종업원에게 1일의 월차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1년간 계속 근무한 종업원이 7월이상 8월미만 출근한 자에 대하여 5일, 8월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 여는 8일의 년차휴가를 준다

③ 월차 및 년차휴가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자 종업원에게 신청에 따라 1개월에 1일씩의 생리휴가를 준다

제19조(특별휴가)

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휴가를 준다

1. 본인 결혼시 7일

2. 자녀 결혼시 3일

3. 동일 가구내의 형제자매 결혼시 2일

4. 처의 분만시 2일

5. 친족 사망시

가. 부모 및 배우자 5일

나.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자녀 3일

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동거의 친족 2일

6. 본인은 주택재해와 유행병 등의 사고로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필요한 기간

7.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두할 때와 선거기타 공민권행사에 필요한 시간 및 일 수

② 회사는 종업원의 경조행사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20조(제급여의 협정) 회사와 조합은 상호협력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생활비 보장 원칙 밑 에 종업원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조합이 별도로 협의 결정한다

제21조(안전 보건시설) 회사는 안전 보건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고 종업원의 건강증진 및 위해방지에 노력한다



제22조(건강진단)

- ① 회사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행하여야하며 필요할 시는 임시로 건강진단을 행할 수 있다
- ② 종업원은 이유없이 전항의 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을때는 예외로 한다
- ③ 건강진단을 담당하는 의사는 회사와 조합이 서로 협의하여 매회 이를 지정한다

제23조(취업금지) 회사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노동함으로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조합과 협의하여 취업을 금지시킨다

제24조(복지 후생시설)

- ① 회사는 종업원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기숙사(부속시설 포함) 의무실, 휴게소, 강의실, 목욕장, 급식소(식당), 음료수, 변소 등의 시설을 완비한다
  - ② 전항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행하되 그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 제25조(교육훈련) ① 회사와 조합은 종업원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조합이 주최하는 종업원의 각종 기술교육과 일반교육에 적극 협조 지원한다
  - ③ 모든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④ 회사는 종업원이 수강, 취학 등의 사외 교육을 희망할때는 가능한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26조(치료비의 부담) 회사는 종업원이 업무상 부상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치료비와 요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4장 단체교섭

제27조(단체교섭)

- ① 회사 및 조합은 그 어느 한편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요구는 교섭일시 장소 및 요구 사항 혹은 부의사항을 서면으로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섭단위)

- ① 회사는 조합이 정당한 교섭단위임을 확인한다
- ② 회사와 조합은 각회사 대 분회간의 협정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을 행한다

제29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종업원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련있는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30조(교섭위원) 단체교섭의 교섭원은 회사 및 조합이 각각 선임하여 상대방에 통고한다 또한 교섭 도중 변경할때도 이와 같다

제31조(협약서의 작성) 단체교섭 사항이 합의에 도달하였을시는 협약서(또는 협정서 합의서 등)를 작성한 다음 회사와 조합의 쌍방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제5장 노사협의회

제32조(노사협의회)

- ① 회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고정처리 경영방침 기타 단체교섭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쌍방대표로 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 ②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 조합대표 각 동수로 구성한다

- ③ 노사협의회 합의 의결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노사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별도 제정한다

제6장 쟁의협정

제33조(알선 조정신청) 제4장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로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또는 조합 어느 편에서도 노동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34조(중재) 전조의 알선 또는 조정이 실패에 돌아갔을때에도 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조합 쌍방의 명의로서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쟁의행위 중의 일상생활) 회사는 조합이 쟁의행위 중일지라도 조합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보장케하기 위하여 모든 보건 및 후생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식료 기타 생활 필수품의 조달을 저해하지 못한다

제36조(시설의 이용) 회사는 조합이 쟁의행위 중일지라도 이 협약 제9조의 회사시설이용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37조(채용, 취업의 제한) 회사는 조합의 쟁의행위 중 제3조에 규정된 비조합원인 종업원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규채용 또는 취업을 시키지 못한다

제38조(쟁의행위 중의 재해) 쟁의행위 중일지라도 사업장의 시설에 화재 기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시 혹은 발생이 예측되어 위험 상태에 있을때는 조합은 진압 또는 방지에 대하여 회사에 협력한다

제7장 시행 및 효력

제39조(시행) 이 협약은 197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40조(개폐의 절차)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때는 효력상실 1개월전까지 갱신안을 첨부하여 상대방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41조(책임부담) 이 협약시행 중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한 측이 부담한다

부칙

제42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서는 5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쌍방 각 1통씩 보관한다

서기 1971년 월 일

단체협약서(초안)  
Collective Agreement (Draft)

1971 | 19x26.3

동화상가주식회사의 단체협약서(초안)으로 3월 31일 노조 대표와 통일상가, 동화상가, 평화시장 대표가 소위원회에서 합의 후 가조인함을 도장을 찍어 확인한 문서이다. 창계피복 단체협약서(초안비교표)의 새로 조정한 내용과 흡사하다. 기본적인 틀은 노조가 작성한 단체협약서 초안과 같으나 내용이 대거 삭제, 수정되었다.



단체협약서(동화상가주식회사 초안)

\*해석이 쉽도록 원문의 명시만 한 자 간자체를 번자체로 변환하고, 오기입된 것은 수정하여 작성함

제1장 총칙總則

제1조(유일 교섭단체 約款) 회사會社는 조합組合을 종업원從業員을 대표代表하는 유일한 교섭단체交涉團體로 인정認定한다

제2조(조합원제도組合員制度) 회사會社의 종업원從業員으로서 제3조에 규정規定한 자를 제외除外하고는 조합원組合員이 되는데 협조協助한다

제3조(조합원組合員의 범위範圍) 조합組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組合員으로 가입加入시키지 아니한다

1. 회사會社의 과장課長級 이상以上에 해당該當하는 직職에 있는 자
2. 각 사업장各事業場 공장工場의 공장장工場長과 회계책임자會計責任者

제4조(협약協約의 우선于先) 이 협약協約은 취업규칙就業規則 기타 회사會社가 정한 모든 규칙規則 또는 회사會社와 조합組合 혹은 회사會社와 종업원間從業員間에 있어서 모든 협정協定 또는 계약契約에 우선于先한다

제5조(적용범위適用範圍) 이 협약協約은 회사안에 점포店鋪를 가지고 있는 모든 피복제품사업장被服製品事業場에 적용한다

제2장 조합활동組合活動

제6조(조합활동組合活動의 보장保障) 회사會社는 조합활동組合活動 등의 자유自由를 보장保障하며 정당正當한 조합활동組合活動을 이유理由로 불이익不利益한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조합組合 전임자專任者) 조합組合은 조합원組合員 중에서 각 회사會社 단위單位로 약간명씩의 조합組合업무 전임종사자를 회사會社의 협의하協議下에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은 그 성명姓名을 당해當該 회사會社에 통보通報하며 전임자의 임금賃金은 회사會社가 부담한다

제8조(조합비組合費 징수방법徵收方法) 회사會社는 조합원의 급료給料 지불支拂에 있어서 조합組合으로부터 통지通知한 조합비組合費를 일괄公제하여 즉시 이를 조합組合에 인도한다

제9조(회사시설會社施設 등의 이용)

- ① 조합은 회사시설會社施設 내에 조합사무소를 설치設置하며 조합활동상 필요必要한 회사시설會社施設을 회사會社와 협의協議하여 이용利用 할 수 있다
- ② 조합組合은 회사會社 구내에 있어서 게시 혹은 인쇄물의 첨부 및 배부를 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조건

제10조(인사권人事權의 원칙原則) 조합組合은 조합원組合員의 인사권人事權이 원칙적原則의으로 회사會社에 있음을 인정認定한다

제11조(해고解雇) ① 회사會社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該當하는 자 이외에는 해고解雇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희망希望하였을 때
2. 불구 또는 노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정당正當한 이유理由 없이 3일이상以上 계속하여 무단無斷 결근缺勤한 자
4. 고의故意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회사會社에 막대莫大한 경제적 손실損失을 끼친 자
5. 경영방식經營方式의 변경變更으로 인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6. 당회사當會社 제품製品의 기술技術에 미달未達한 자

② 회사會社가 행한 해고解雇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會勞使協議會에서 이를 심사審査하여 시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시간) 1일의 기본基本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함을 원칙原則으로 한다.

다만 성업기의 업무량業務量에 따라 회사會社와 당해 직장 班長이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휴식시간休息時間) 1일의 휴식시간休息時間은 식사시간食事時間을 포함하여 1시간時間으로 하며 회사會社는 휴식休息시간을 자유롭게 利用하게 한다

제14조(시간외時間外 및 휴일休日근무) 회사는 업무상業務上 부득이不得已한 사정事情이 있을 時에는 당해 직장 班長의 협의協議에 의하여 종업원從業員에게 시간외時間外 근무 또는 휴일休日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15조(여자女子, 연소자年少者의 취업제한就業制限) 여자女子와 18세 미만자未滿者에 대하여는 심야작업(오후午後 10시부터 오전午前 6시까지)을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당일 잔무처리를 위하여 한시간의 余餘裕를 둘 수 있다

제16조(휴일休日) 휴일休日は 다음과 같다

- 1. 정휴일定休日(매주 일요일)
- 2. 특정휴일特定休日  
가 年시年始 1일간  
나 구정 5일간  
다 노동절 1일간  
라 추석 2일간  
마. 노사간 합의한 날짜

제17조(생리휴가生理休暇) 회사會社は 여자종업원女子從業員에게 신청申請에 따라 1개월에 1일씩의 생리휴가生理 休暇를 준다

제18조(특별휴가特別休暇)

- ① 회사會社は 종업원從業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該當할 때에는 특별휴가特別休暇를 준다
  - 1. 본인 결혼식 7일
  - 2. 자녀子女 결혼식 3일
  - 3. 동일同一 가구内家口内の 형제자매兄弟姉妹 결혼식 1일
  - 4. 처妻의 분만시 2일
  - 5. 부모父母 및 배우자 사망死亡 5일
  - 6. 공공기관 公營機關의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두할 때와 선거 기타 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 및 일수
  - 7. 본인의 주택 住宅재해와 유행병 등의 사고로 交通交通이 차단되었을 때 필요한 기간

제19조(제급여給與의 협정協定) 회사會社와 조합은 상호협력相互協力하여 생산性生産性的의 向上上을 도모하는 中 시에 조합원組合員의 생활生活費 保障保障 原則原則 밑에 (보조 및 建舍舍 除外) 임금, 상여금 등 給與給與에 관한 사항事項을 회사會社와 각 직장班長과 別道別途로 협의協議 결정한다.

제20조(안전安全 보건保健施設) 회사會社は 安全安全 保健保健에 必要必要한 施設施設을 完備完備하고 종업원從業員의 건강健康진 進 및 衛衛防防에 노력努力한다.

제21조(건강진단)

- ① 회사會社は 1년에 1회 以上以上 정기적定期的으로 종업원從業員의 건강健康진단을 行行하여야하며 必要必要할 시는 임시로 건강진단健康診斷을 行할 수 있다.
- ② 종업원從業員은 이유理由없이 前前項項의 진단診斷을 拒拒否否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醫醫사의 건강健康진단을 받고 그 結果를 證明하는 書面書面을 제출하였을때는 예외로 한다.
- ③ 건강健康진단을 擔當하는 醫醫사는 회사會社와 조합이 서로 합의合議하여 매回每回 이를 지정한다.

제22조(취업금지就業禁止) 회사會社は 전염病, 정신病 또는 노동勞動함으로서 病勢病勢가 惡化惡化될 虞虞가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조합組合과 협의協議하여 취업就業을 금지시킨다.

제23조(교육훈련教育訓練) 회사會社와 조합組合은 종업원從業員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安全安全 其他其他 業務業務上 必要必要한 教育教育을 실시한다.

제24조(치료비治療費의 부담負擔) 회사會社は 종업원從業員이 업무상 부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治療費를 부담한다.

제4장 단체교섭

제25조(단체교섭)

- ① 회사會社 및 조합은 그 어느 한편으로부터 단체교섭을 要求要求하였을때는 즉시 이에 應應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要求要求는 교섭日交涉日時 場所場所 및 要求事項要求事項 혹은 不不協協을 書面書面으로서 代表代表가 기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에 提出提出하여야 한다.

제26조(교섭사항)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종업원從業員의 근로조건 기타 處處우에 관한 사항 및 이에 關關連連인 모든 사항으로 한다.

제27조(교섭위원) 단체교섭團體交涉의 교섭원은 회사會社 및 조합이 각각 선임하여 상대방에 通通보한다. 또한 교섭 中 中 變變경할때도 이와 같다.

제28조(협약서協約書의 작성作成) 단체교섭 사항이 합의合議에 도달到達하였을 시는 協約書協約書(또는 協正協正 合合의서合議書) 등을 作成作成한 다음 회사會社와 조합組合의 쌍쌍方方代表代表者가 서명署名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제5장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

제29조(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

- ①회사會社와 조합은 조합원의 政政처리 經營經營 其他其他 團體團體等 必要必要한 事項事項을 처리處理하기 위하여 쌍쌍方方代表代表로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 ②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는 會社代表會社代表, 조합代表組合代表 각 동수同數로 구성한다.
- ③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합의合議 의결사項議決事項은 단체협약과 동일同一한 效力效力을 갖는다.
- ④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 및 運運營營 등에 必要必要한 세부규정은 회사會社와 조합이 협의하여 別道別途로 制定制定한다.

제6장 시행施行 및 效力效力

제30조(시행施行) 이 協約書協約書는 1971년 월 일부터 施行施行한다

제31조(개폐의 절차) 이 協約書協約書를 갱신코저할때는 效力效力상 1개월個月전까지 갱신안을 添添附附하여 상대방에 提出提出하기로 한다

제32조(책임부담) 이 協約書協約書 施行施行 中 中 不不協協으로 인하여 發生發生하는 모든 責任責任은 불이행한 측이 부담한다

부칙

제33조(협약協約의 保管保管) 이 協約書協約書는 회사會社와 조합의 代表代表가 서명날인하고 쌍쌍方方 各各 1通通씩 保管保管한다

서기 1971년 월 일





청계피복 단체협약서(초안 비교표)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Union  
(Table for Comparison with Draft)

1971 | 26.9x18.9

노조에서 최초로 작성한 단체협약서 초안과  
조정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노조 초안      조정안



노조 초안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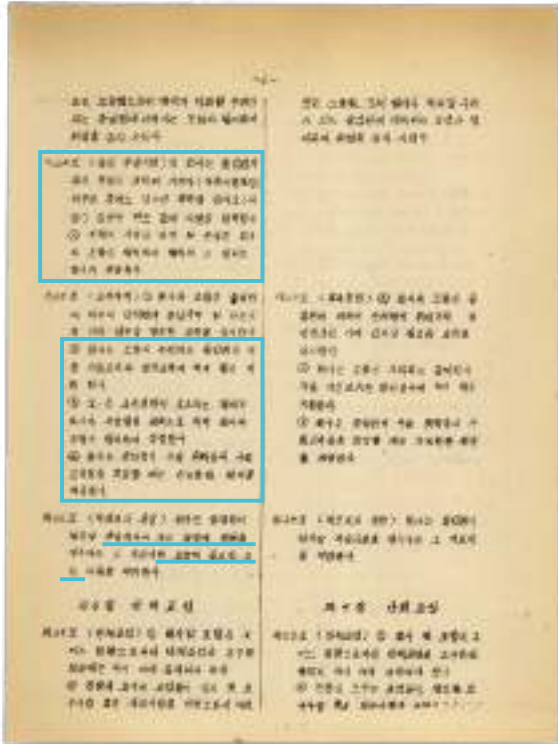


왼쪽은 노조가 제시한 초안, 오른쪽은 조정안이다. 노조 초안의 표시 부분은 이후 조정안과  
체결된 단체협약서에서 수정 혹은 삭제된 부분이다. 조정안의 표시 부분은 노조 초안에서  
수정 혹은 추가된 부분이다.

초안 비교표를 살펴보면, 제11조의 1항 3호는 노조 초안에 2주일이 조정안에서 3일로  
수정됐다. 또한 조정안의 제11조 1항 6호는 추가됐고, 노조 초안의 제17조는 조정안에서  
삭제됐다. 이렇듯 청계피복 단체협약서(초안 비교표)에서는 노조 초안과 조정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이점으로 단체협약안 비교표를 사업주들에게 배부 후, 받은 접수증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단체협약 체결 전에 사용자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 초안      조정안



노조 초안      조정안



노조 초안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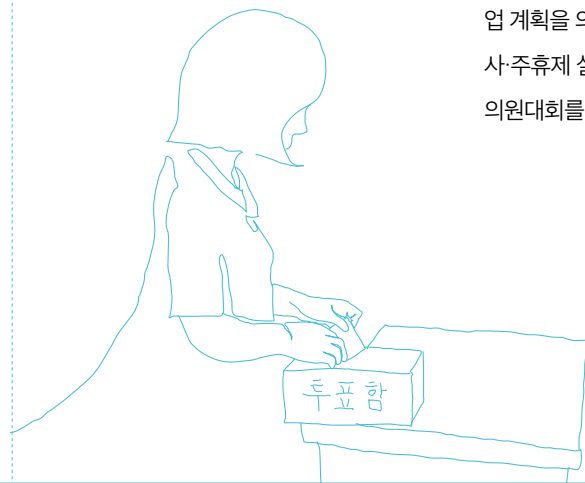
노조 초안      조정안



# 1-2

## 노동조합의 미래를 정하는 대의원대회

청계피복노조는 가입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지부의 문제와 사업 계획을 의논하고 결정했다. 초기 대의원대회는 노조의 주력 사업으로 실태조사·주휴제 실시, 야간근무 금지, 임금 체불 해결을 결정했다. 최고 의결 기관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Representative Conventions Determined the Union's Future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elected representatives to discuss and decide matters on behalf of its members. Early on, the representative conventions focused on surveying working conditions, introducing a weekly holiday system, prohibiting night shifts, and resolving arrears. Such conventions show that the Union had been run democratically through its representatives.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청계피복노조에서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전 보고용으로 지난 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작성한 문서이다. 노조의 회의 활동, 조직 활동, 조사·통계 활동, 교육 선전 활동, 노사관계 활동 등의 지난 활동과 예·결산 보고, 사업계획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노조의 활동을 가장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1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Project Report for the First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1 | 26x18.7x1  
이승철 기증

제2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Project Report for the The Second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2 | 25.5x18.5x1  
이승철 기증

제3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Project Report for the Third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3 | 25.5x18.8x1  
이승철 기증

제4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Project Report for the Four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4 | 25.9x19x1  
이승철 기증

제5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Project Report for the Fif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5 | 26.2x18.8x1  
이승철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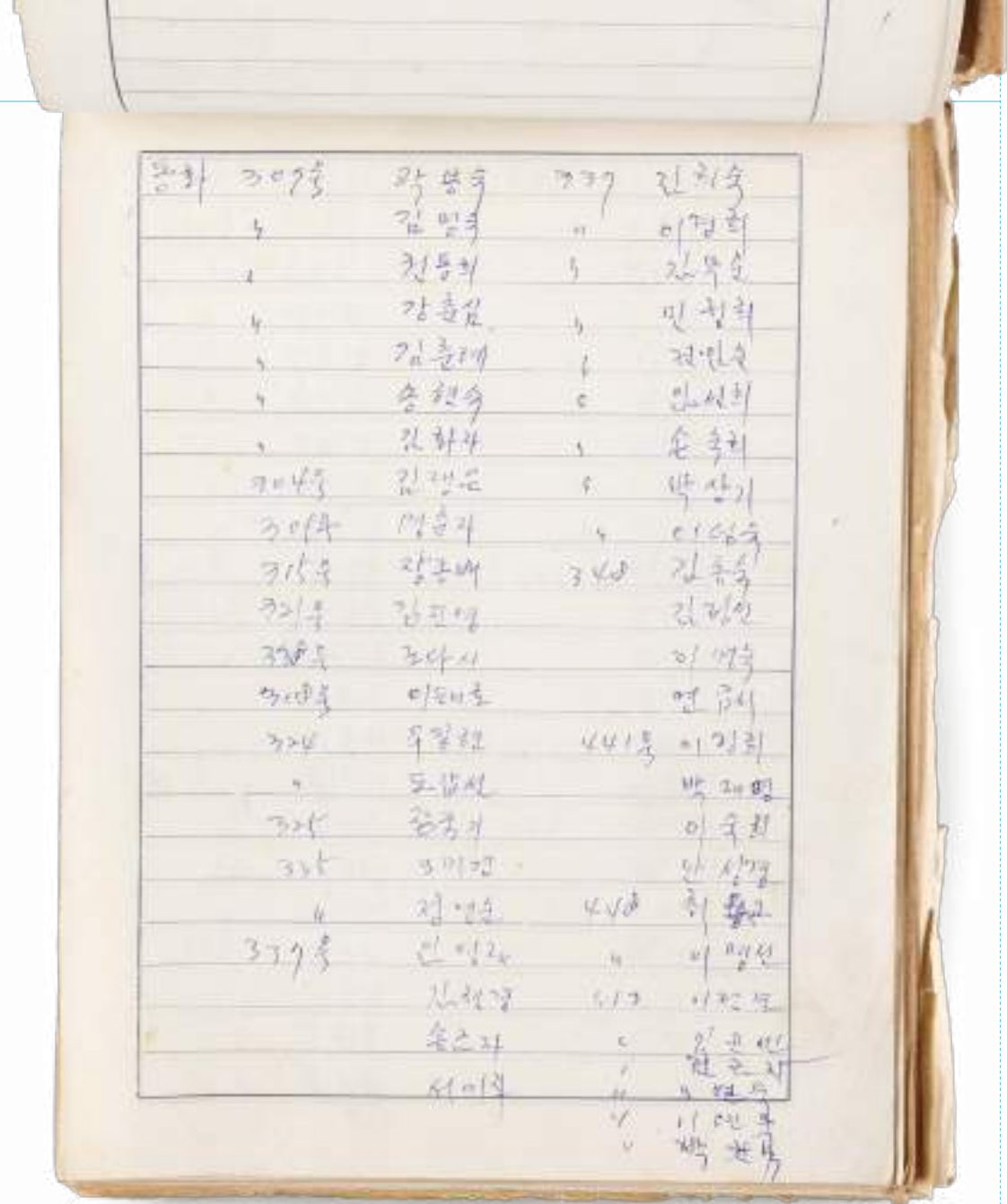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 대의원 투표 용지

Ballot for the Union's Representatives

1970년대 | 26.1x9

청계피복노조 대의원을 뽑을 때 사용한 투표용지로 입후보자 명단을 보고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당시 생산된 문서를 모아놓은 자료실에 수록된 대의원 투표자 명단이다.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제2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플랜카드

Banner for the Second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Branch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Labor Unions

1972 | 45x345

청계피복노조의 제2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용한 플레카드다.





전국언합노조정계피복지부

# 정기대의원대회



제4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진

Photo of the Four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4 | 8.4x11.9

제4차년도 대의원대회는 AAFL<sup>1</sup>아세아아메리카자유노동기구 소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모범 조합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모습이다.



회의자료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에서 진지함이 엿보인다.



제7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진

Photo of the Seven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7 | 8.4x11.9

제7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자부장 및 임원들을 선출했다.



제1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진

Photo of the First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1 | 8.4x11.9

이승철 기증

12월 19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정기대의원대회가 개최됐다. 당시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 건달로 보기에 조합 임원들은 이소선어머니가 영안실에서 현양복을 주워다가 깨끗하게 뺀 양복을 입었다.



제5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진

Photo of the Fif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5 | 8.4x11.9



의장



대의원대회 출석명단을 확인하고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배부했다.



# 함께 뽑자 노동조합의 미래

조합원들은 임원을 뽑으면서 노동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노동조합에 간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노동 환경을 원하고 있을까요?  
 사회에 바라는 점을 도장 찍거나 적어서 걸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노동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복지**



  
**임금**



  
**워라벨**



  
**평등**





**활동**

##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 1.

### The Union Strive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청계피복노조는 서울 시내 각 시장상가 의류 노동자들을 대변하여 사업주에게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협의했습니다. 노조 초기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노조는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실태조사와 정책적 활동을 펼치는 한편 소모임과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친해진 노동자들은 직장 동료로 넘어 친구이자 가족 같은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On behalf of garment workers,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negotiated with factory owners operating at markets in downtown Seoul. In its early stage, the Union focused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raising the quality of life and welfare for workers. That is why the Union conducted surveys, proposed policy changes, and organized small group activities and education programs. Such efforts helped workers bond so that they became more like friends and family to each other than simply co-workers.

## 1-1

### 노동 환경을 알아보는 실태조사

청계피복노조는 객관적으로 노동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통계화하여 작성한 요구안으로 사용주와 교섭을 진행했다. 초창기 실태조사는 작업환경과 사업장별 노동자 현황 파악 위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을 내기 위한 밑바탕이었다. 단체협약에서 주휴제가 통과된 이후, 노조는 주휴제와 야간 근무 위반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 Surveys on Working Conditions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conducted surveys to gain an objective grasp of the workplaces' current situation. Its early surveys focused on compiling statistical data related to garment workers and the conditions they were working under at each factory. Such data was later used to draft proposals for the Union to present while negotiating a collective agreement with factory owners. Once weekly holidays became guaranteed through a collective agreement, the Union mainly conducted surveys to uncover violations of rules on weekly holidays and night work.



시장상가 노동 환경 관련 신문 기사

전태일의 분신행거가 도화선이 되어  
시장상가 노동 환경의 열악함을 알리는  
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시장상가  
의 작업 환경과 노동자들이 앓고 있는  
직업병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기사화  
되어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를 사회에 촉구했다.



직업병 36.9%가 소음탓

[A newspaper article](#)

《중앙일보》1971년 2월 19일



근로기준법 10인 고용업체도 적용,  
작업환경 나쁜 30개 업체 입건

[A newspaper article](#)

《한국일보》1970년 11월 24일



눈먼 감독... 보호없는 근로자,  
98%가 근로조건을 위반

[A newspaper article](#)

《중앙일보》1970년 11월 19일

청계피복노조 제1차 실태조사 설문지

Questionnaire for the Union's First Survey

1971 | 26.3x20.2x2.5

청계피복노조에서 첫 번째로 실시한 실태조사 설문지이다. 노조는 1971년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 동신상가의 노동조건, 노사관계, 임금 등을 조사했다. 노조는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 협의할 안건을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향후 활동 계획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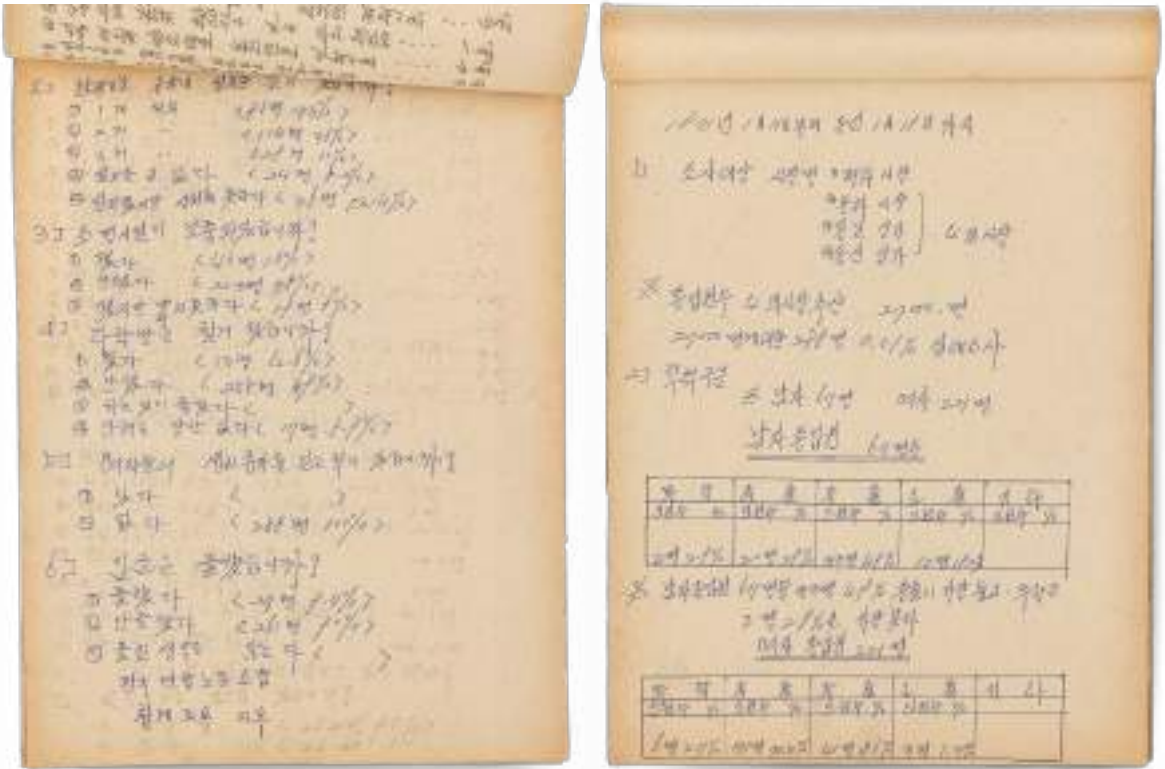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 제1차 실태조사 통계문서

Statistics From the Union's First Survey

1971 | 26.6x19.4

청계피복노조가 첫 번째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문서로, 제1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4개 시장의 288명의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연령, 학력 등 기초 조사부터 근무 시간, 노동 환경, 임금, 노동조건, 노사관계,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특이점으로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이후의 건강진단 실시, 환풍기 설치, 조명시설 보충, 다락방 철거, 생리휴가 지급, 임금 상승을 묻는 문항이 있다. 노동자들은 조명 보충, 다락방 철거, 생리휴가 지급, 임금 상승 등의 항목에서는 84% 이상이 변화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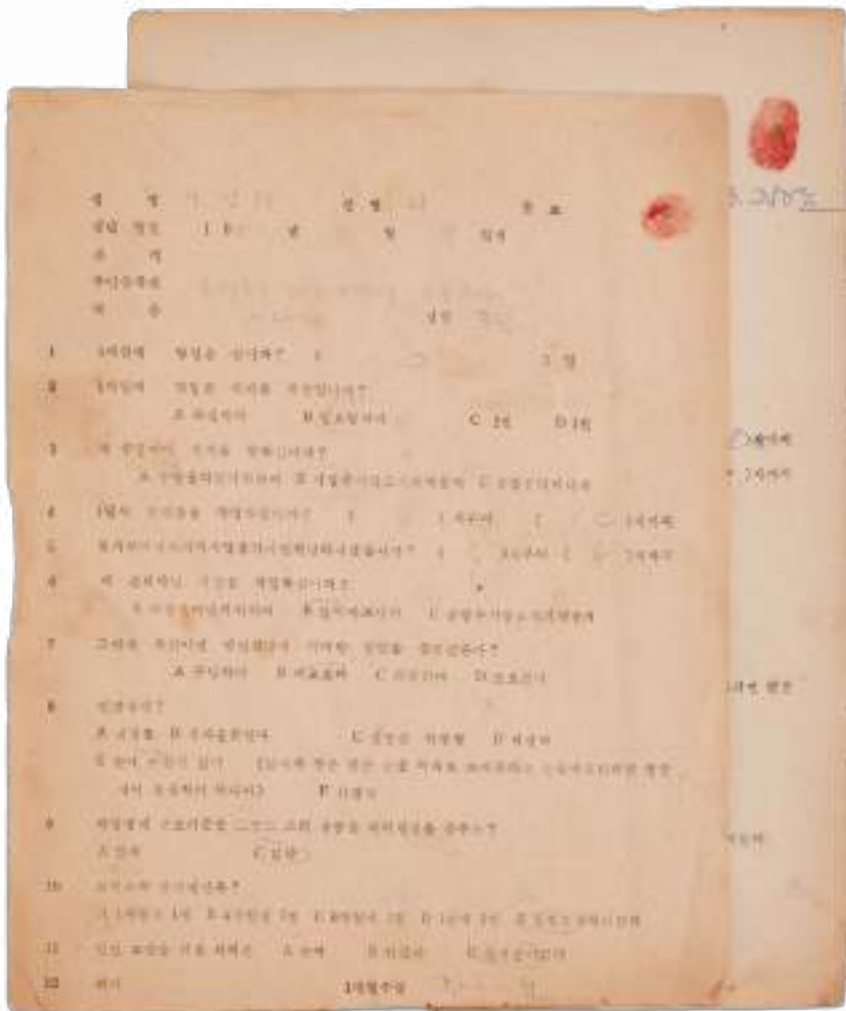


평화시장 노동 실태조사 설문지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of  
Pyeonghwa Market Workers

1968~9년 | 26.4x20.2

전태일이 바보회와 삼동회때 평화시장 노동자들  
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실태조사 설문지이다.  
대상자에 대한 기초 조사와 근무 시간, 건강 상  
태 등을 묻고 있다. 이후 청계피복노조는 전태일  
이 실시했던 실태조사를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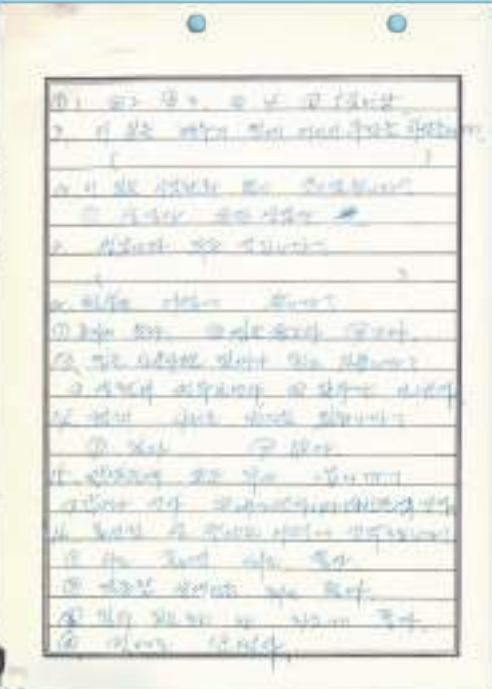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 72년도 실태조사 착수  
기안문서

Draft Document for the Initiation of the  
Union's 1972 Survey

1972 | 28.2x2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 학생들과 공동으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평화·동화시장 근로자 800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내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노동 환경에 대한 문항 외에  
이성관계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성에 대한 인식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여성의 비중이 높았던 시장  
상가 노동자들의 인식을 파악한 후, 교육에서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7~8월에는 가톨릭 신학대학 산업사목연  
수회와의 합동 실태조사에서도 노동 문제에서  
벗어나 의식문제, 여가문제, 종교에 대한 관심도  
등 노동자의 사회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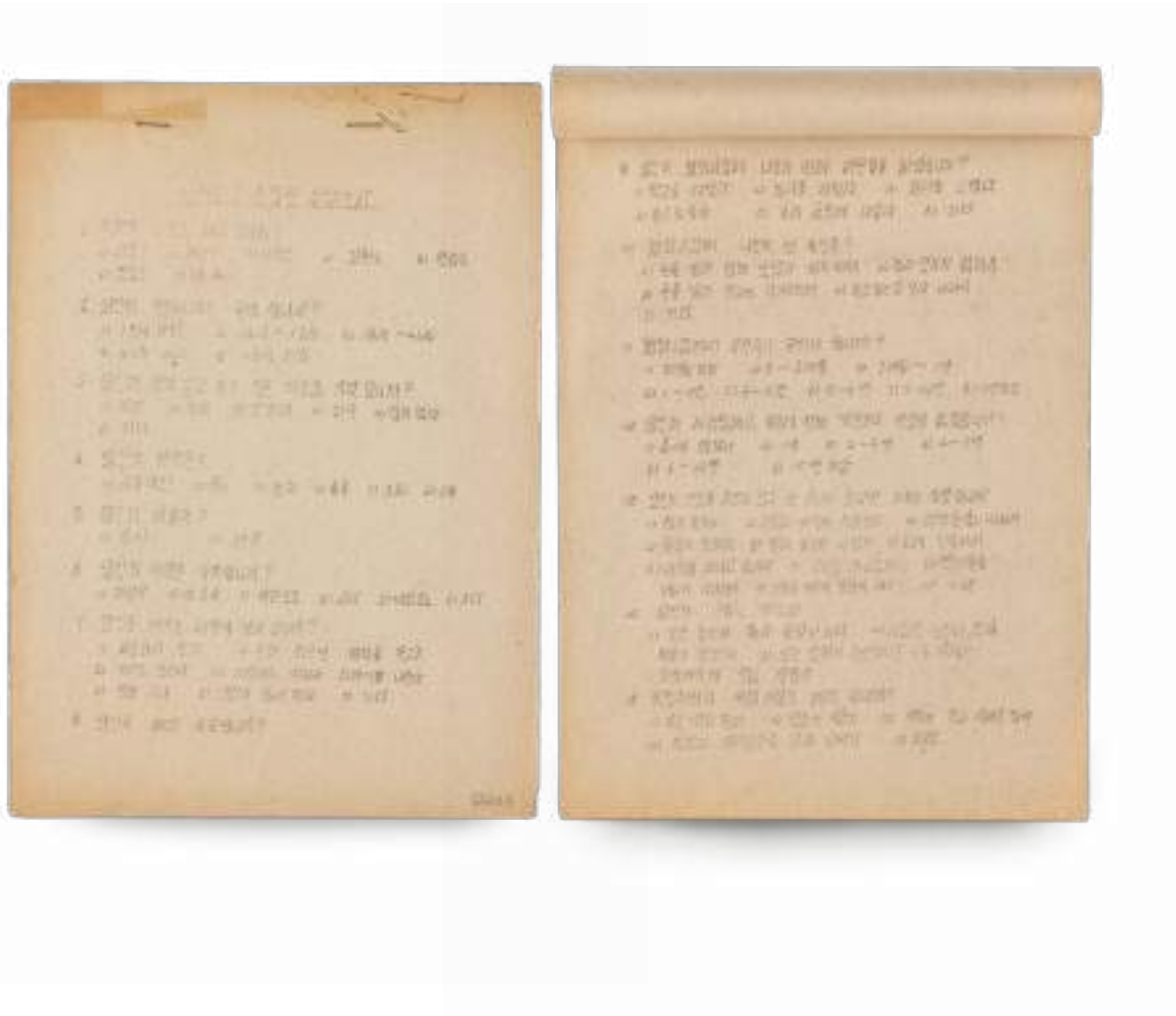


평화시장 조합원 실태조사

Survey of Union Members at  
Pyeonghwa Market

1970년대 초중반 | 26.8x19.4

설문지에 출신지, 연령, 학력, 성별, 직책, 여가생활, 직장 주변의 위생시설, 월급 등의 문항이 담겨있어 조합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청계피복노조 실태조사

Survey by the Union

1973 | 26.9x18.7x3.4

73년 4월 YWCA 연합회 대학생의 지원을 받아 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설문지이다. 설문지에는 성별, 직책, 연령, 학력, 경력, 임금, 임금제도, 견습공 임금제도, 만들고 있는 품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3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에 수록된 통계를 보면 임금제도에 서 월급제가 약 78%, 견습공 임금은 주인이 준다가 약 58%로 견습공 임금을 성과급제인 미싱사가 주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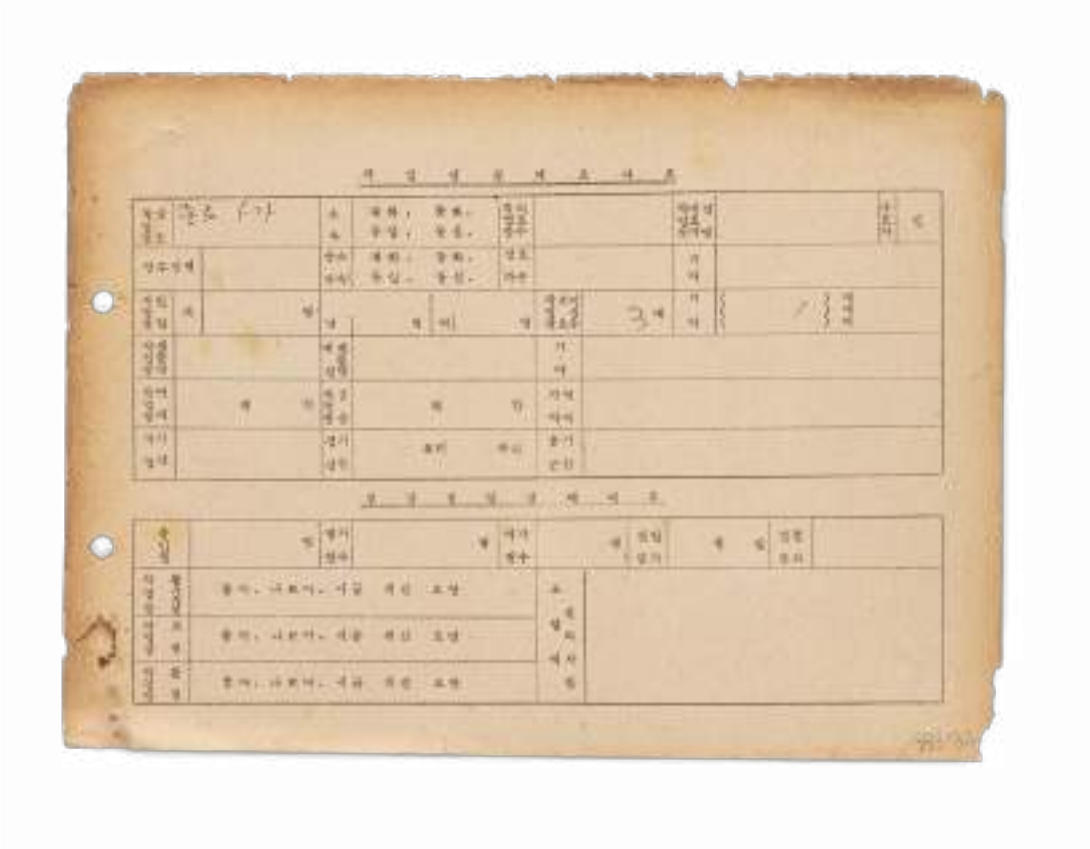


작업장 실태조사표

Checklist for Surveying Workplaces

1970년대 | 26.7x50

청계피복노조에서 시장상가 작업장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조사표 양식이다. 작업장 상호, 소속, 대표자 성명, 인원, 작업장 소유 미싱 수, 제품명, 건강진단 실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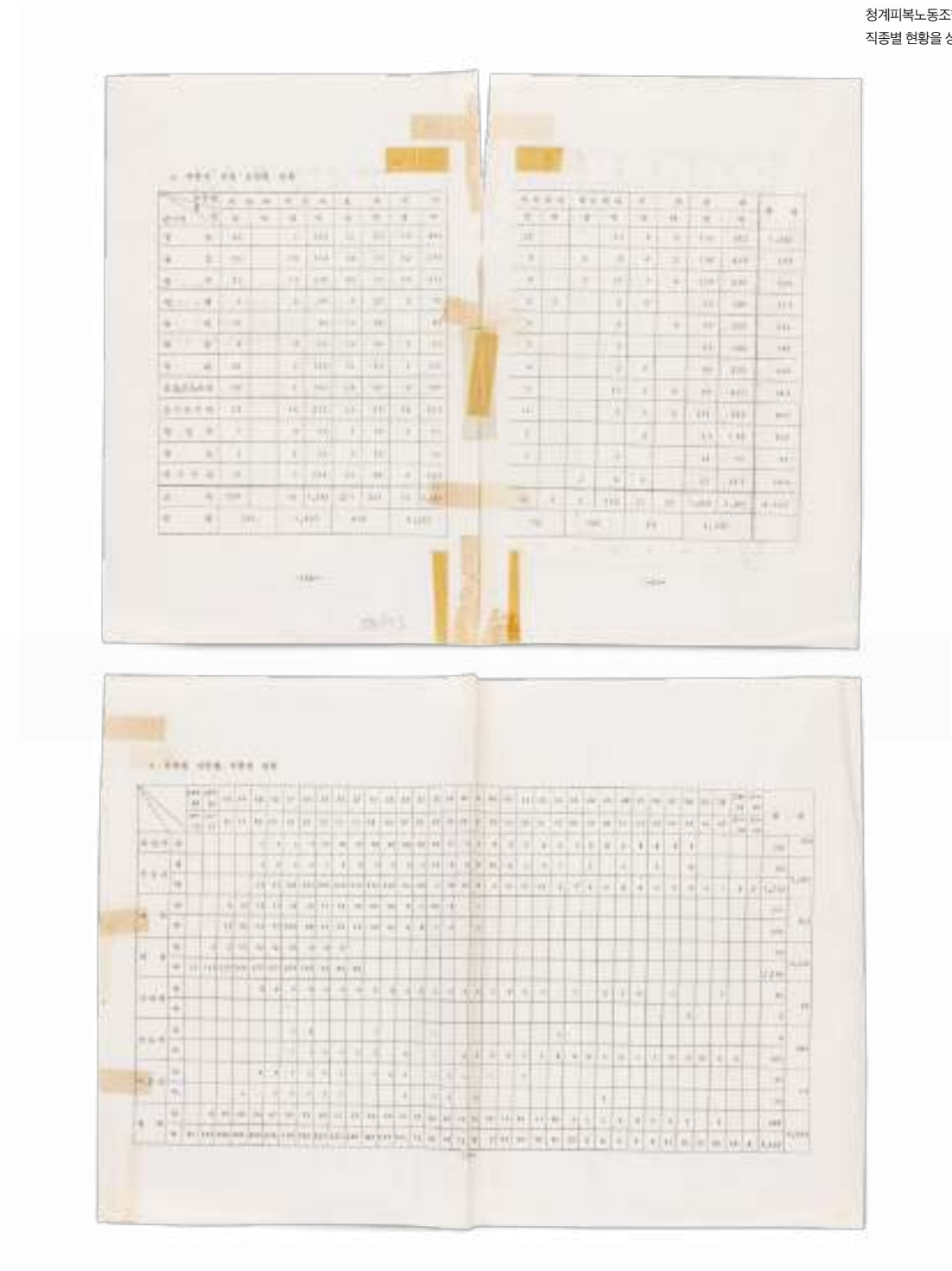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현황표

Table on the Status of Union Members

1970년대 | 25.8x36.2

청계피복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성별, 직종별 현황을 상가별로 정리한 표이다.





## 청계지역 사업자현황 실태조사

## Survey of Business Owners in the Cheonggye Area

1970년대 | 39.2x26.6

1970년대 청계지역 상가별 사업장 현황판이다. 을지상가, 평화시장, 통일상가 등에 입점한 사업장의 상호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제품 종류, 근로자 수, 노사관계, 조합비 징수 등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청계지역 사업장을 파악하여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주휴제·야간 근무 단속에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illegible]

# 두신 작가 사립학교

교장: 이문

학번	이름	성명	생년월일	학급
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2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3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4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5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6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7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8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1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2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3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4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5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6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7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8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99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100	김영남	김영남	1980-01-01	1학년

순서	성명	소재지	점료 호수	비고	조사일자	조사인	조사결과
1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2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3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4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5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6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7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8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9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10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11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12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13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14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15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16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17	이정식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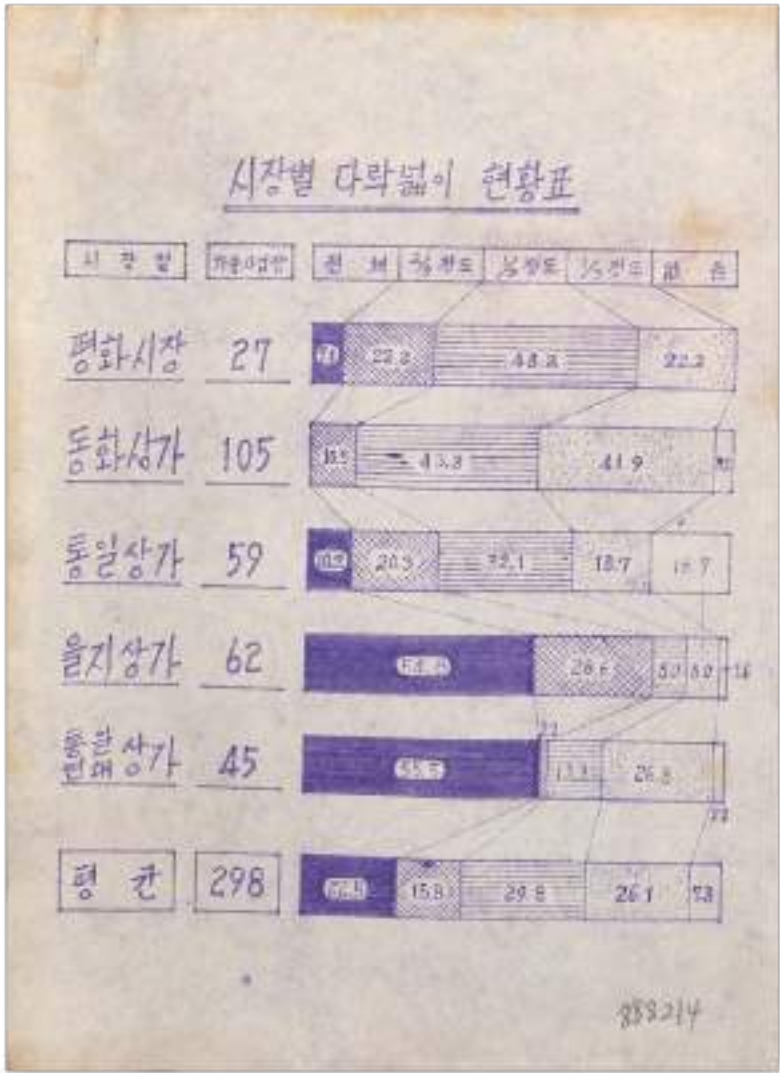
지상하 중 1973	연 일 사	단 정 조 바 기	가 로	3월 18일
지상하 중 1973	동 화 사	안 노 신 앞 바	동양생각 B-141로	
지상하 중 1973	문 화 생 리	인 수 중 바 지	포경사생물 가. 1602로	평화국 197년
지상하 중 1973	영 국 부 인 사	간 명 료 앞 바	동양생각 C-373	25. 3951
지상하 중 1973	남 성 사	구 자 화 안 노 복	동양생각 C-12자로	

시장별 다락 넓이 현황표

Table of Attic Measurements by Market

1970년대 | 26x184

평화시장, 동화상가, 통일상가, 을지상가, 통일연쇄상가에 대한 다락 넓이의 비율을 나타낸 현황표다.



사업장 실태조사 작성 보고

Report Based on the Survey of Workplaces

1972 | 20.3x26.8

1972년 6월 시장상가의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조합원 가입 업체 수, 조합원 수를 상세히 조사하여 작성한 사업장 현황표가 첨부되어 있다.

시장명	종업원수	근로자수	조합원가입업체수	조합원수	비고
평화시장	27	22.2	48.8	22.2	
동화상가	105	43.3	41.9		
통일상가	59	20.5	22.1	18.7	17.7
을지상가	62	58.2	28.6	50.8	14
통일연쇄상가	45	45.5	13.1	26.8	22
평균	298	15.8	29.8	26.1	53





단체협약서 1년간 위반 사항  
Annual Record of Violation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1972 | 27.4x20.5

1971년 4월 9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1년간 위반 사항을 집계하여 내부에 보고한 문서다. 단체협약한 내용에 반하여 연장근로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위반 내용을 조사하여 통계를 냈다.

단체협약서 1년간 위반 사항				
구분	종류	구분	구분	구분
주휴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주휴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주휴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주휴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단체협약서 1년간 위반 사항				
구분	종류	구분	구분	구분
주휴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주휴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주휴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주휴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단체협약서 1년간 위반 사항				
구분	종류	구분	구분	구분
주휴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주휴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주휴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주휴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단체협약서 1년간 위반 사항				
구분	종류	구분	구분	구분
주휴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6일	10월 17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3일	10월 24일	10월 25일
주휴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주휴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주휴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	12월 7일	12월 8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체불임금 문제로 조합원도 가입시켰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주휴일, 일요일에 일하는 문제. 그다음에 야간 근무 조사를 우리가 엄청나게 다녔어요. 사업장을 조사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딱 들어가면 “볼 내려. 누가 여기 일하라고 했소.” 그렇게 했어요.”

『2020 전태일노동구술기록 1』 중에서...

야간 작업장과 주휴제 위반업체 보고 문서  
Report on Businesses that Violated Rules  
on Weekly Holidays and Night Shifts

1972 | 26.8x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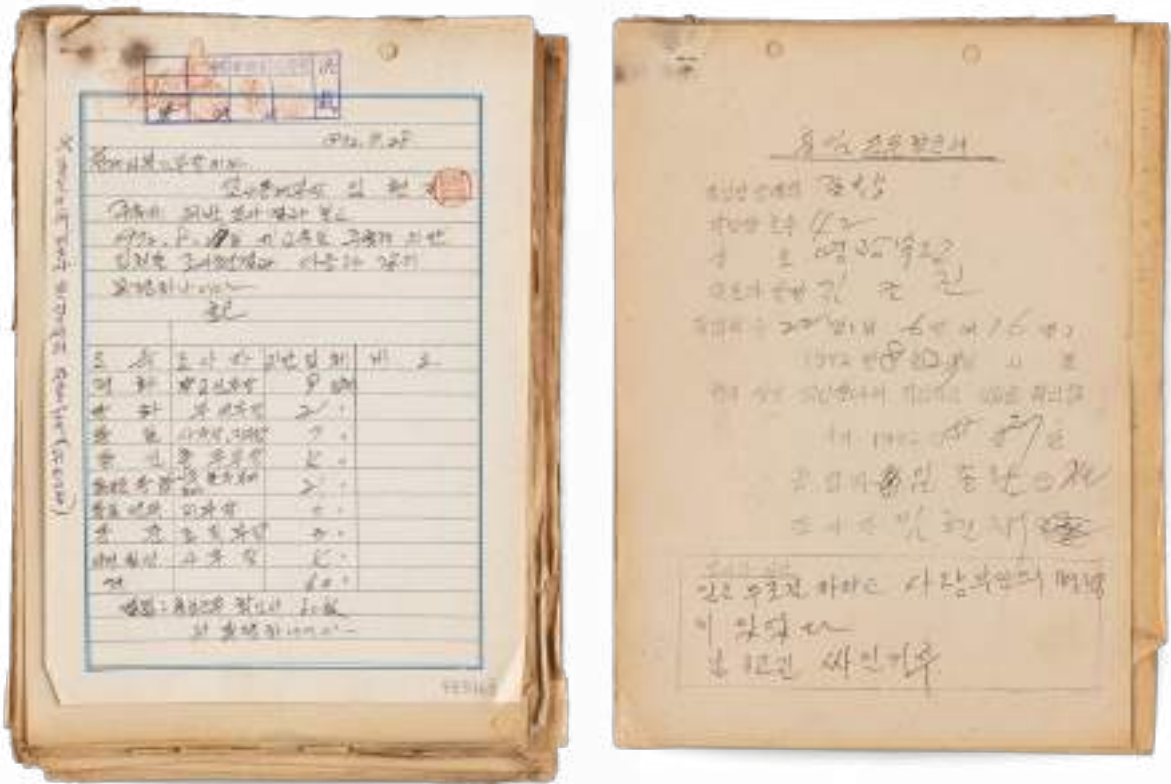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간 작업과 휴일에 근무하는 공장을 조사, 내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노조는 야간 작업과 일주일에 한번 쉬는 주휴제 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어길시 해당 사용자를 지부 사무실로 불러 가산 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노사협의로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했다.

주휴제 위반 조사 결과 보고 문서

Report on Violations Involving Weekly Holidays

1972 | 26.4x19

8월 27일 동화시장, 동문시장, 통일상가, 대명빌딩 등을 대상으로 주휴제 위반업체를 조사하고, 휴일 근무 확인서를 첨부한 내부 보고 문서다. 확인서에는 작업장 정보와 작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응답자와 조사자의 서명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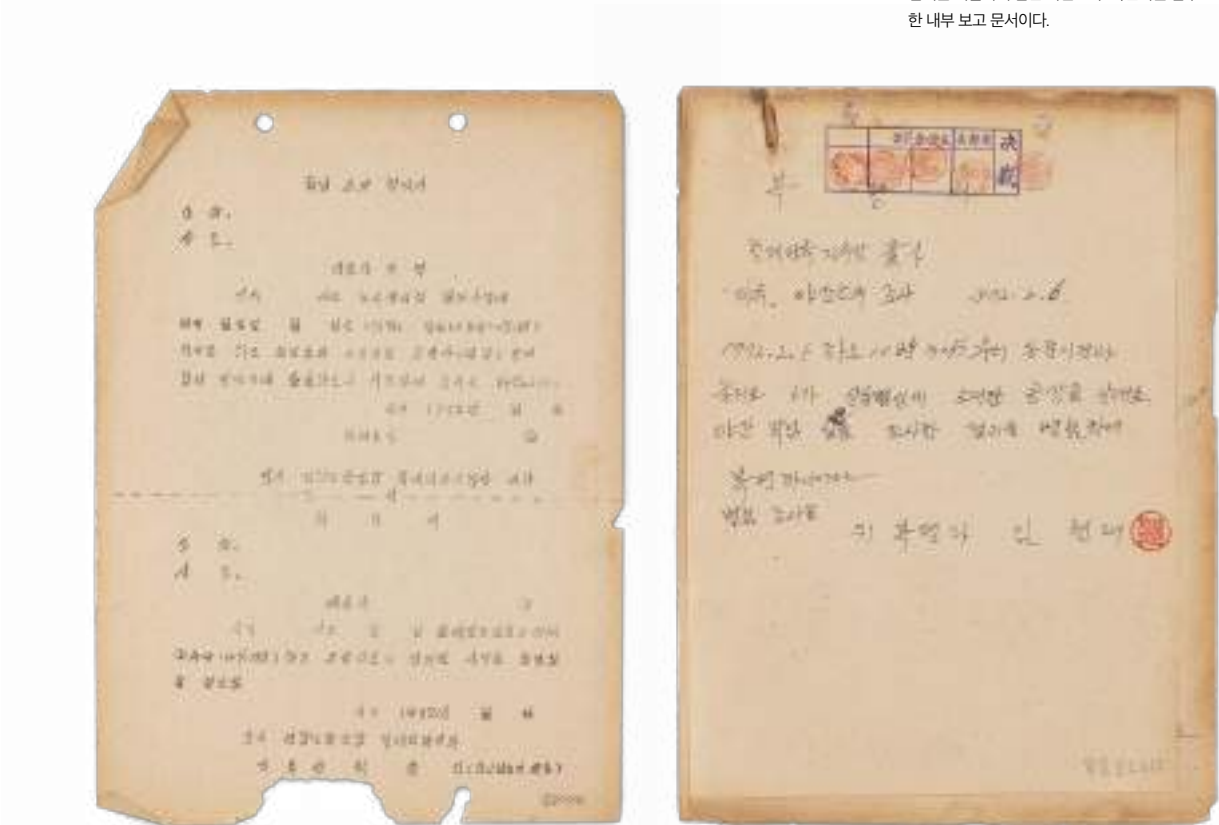


야간 근무 조사 보고 문서

Report on Survey of Night Work

1972 | 26.8x19.8

2월 5일 동문시장과 을지로 6가 성동빌딩 소재 공장에서 오후 10시 이후까지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적발하여 받은 야간 근무 확인서를 첨부한 내부 보고 문서이다.



휴일 근무 합의서

Agreement on Working on Holidays

1970년대 | 25.9x18.3

사업장의 작업 상황에 따라 휴일인 일요일에 수당 100% 지급하고 휴일 근무할 것을 근로자 간에 합의 후 작성하는 휴일 근무 합의서다. 일요일 근무가 필요할 시, 미리 휴일 근무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조에 제출했다.



# 1-2

##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킨 초기 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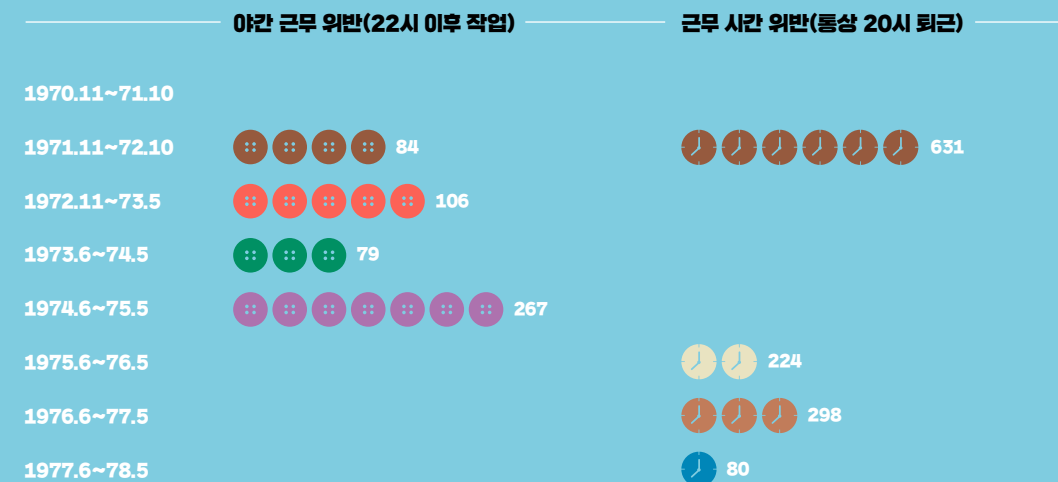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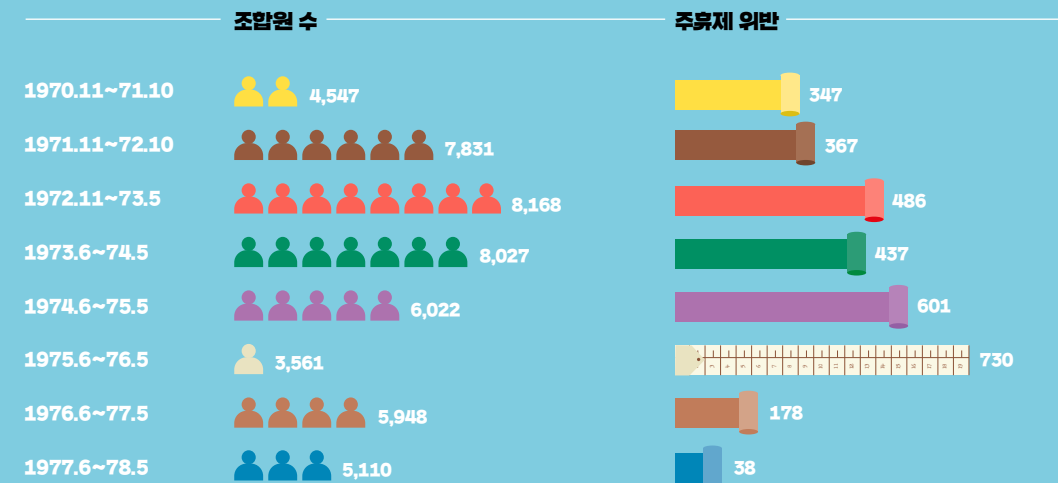
초창기 청계피복노조는 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 단속, 체불 임금·퇴직금과 부당 해고 해결 등의 노동 조건 개선 활동을 펼쳤다. 노동 환경을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사업주와 노동 조건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사업주와 조합원에게 반복해서 노사협약과 단체협약된 내용을 알리고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정책적 활동도 병행했다. 나아가 노조는 교양·직무 교육과 노동 운동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병원과 후생식당의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했다.



## The Union Changed the Workers'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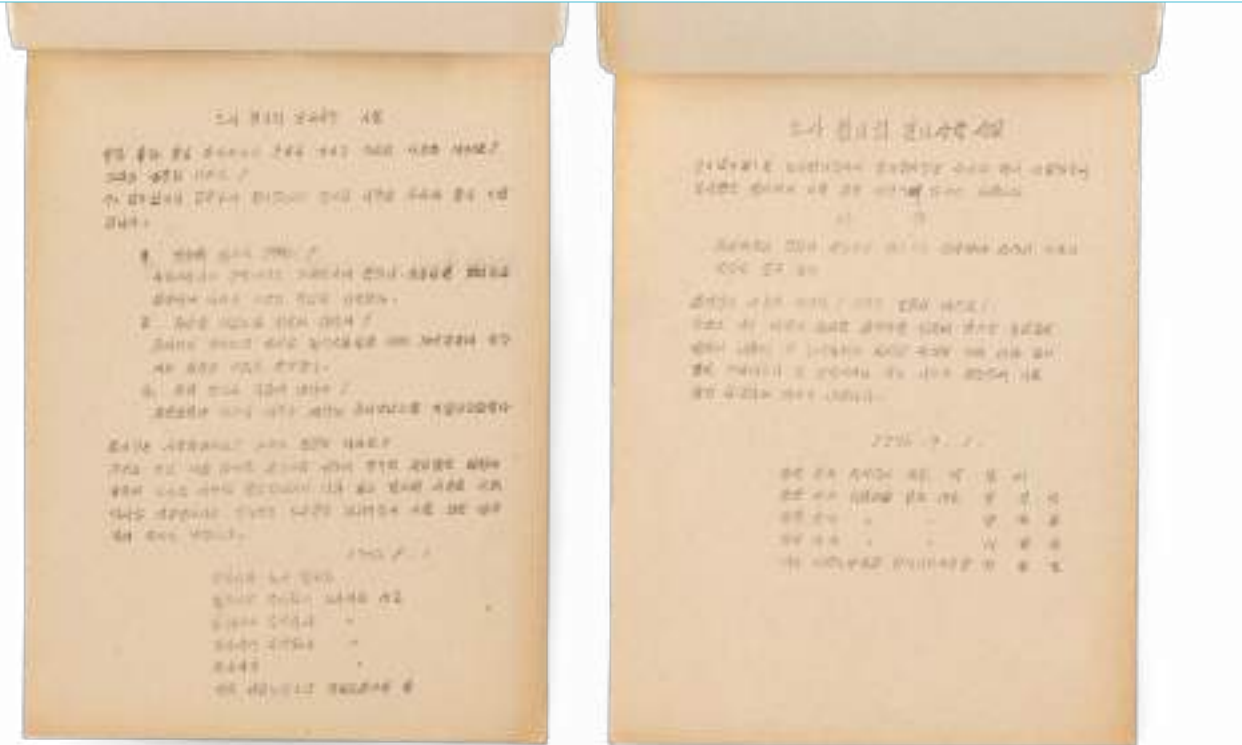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sought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by identifying violations involving holidays and night shifts as well as resolving arrears, unpaid severance pay, or unfair dismissals. It conducted surveys on working conditions and used the results to propose ways to improve such conditions during its discussions with factory owners. The Union kept reminding its members and factory owners about the collective agreement that had been concluded and notified them of any violations. When violations went unaddressed, the Union submitted petitions to the Labor Administration and simultaneously engaged in policy activities. The Union also organized programs to raise awareness about labor movements and provide general education and job-related training. It even proposed for the government to open a clinic and cafeteria to improve the workers' quality of life.

## 청계피복노조가 일으킨 변화



출처 :  
정기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제1차~제8차)

- 1974년에는 주휴제·야간 근무 실태조사 횟수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
- 1976년 5월 조합원 총점검을 실시하여 전출·탈퇴자 정리
- 1976년 말 4개 시장 제외 상가와 단체협약에서 유니언 슝조합 자동가입제도 통과로 인원 증가



노사협의회 결의 사항 전달을 위한 보고서

Report on Resolutions Between the Union and Factory Owners

1972 | 26.7x19

청계피복지부와 5개 시장 노사위원 대표가 노사협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사용주와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해 프린트해서 배부하겠다는 내부 보고 문서이다. 별첨된 유인물에는 주휴제 실시, 체불 임금 지급, 추석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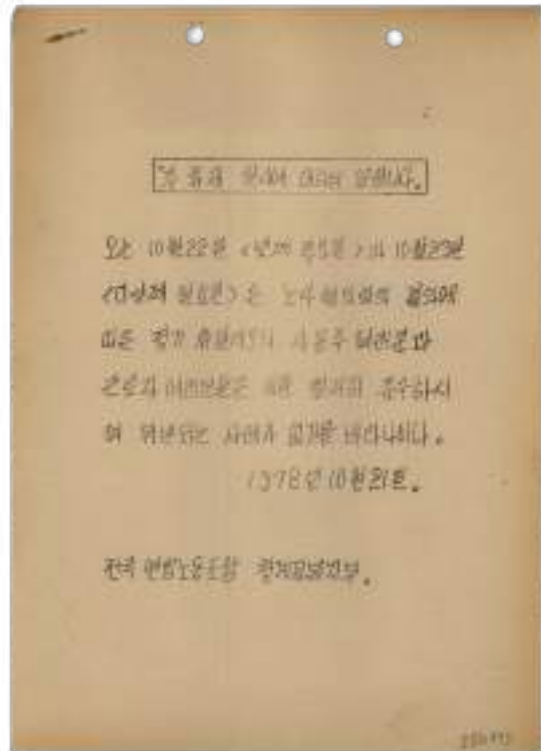


주휴제 실시를 알리는 유인물

Leaflet Informing the Adoption of Weekly Holidays

1972 | 26.7x19

주휴제를 알리는 공고문을 각 게시판에 붙이기 위해 작성한 내부 보고 문서로, 10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한 달에 2번있는 정기 휴일을 알리는 공고문이 첨부되어 있다.



시장상가 노동자 건강검진 협조 요청 문서

Request for Cooperation on Medical Checkups for Market Workers

1971 | 문서 25.8x17.7 | 진찰권 6x8.9

시장상가 근로자 복지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노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다. 시장별 검사 계획일과 무료 진찰권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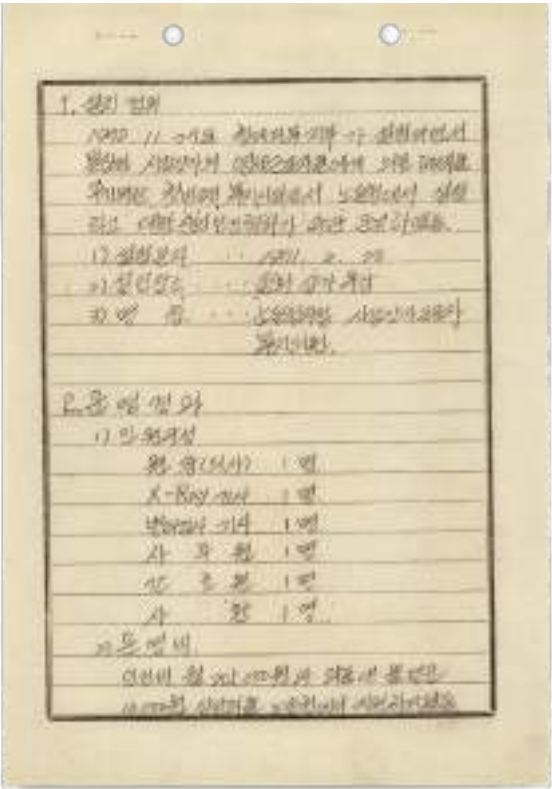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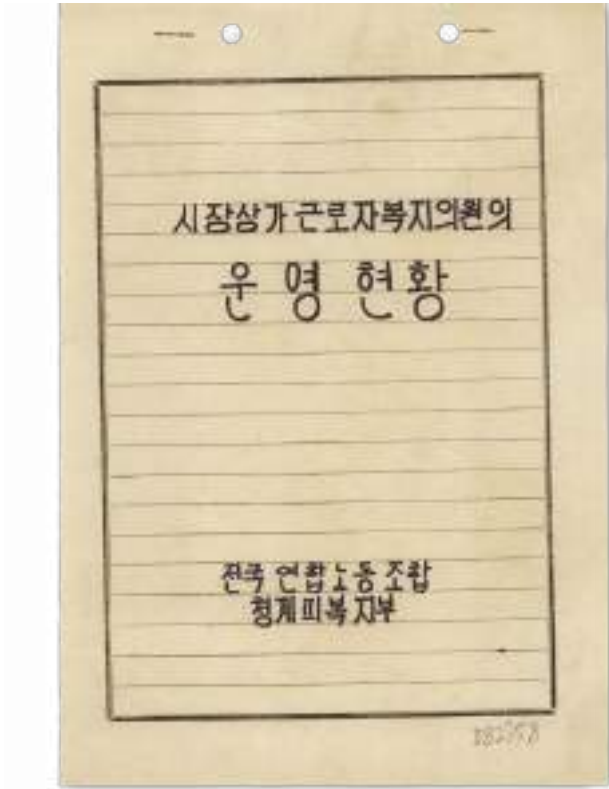


시장상가 복지의원 운영 현황

Operation Status of the Welfare Clinic for Market Workers

1970년대 | 25.4x17.8

노조가 특별의료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정 부당국에 강력 건의하고 교섭을 진행한 결과, 1971년 2월 20일 시장상가 근로자 복지의원 이 설립됐다. 노동청에서 설립하고 대한산업보 건협회가 주관 운영한 복지의원은 동화상가 옥 상에 위치했다. 이 문서에는 설치 경위, 인원 구 성, 운영비, 시설, 실적과 74년 폐쇄 이후 아프리 AAFU의 지원으로 재운영된 상황이 상세히 기재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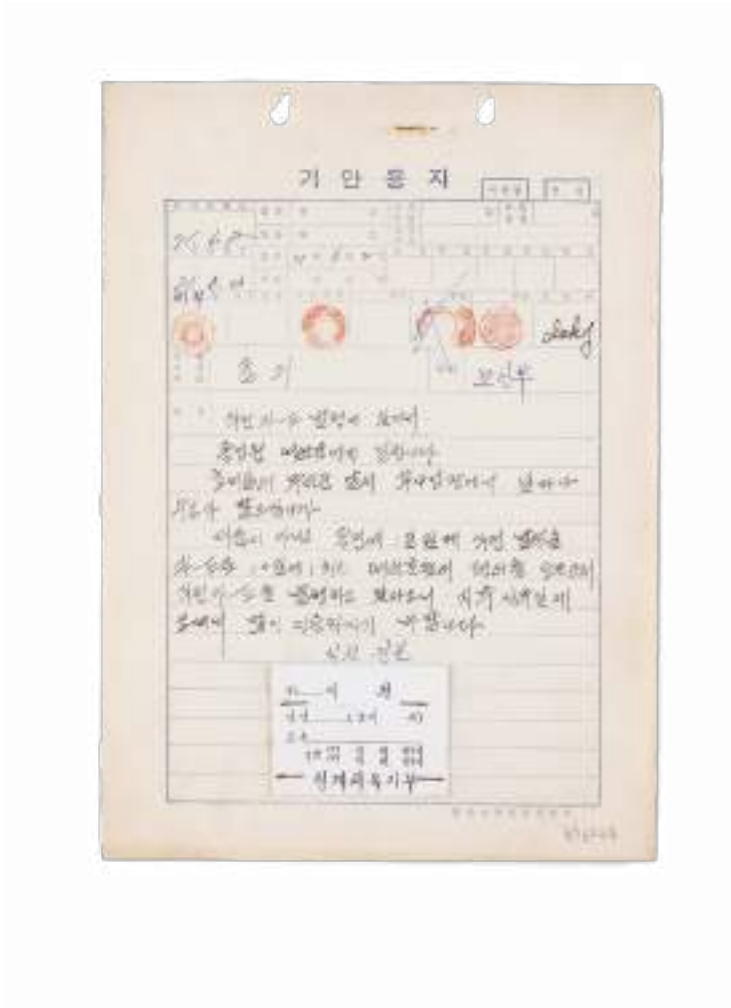


후생식당 식권 발행을 알리기 위한  
기안문서

Draft Document to Publicize the  
Issuance of Meal Vouchers

1971 | 26.5x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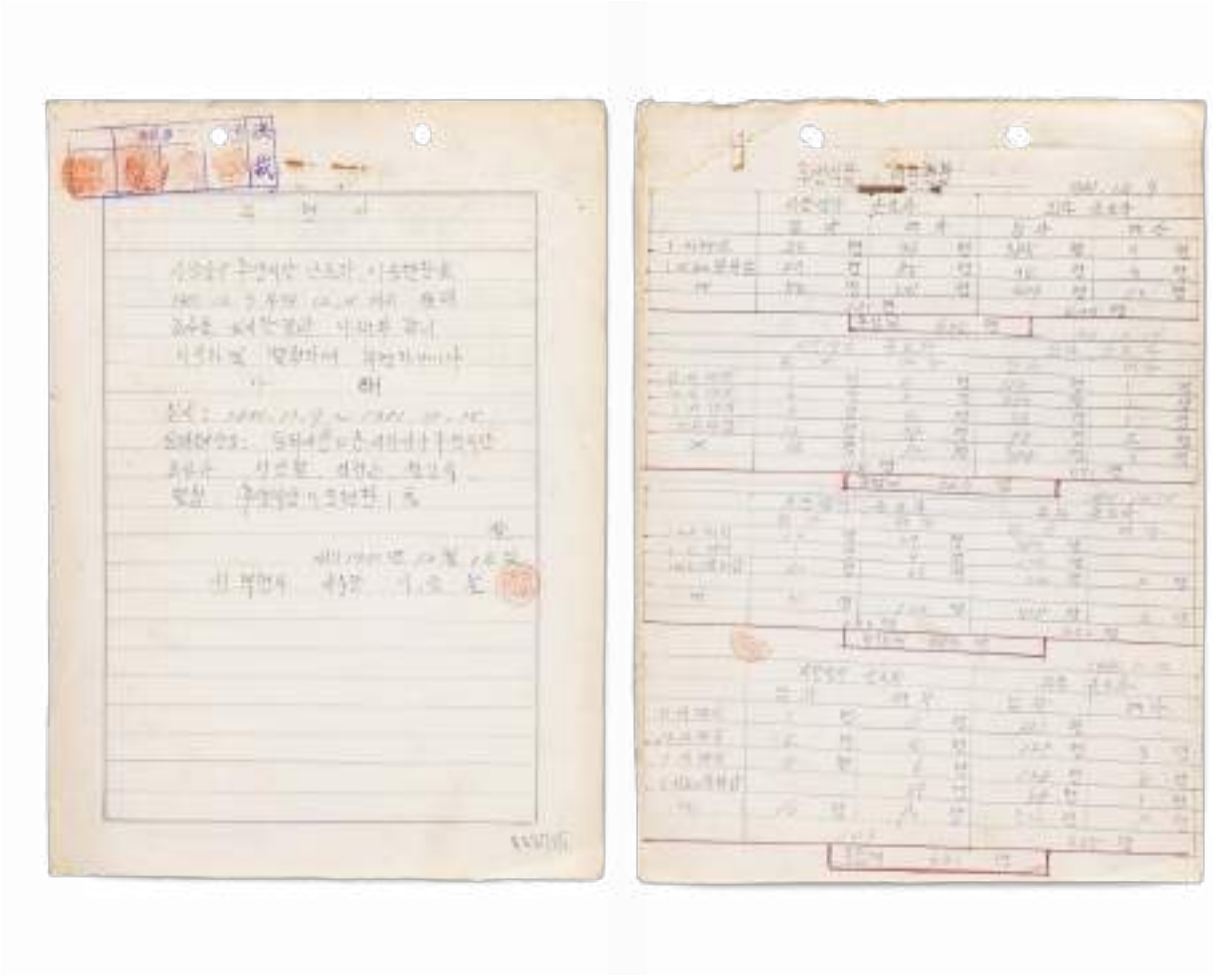
후생식당 이용에 필요한 식권을 제작하여 배포  
하기 전 작성한 기안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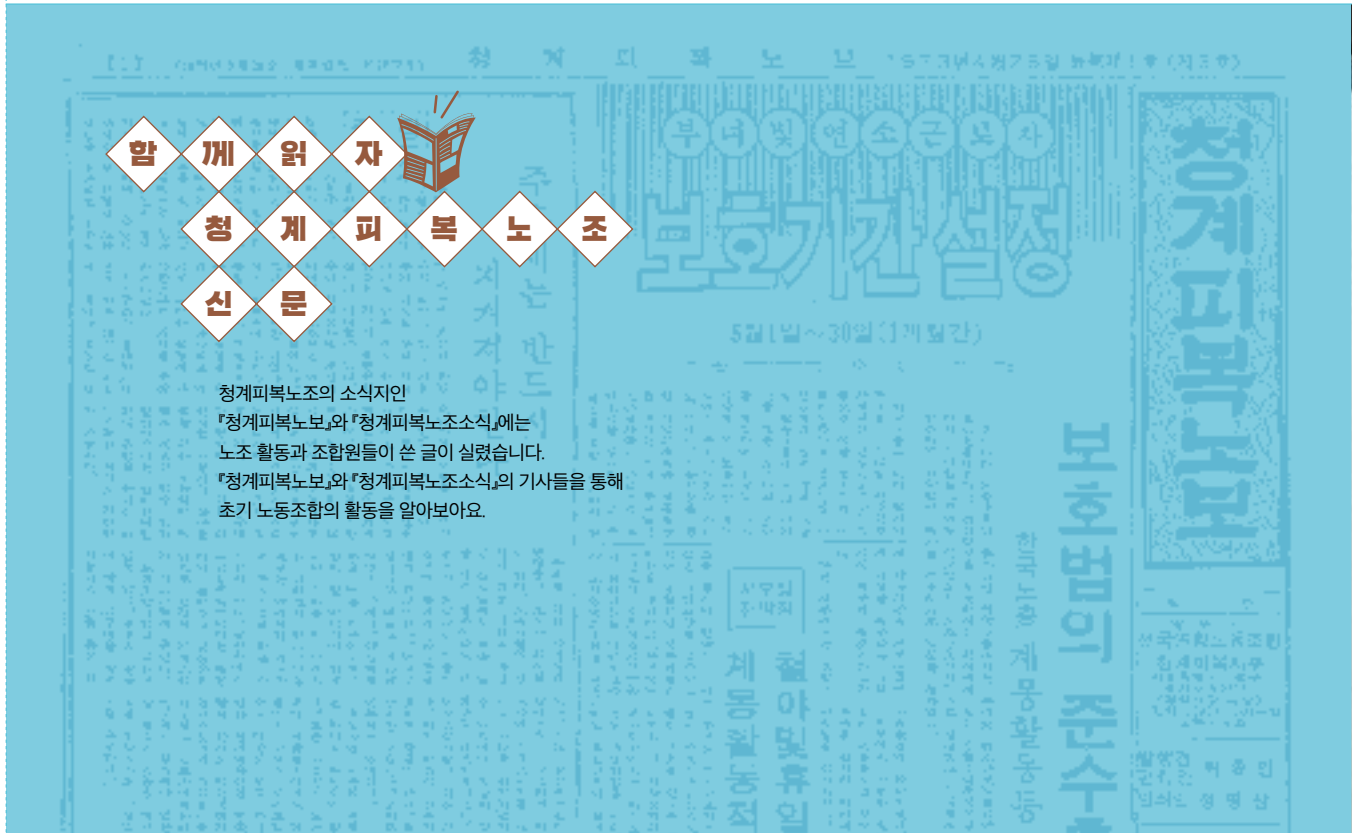


후생식당 이용 현황 조사 결과 보고  
Report on the Cafeteria's Utilization

1971 | 25.9x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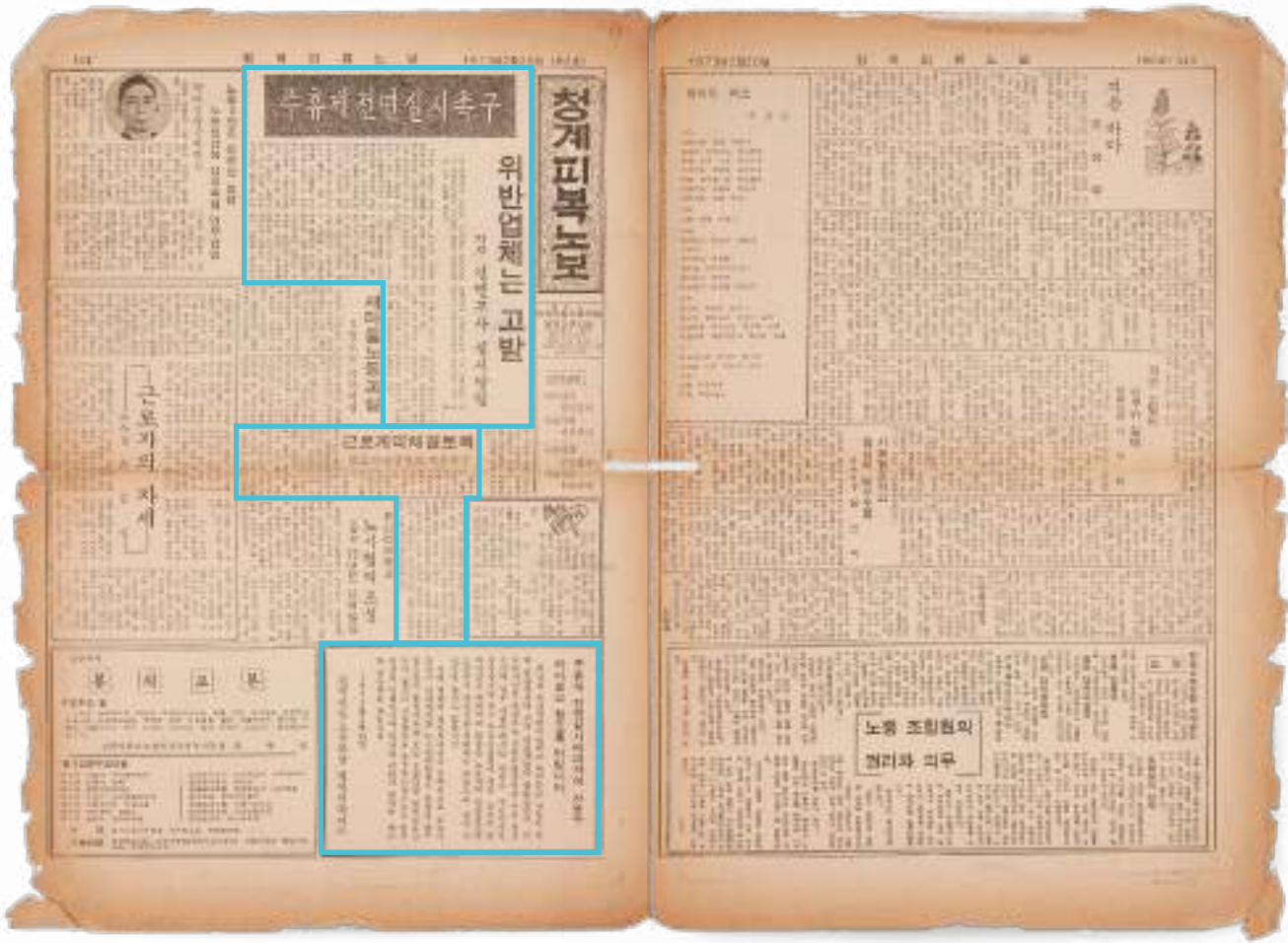
시장상가 후생식당의 이용 현황을 71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후 내부 보고한 문서  
이다. 첨부 문서에는 시장상가와 외부 노동자의  
시간별 식당 이용 인원 수가 집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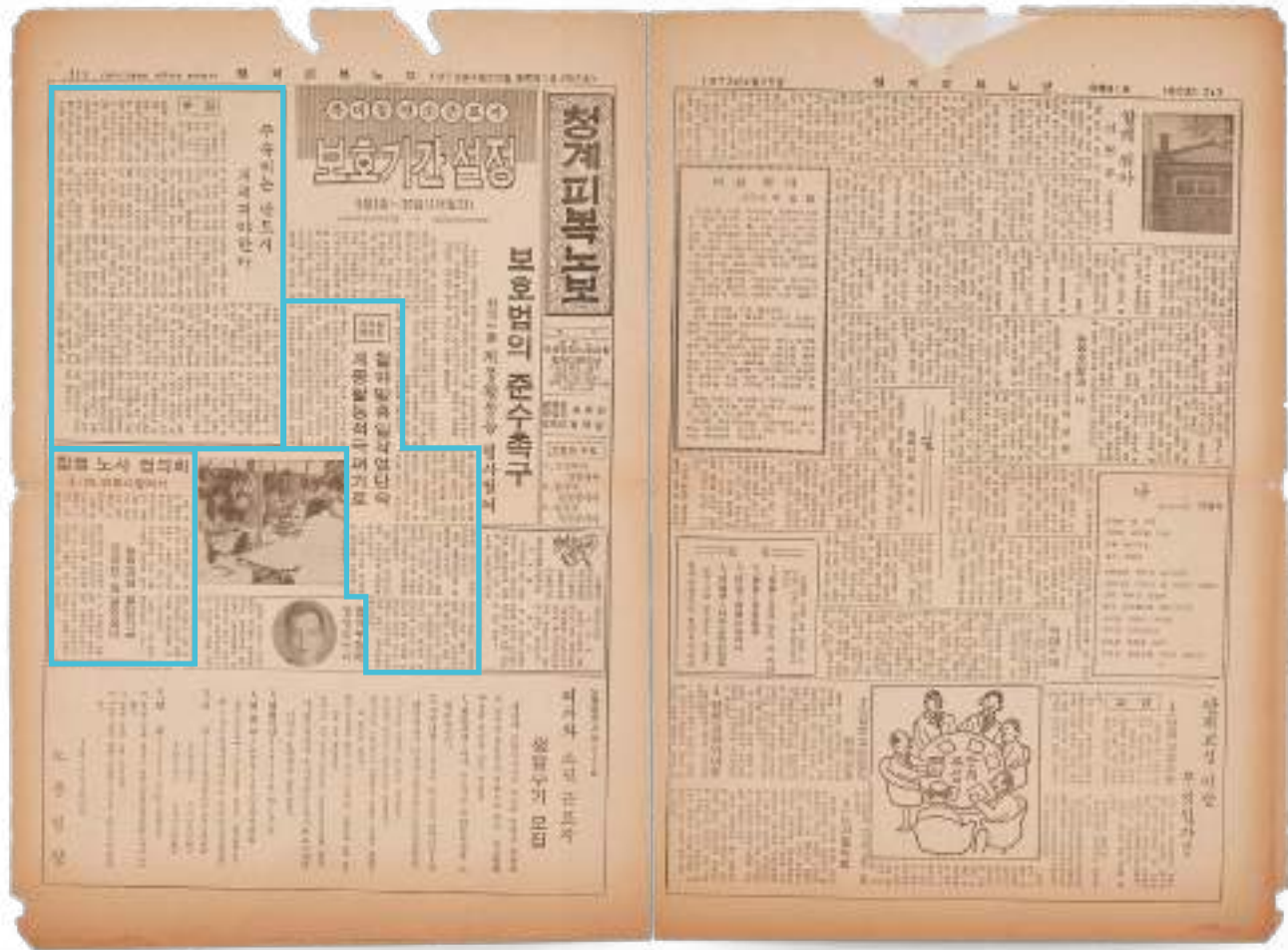


《청계피복노보》  
1973년 2월 20일  
<Cheonggye Clothing  
Novo> February 20,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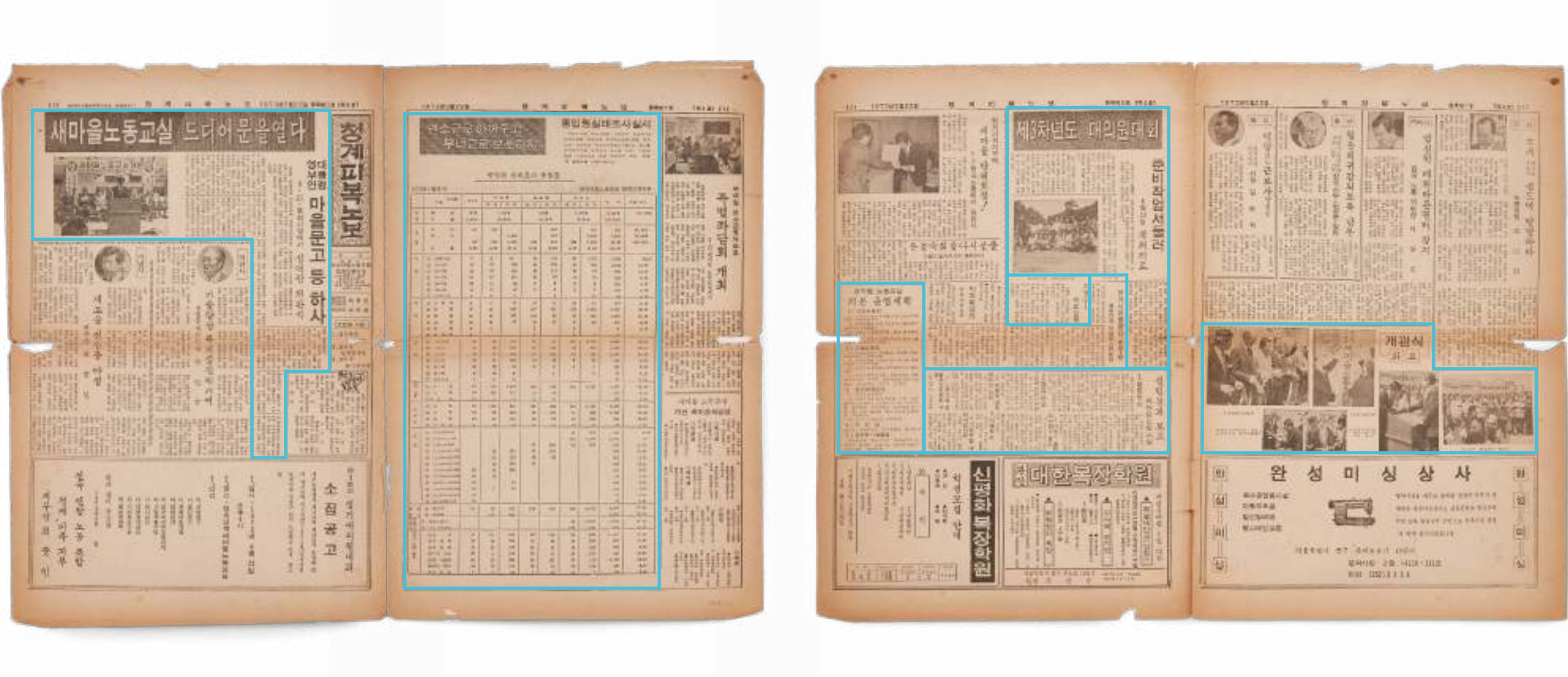




《청계피복노보》  
1973년 4월 25일  
<Cheonggye Clothing  
Novo> April 25, 1973



《청계피복노보》  
1973년 5월 25일  
<Cheonggye Clothing  
Novo> May 25, 1973





《창계피복노동소식》  
1974년 1월 30일  
<Cheonggye Clothing Union  
News> January 30,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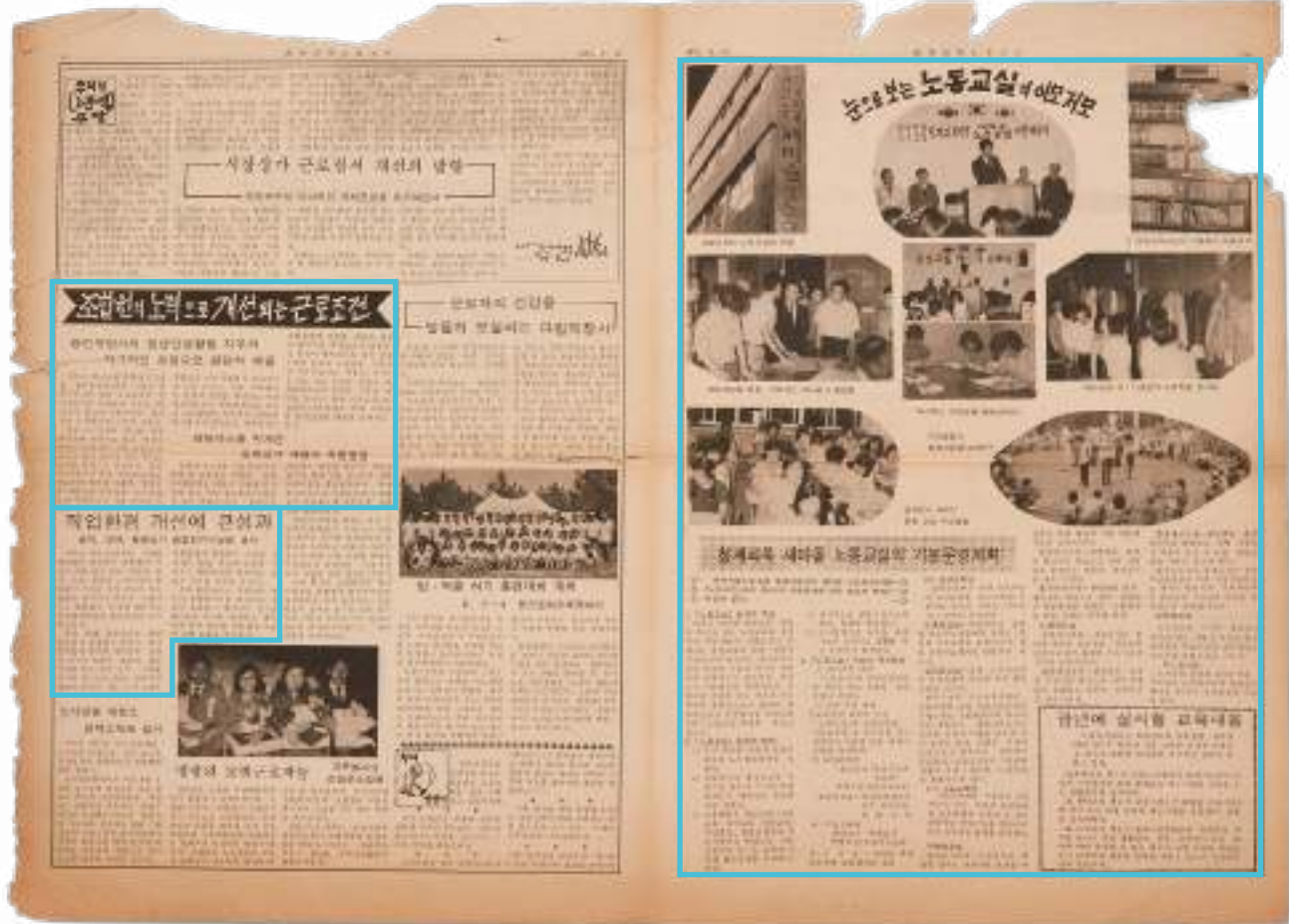




《창계피복노조소식》  
1975년 1월 25일  
<Cheonggye Clothing  
Novo>January 25, 1975



《청계피복노동소식》  
1975년 9월 15일  
<Cheonggye Clothing  
Union News>  
September 15, 1975





## 살아가기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1970년대 초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물가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상가 노동자들의 임금은 같은 시기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미싱사에게 임금을 받는 견습공<sup>사</sup>이나 능률급 미싱사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청계파복노조는 주휴제·심야작업 금지 단속도 계속 진행했지만, 임금제도의 개선과 최저생계비 확보를 1974년도 중점 활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동 환경 개선 활동에서 나아가 노동자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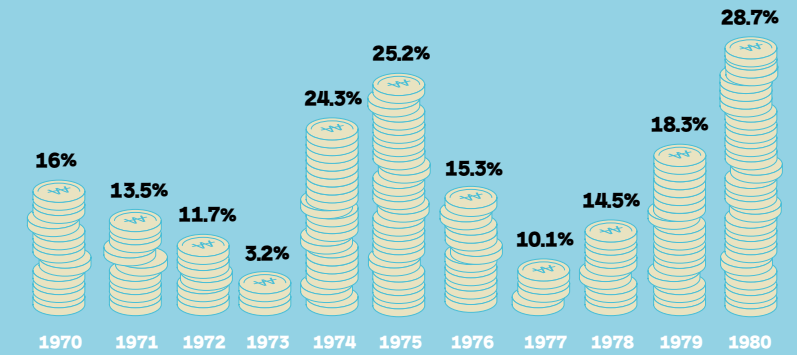
# 2.

## The Union Spoke Up for Survival

While the Korean economy experienced rapid growth in the early 1970s, workers' wages remained unchanged despite the jump in prices. Market workers were paid far less than workers in other industries. And the situation was even worse for sewing machine operators paid by their performance and their apprentices who received wages from the operators they assisted. In 1974,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went beyond its initial commitment to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decided to speak up for the survival of garment workers. Apart from looking out for violations related to weekly holidays and night shifts, the Union also engaged in activities aimed at improving the wage system so that garment workers would be able to afford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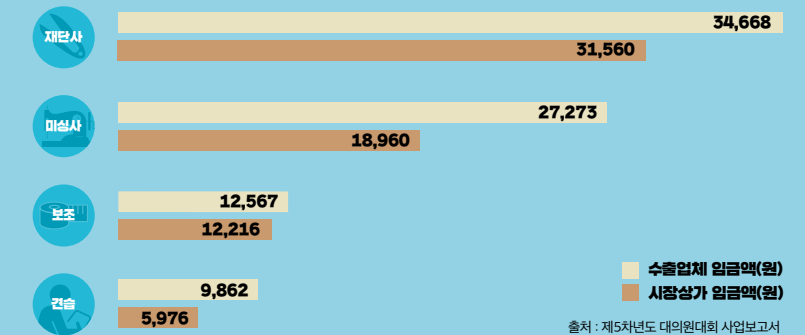
### 1970년대 소비자물가 등락률

출처 : 통계청



### 수출업체와의 비교 임금 실태 (1975.3)

전국 230개 수출·보세업체 대상,  
8시간 기준



1970년대 초중반, 제1차 석유파동과 함께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자 노동자들은 기존 임금으로 생활하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물가와 임금을 살펴보세요.

### 1975년 물가



출처 : (사)한국물가정보, 제5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통계청, 한국은행



# 2-1

##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1974년 1월 31일 청계피복노조는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초의 임금협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종별 임금 현황을 파악했다. 의류 수출업체 임금도 조사한 결과, 시장상가 노동자의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조는 임금인상을 위해 74~5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전 사업장 현황 및 직종별 임금 실태를 조사했다.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는 이 조사를 토대로 75년 5월 45% 임금 인상안을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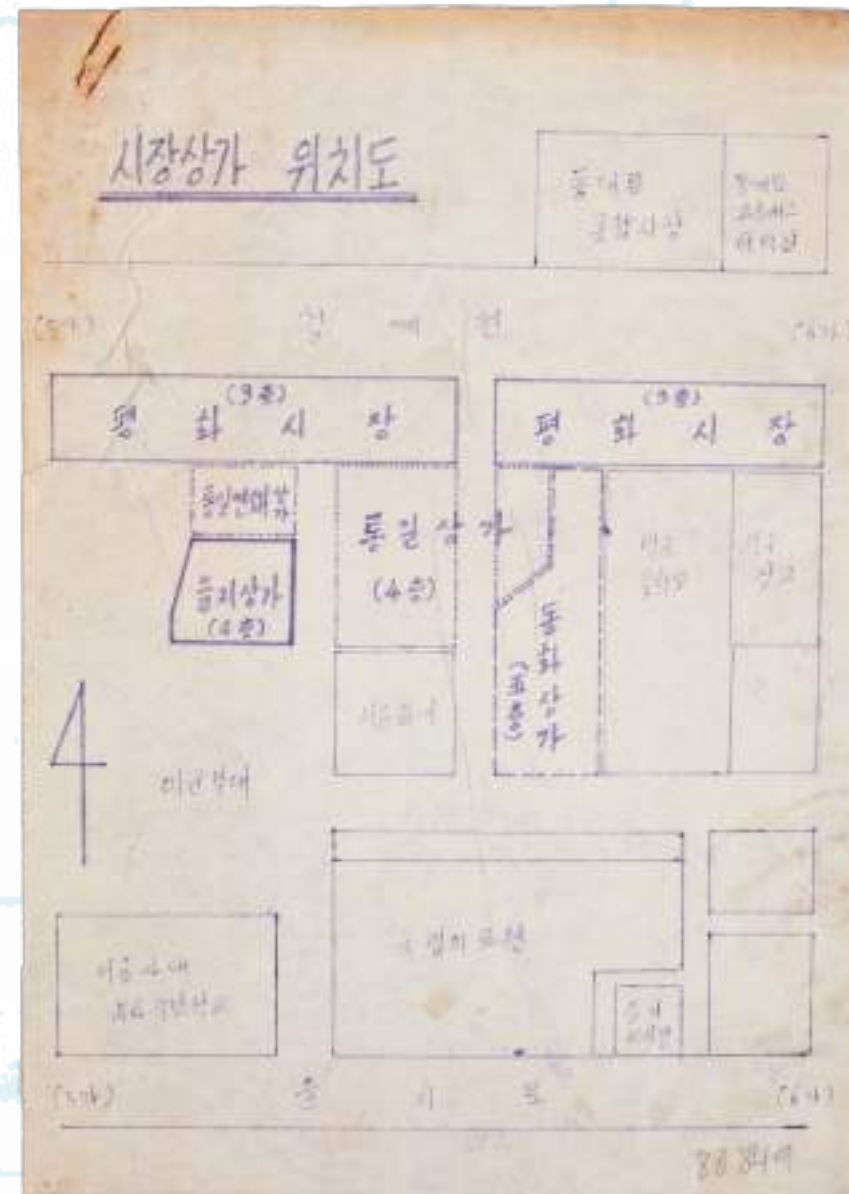
## Surveys to Improve Wages

On January 31, 1974,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launched a task force for wage improvement and decided to conduct a survey ahead of its first wage negotiation. 146 businesses were surveyed to determine the wage of each occup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market workers were being paid less than their counterparts working for garment exporters. The Union thus expanded its survey to all businesses in the industry between 1974 and 1975. Based on the expanded survey's results, the Union decided to propose a 45 percent wage increase in May 1975.

### 시장상가 위치도 Market Layout

1970년대 | 26x18.4

청계천 주변의 평화시장, 통일상가, 통일연쇄상가, 을지상가, 동화상가 등의 위치를 표시한 약도다. 청계피복노조는 이 상가들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협상안을 만들어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또한 주휴제, 야간근무 단속도 함께 이루어져 청계천 인근 시장상가 노동 환경이 변화되었다.



임금 실태조사(개인표)  
Survey of Wages  
(Individual Questionnaire)

1970년대 | 27x19.8

청계피복노조에서 작성한 한일사 노동자들의 임금실태조사서다. 사업장 정보, 노동자 기초 조 사, 노동 시간, 임금 등을 조사했으며 특이점으 로 생활 의식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 의식주 같 은 기본적인 상황 외에도 복지후생시설, 문화교 양, 오락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이 점으로 보아 노조가 노동환경 외에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해 서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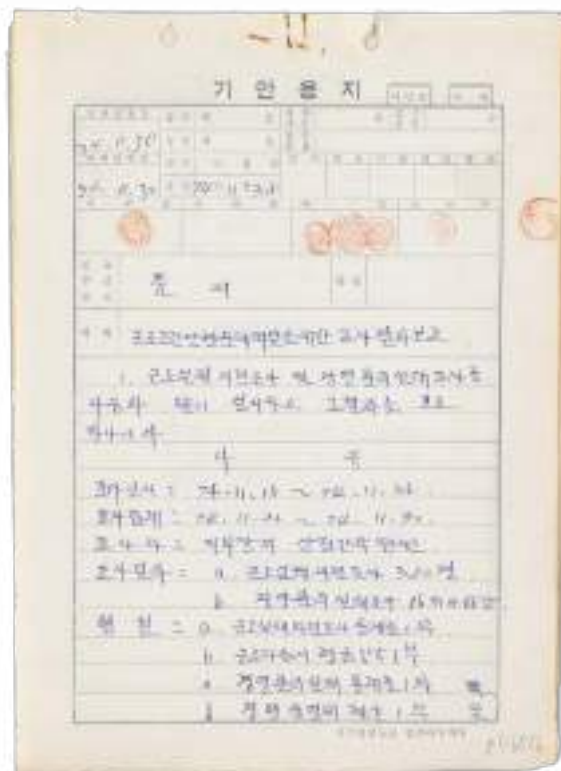


직종별 임금 실태 상황

표 1 직종별 임금 실태 상황									
직종	인원	최저	최고	평균	중간	최저	최고	평균	중간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기초	1,234	1,200	2,500	1,800	1,500	1,200	2,500	1,800	1,500

출처 : 제5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 근로조건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

## Report on the Survey to Resolve Working Condition Issues

1974 | 18.9x47

청계피복노조가 간부들이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근로실태 의견 및 경영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내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380명의 노동 실태와 16개 사업장의 경영 관리 실태 통계를 작성, 노동자의 임금과 경영운영비 평균을 집계하여 첨부했다.

[illegible]

The image shows a historical Korean labor ledger (Gnosoil-tonggyeop) from 1925. The ledger is a long, narrow table with multiple columns and rows, containing handwritten entries in Korean and numbers. Several vertical columns are highlighted with blue boxes, showing numerical data. The paper is aged and yellowed, with some visible stains and wear.

The ledger is organized into several vertical sections. The first section on the left contains columns for dates and other administrative information. The main body of the ledger consists of numerous columns for recording labor data, including names, work hours, and wages. The highlighted columns show numerical data, likely representing wages or work hours.

The ledger is written in Korean, with some numbers and symbols. The handwriting is in a traditional Korean script (Hangeul). The paper is aged and yellowed, with some visible stains and wear.

The ledger is a historical document that provides a detailed record of labor and wages for a specific period. It is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for researchers studying the labor market and social conditions in Korea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근로실태 통계표를 살펴보면 16~25세의 여성 노동자가 많았다. 평균 12~14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매우 쉬고 싶어했다. 임금은 기본급에 능률급이 더해지는 형태를 선호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었으며 휴일 실시, 임금 인상 이 뒤를 이었다. 하루한 번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삶의 질의 향상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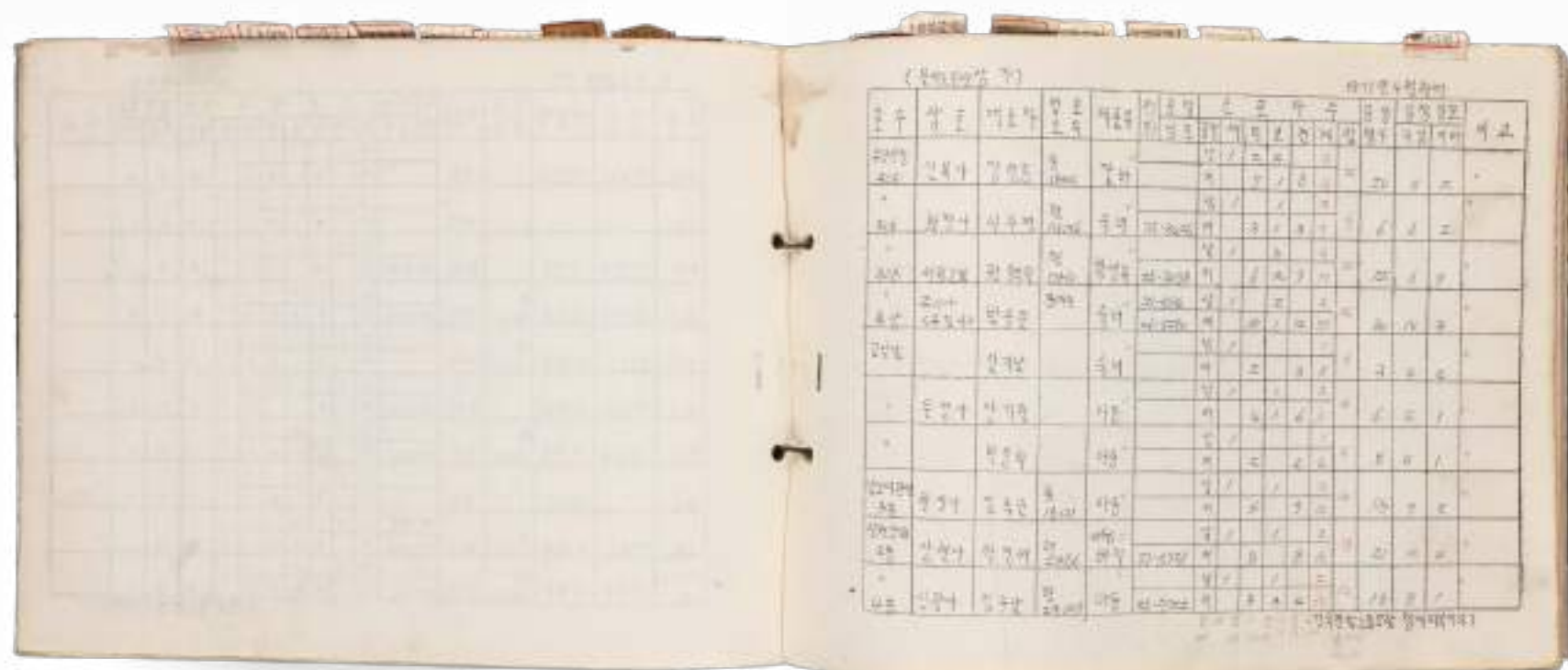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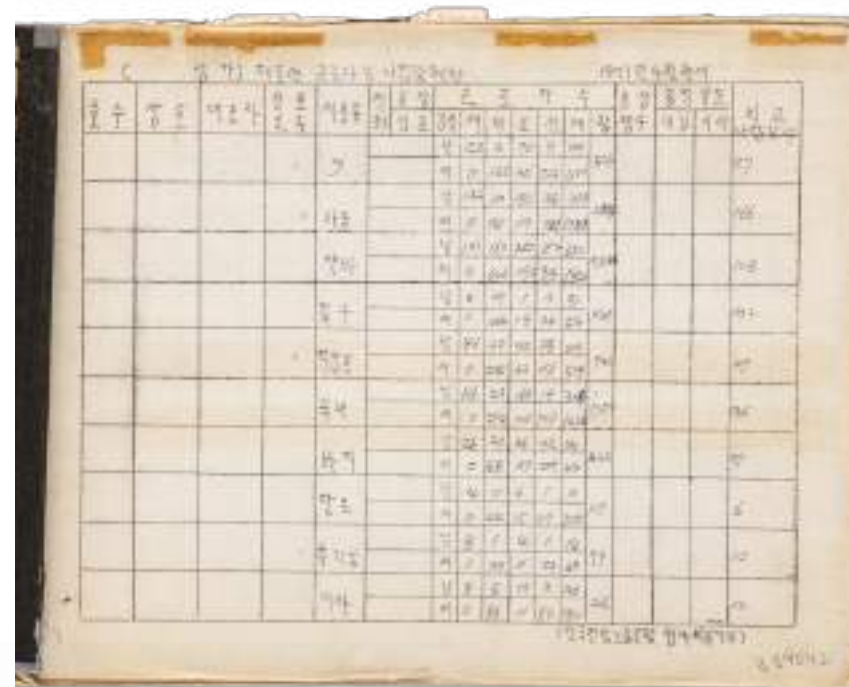


### 사업장 실태 현황

## Status of Workplaces

1977 | 20.2x27.3

시장상가 사업장 실태 현황을 조사한 장부로 상호, 대표자, 제품명, 근로자 수, 공장 규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동대문상가, 동신상가, 동화상가, 부관상가, 성동빌딩, 연쇄상가, 을지로주변, 을지상가, 을호빌딩, 종합시장, 창신동주변, 통일상가 등 체계전 부근 피복류 제품 사업장들의 실태를 방대하게 조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Report on the Survey of Wages

1975 | 26.7x21.5

청계피복노조가 1974년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년 뒤에 실시한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협상을 위해 75년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지부 산하 292개 사업장을 조사했다. 직종별(재단사, 미싱사, 보조, 견습공 등) 임금 실태와 제품별 임금 단가, 인상 요구액 등이 조사되어 있다. 특이점으로 미싱사가 견습공의 임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40.8%인데 품목별로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점퍼 96.6%, 숙녀복 4.7%, 아동 5.9%, 와이셔츠는 66.7% 등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76년에 점퍼공장 미싱사들이 견습공 임금을 사용주가 지급하도록 투쟁한 이유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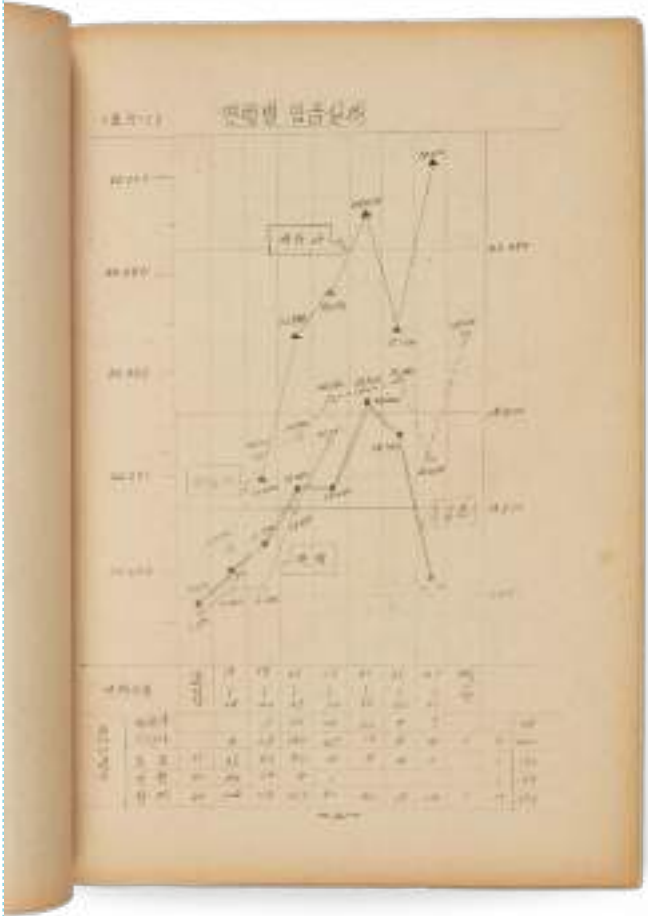
청계피복 노동조합 임금실태조사표											
직종	제품명			단가			임금			비고	
	종류	수량	단가	종류	수량	단가	종류	수량	단가	비고	비고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보조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견습공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재단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미싱사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점퍼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숙녀복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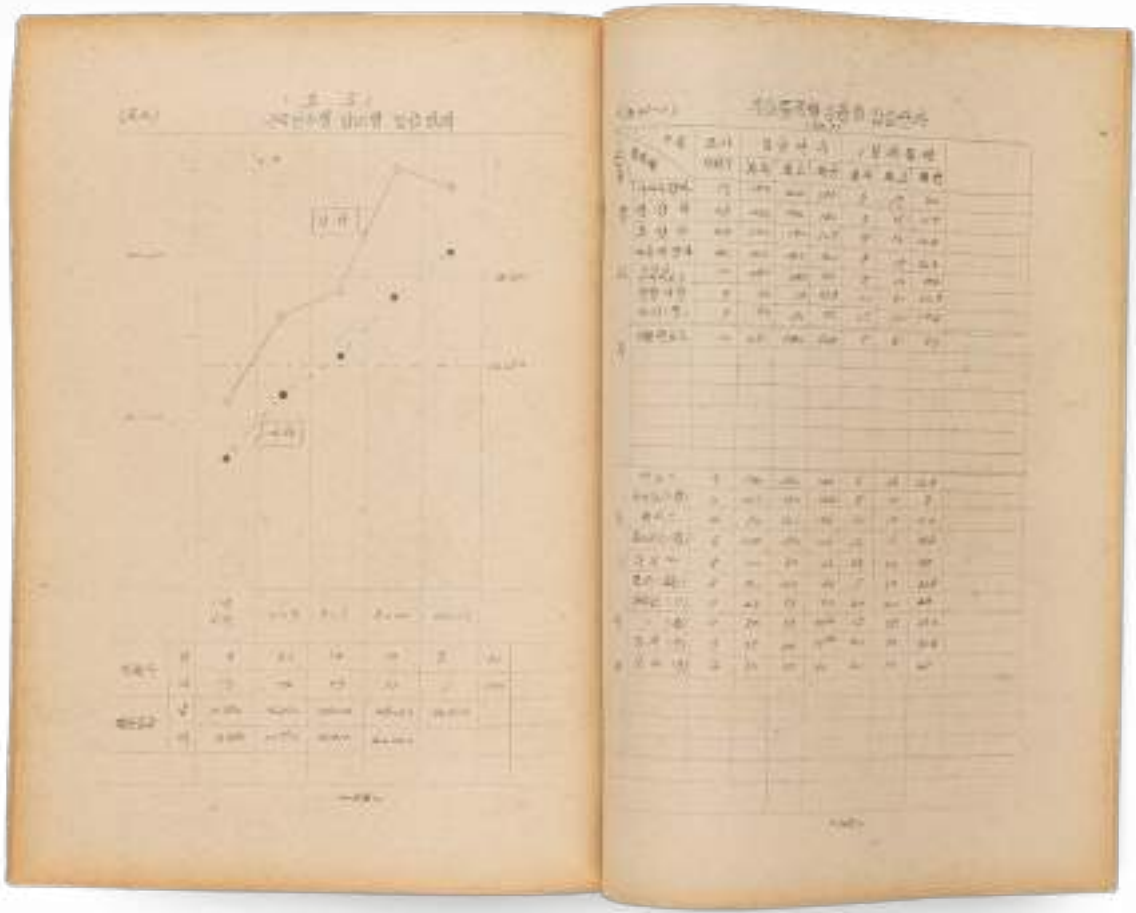
시장상가 피복 제품 업계 근로자의  
임금실태 조사결과  
Results from the Survey of Market Workers'  
Wages in the Garment Industry

1974 | 26x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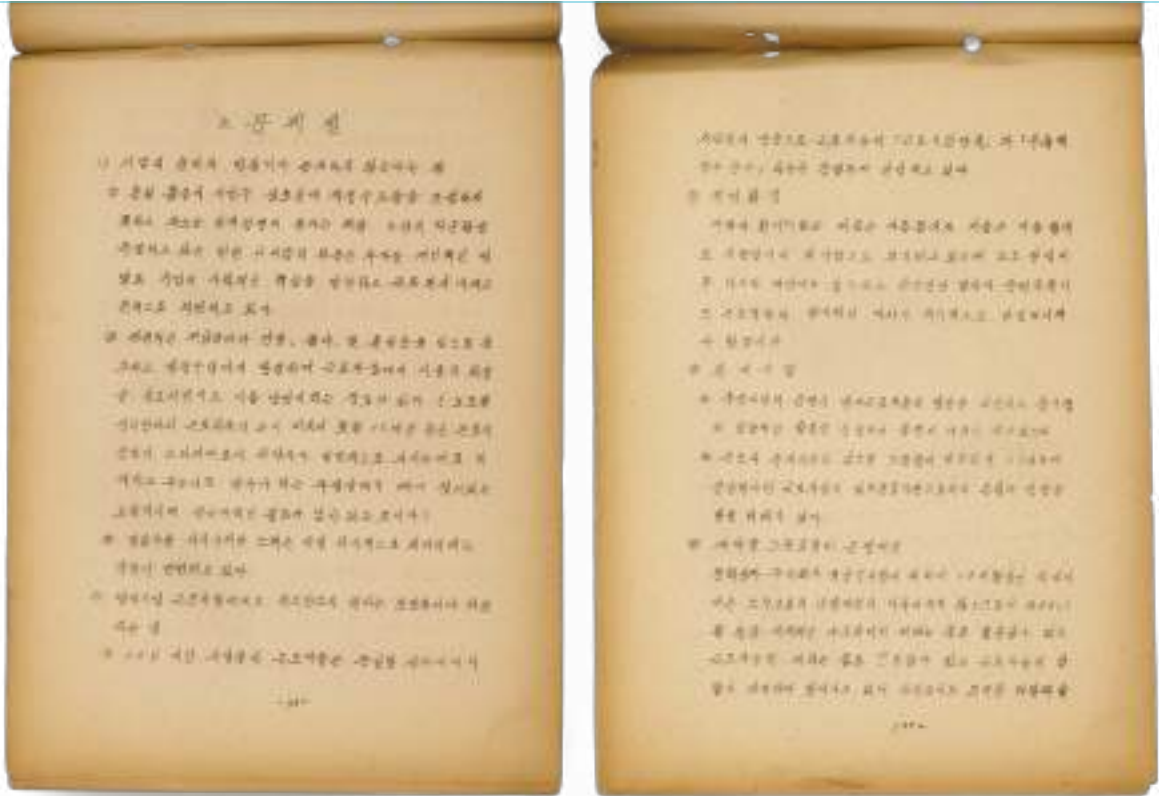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 발족 이후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최초로 실시한 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임금 수준 파악에 그친 기존 조사에서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 조정 시도를 위해 청계천 일대 피복류 제품 업체 노동자 694명을 표본 조사했다. 조사는 기초 조사, 임금 결정 요인, 임금 산정의 기준, 임금 형태, 생활 의식 현황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근거로 현황을 정리한 표를 첨부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 대책을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눠서 정리했다.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최저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장기적으로 생계비 확보와 임금 격차의 평준화, 임금 제도 개선대책 위원회의 전문화와 기능 강화, 재단사와 미싱사의 기능 검정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연령별, 직능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임금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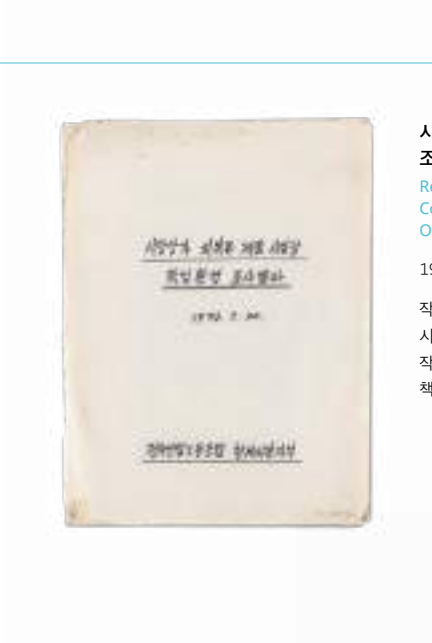
청계시장상가의 노동문제 실태와 문제점

The Reality of Labor Issues at Markets in the Cheonggye Area

1974 | 26.7x19

노조는 시장상가의 노동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 584개 사업장 중에 564개를 조사했다. 철저한 실태 분석을 위해 노동자 구성 현황과 작업형태, 임금(직급별 임금 수준과 인상을 포함), 근로시간, 휴일, 작업환경, 복지 등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파악했다. 또한 지부의 활동을 서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웠다. 조사 결과 견습공 임금은 73년 6,000원에서 일년 뒤 7,000원으로 조정됐고, 임금 지급자는 사업주 45.7%, 미상사 37.9%였다. 노동자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2.5시간이었다.

노조가 분석한 문제점으로 1. 저임금에 연장, 철야 및 휴일 근무 등을 강요하고 법정수당 미지급,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16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피해가 큼, 3.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 필요(임금, 근로시간 및 휴일, 작업환경 등)가 있었다. 기본적인 대책 방안으로는 1. 균일한 법률 적용 대책 강구, 2. 동일 품종별 영세기업을 주조기업단위로 합병 개편, 3. 건전한 노사관 확립, 4. 능률급 임금제도와 견습공의 최저임금 개선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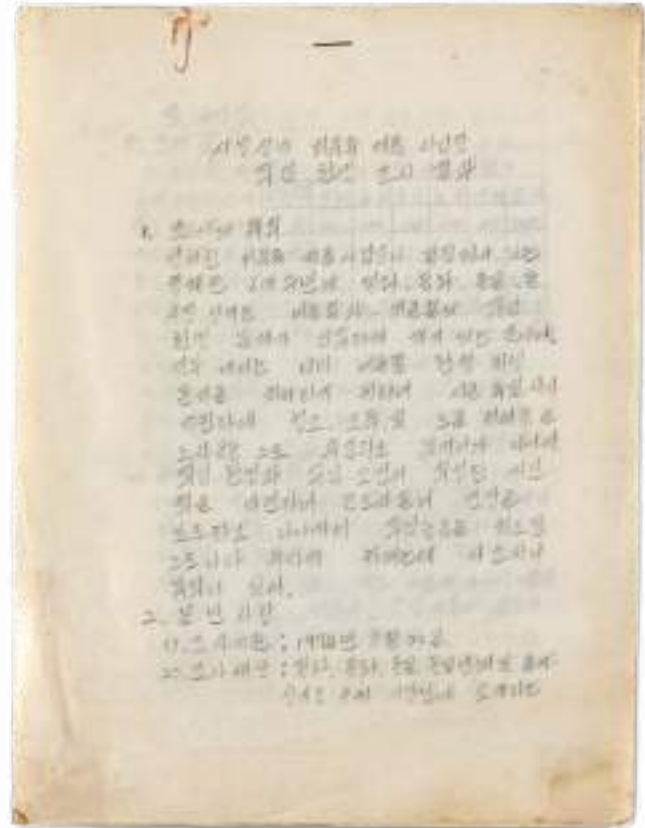


시장상가 피복류 제품 사업장 작업환경 조사결과

Results from the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at Garment Manufacturers Operating in Markets

1974 | 26.7x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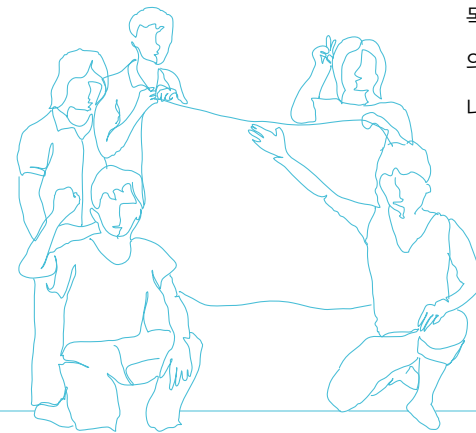
작업 환경과 작업 조건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시장상가 사업장의 가동 현황과 취업 근로자 수, 작업 환경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책 등이 기재된 결과보고서이다.



## 2-2

###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

청계피복노조는 본격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교섭하기 위해 임금제도 개선 위원회를 조직하고,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76년 3월 4개 시장과의 노사협의회에서 미싱사가 주던 급여를 사용주가 지불하도록 하는 견습공 직불제가 결정됐다. 77년에는 모든 업종의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임금 기준을 조사하여 임금인상안을 작성했다. 그 결과 77년 모든 업종의 임금을 32%로 인상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4개 시장과의 단체협약에서 유니언 샵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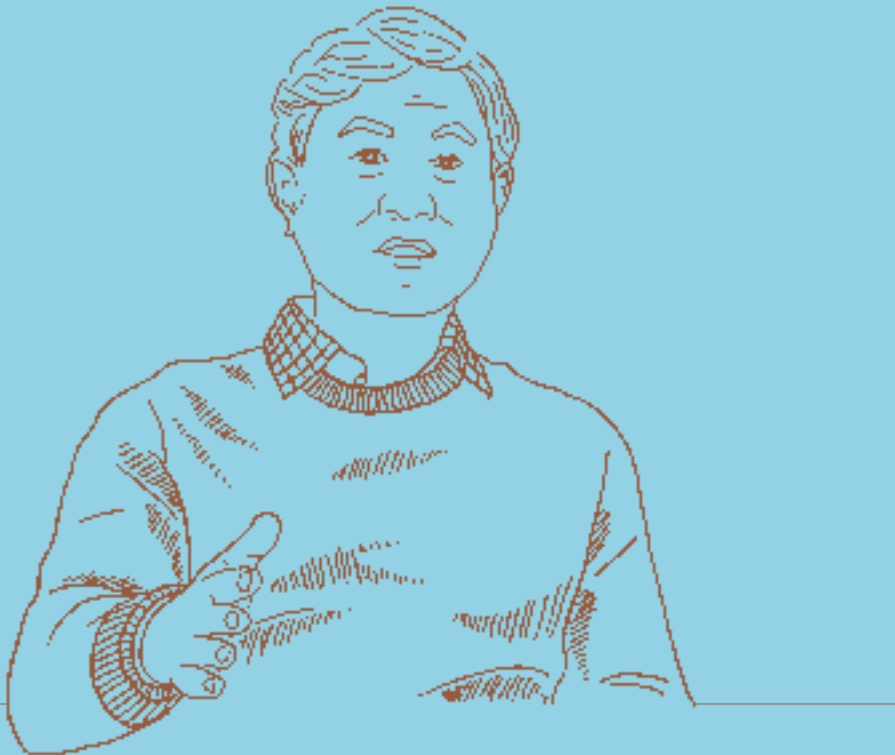


#### Activities to Increase Wages

The task force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had launched for wage improvement began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with factory owners. As a result, in March 1976, the factory owners from four different markets agreed to pay apprentices directly instead of paying them indirectly through sewing machine operators. In 1977, the Union surveyed the standard wages related to major items and proposed a wage increase for all occupations in the garment industry. It ultimately achieved a 32 percent rise in wages for all occupations and succeeded in introducing a union shop provision to the collective agreement.

## 이승철

삼동회에 참여한 전태일의 친구로, 청계피복노조 설립부터 강제 해산까지 전반적으로 활동했다. 1976년 4월부터 77년 6월까지 노조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유니언 습과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을 이뤄냈다.



청계피복노조가 실태조사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나와야 임금을 올리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사용주와 감독관이 우리편에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놔야만 요구를 할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77년도에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통과시키기 위해 옷 하나를 만드는 공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서 그 옷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와이셔츠를 하나 만든다해도 주머니 개수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데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했으니 방대하게 조사했죠.

단체협약 체결 과정은 어떠했나요?

71년도 4월에 우리가 단체협약을 처음 체결했거든요. 그때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협약 조항을 협의하죠. 그때 임금도 같이 협의하는데 여럿이 모여하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꾸려서 노조의 지부장하고 담당하고 2명과 사용주측 2명이 사전에 만나서 초안을 가지고 합의를 하죠.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하면 노사협의회에서 말없이 그냥 도장을 찍죠. 이후에 서울특별시에 보내서 확인해 주는게 필요해요. 그래야 법률적으로 효력이 생기죠.

단체협약 체결 사항을 사용주들이 잘 지켰나요?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하는 것도 힘든데... 하고 나서 사용주들이 회의해서 공지해도 상가가 100개 넘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관심없는 사람도 많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노동조합에서 더 선전을 많이해요. 팜플렛을 만들어서 사용주에게 다 보내도 안지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지키는 부분이 근로 시간, 휴일, 퇴직금 안주는 거였어요.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가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 설정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 조사도 많이 했어요. 노조 간부들은 몇 명 안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대책위원회 사람들이 실제로 공장 과 상가에 가서 임금 조사를 했죠.

1977년 노동조합의 성과는 무엇인가요?

유니언 습이 되면 한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의 ⅓가 조합원이면 전원을 노동조합원으로 보는 노동조합법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유니언 습을 해야하는데, 거기는 공장이 여러개니까 조합비를 걷으려고 사용주에게 "누구누구가 우리 조합원이니까 그 사람 조합비를 달라."하면 그 사람이 조합에 가입되었는게 드러나요. 그리고 한달 뒤에 가면 퇴직해있고, 그게 어려웠거든요. 많은 공장들 중 노조에 협조하는 곳은 유니언 습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언제든지 조합비를 받으러 가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다 우리 조합원이다 공제해달라 할 수 있고, 그들을 대표해서 우리가(노동조합)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조 간부된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발전하는데 유니언 습 제도가 가장 필요했고요. 그리고 각 제품을 만드는 공임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전체 임금의) 37.5%를 인상하려고 노력했어요.

청계피복노동조합 노조원이 스스로 참가한 투쟁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점퍼공장 미성사의 견습공 직불제 투쟁**  
사용주가 견습공(시다) 임금을 주는 걸로 하는게, 실질적으로 76년도에 대인복 잠바에서 임금자, 정선희라는 조합원이 주축이 되서 문제를 제기해서 분규가 난적이 있어요. 시위를 하기로 되었는데 그 전날 합의가 되어서 시위까지는 안가고 협의가 됐었거든요. 시다 임금은 사용주가 주는게 법률적으로 맞다고 결정됐죠.

**와이셔츠 미성사의 임금인상 투쟁**  
신순애씨 덕분에 와이셔츠 공장 사람들이 공장에 많이 가입되었었어요. 나이먹은 사람들이 종견 조합원으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와이셔츠 투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투쟁에 성공해서 바로 해결이 났어요.

당시 아름다운 투쟁을 했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조합원을 보면 평범하게 공장에서 일하다가 돈 모아서 좋은데 시집가서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때문에 꽃다운 청춘을 그 싸움 속에서... 경찰들에게 얻어맞고 구속되어서 징역 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기는 해요. 그리고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철야 작업과 휴일 근로 금지에 대한  
안내 말씀

Notice on the Prohibition of Overnight  
Shifts and Working on Holidays

1974 | 25.8x19

청계피복노조에서 사용주에게 넷째 일요일 휴  
일 근무와 야간 작업을 시키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안내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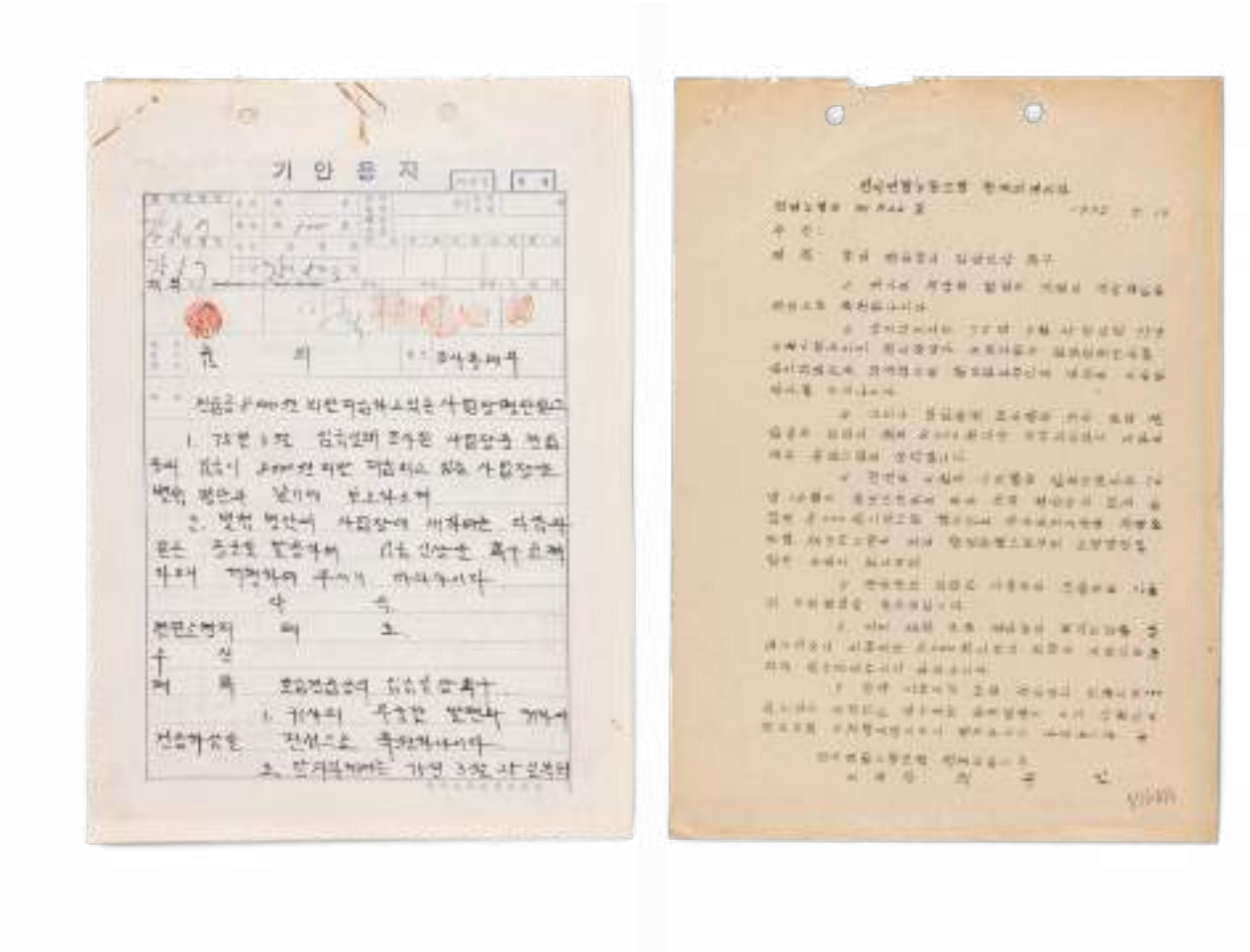


초급 견습공의 임금 인상 촉구

Call for the Increase of Wages for Entry  
Level Apprentices

1975 | 27x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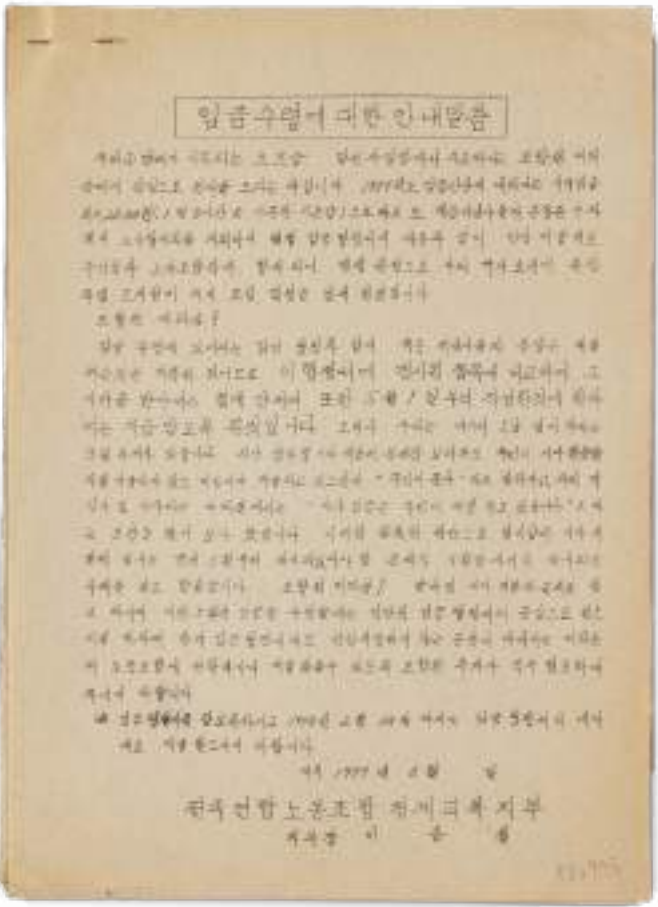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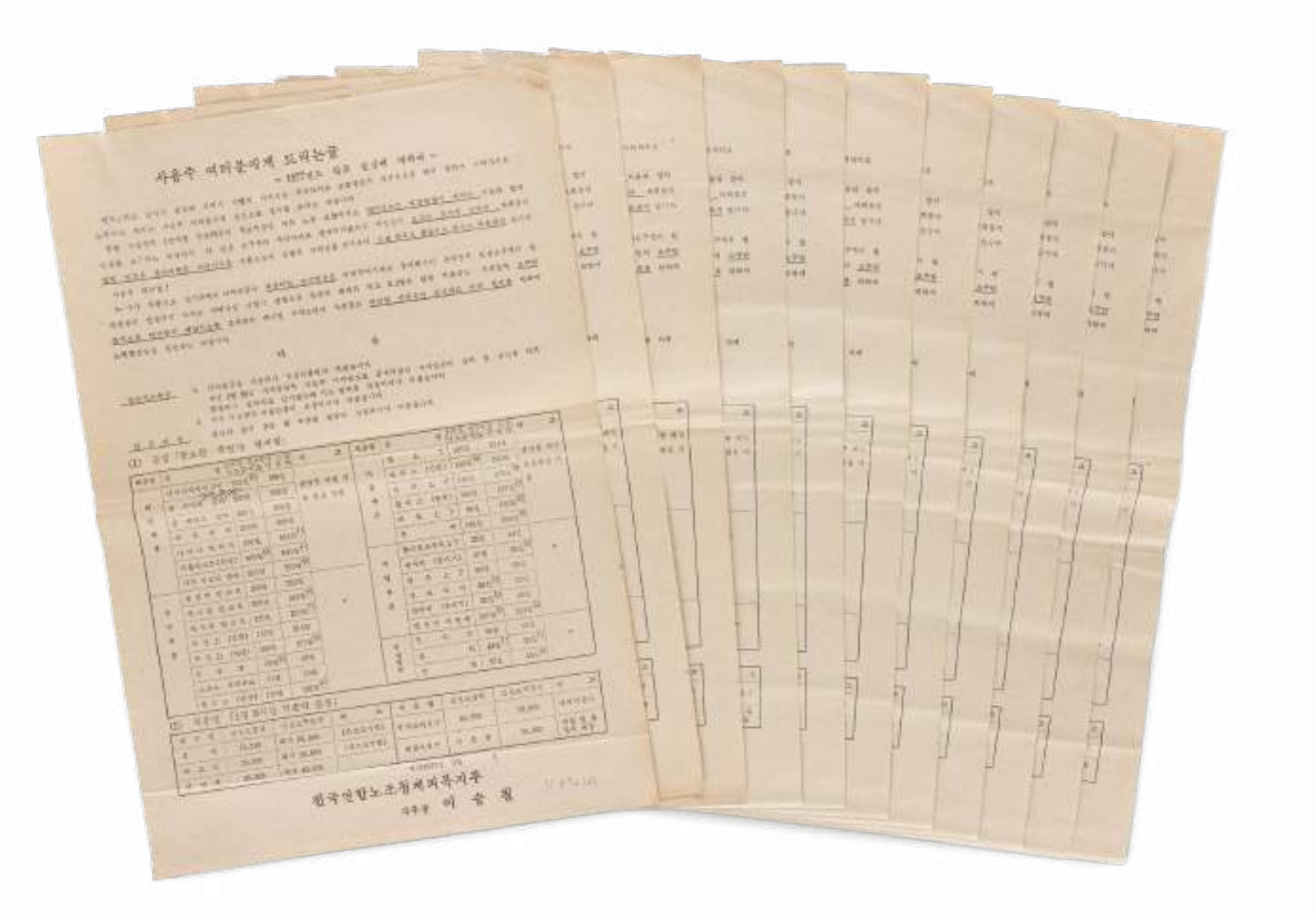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와 사측이 초급 견습공의 임금을  
8,000원 이상으로 합의한 내용에 협조를 촉구  
하는 안내문이다.



사용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  
1977년도 임금 인상에 대하여  
Message to Factory Owners: On the  
1977 Wage Increase

1977 | 37.9x26

청계피복노조에서 1977년도 임금 인상을 촉구  
하는 안내문으로 견습공 직불제 내용과 객공 미  
상사의 공임 단가, 인상 요구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임금 수령에 대한 안내 말씀  
Notice on the Reception of W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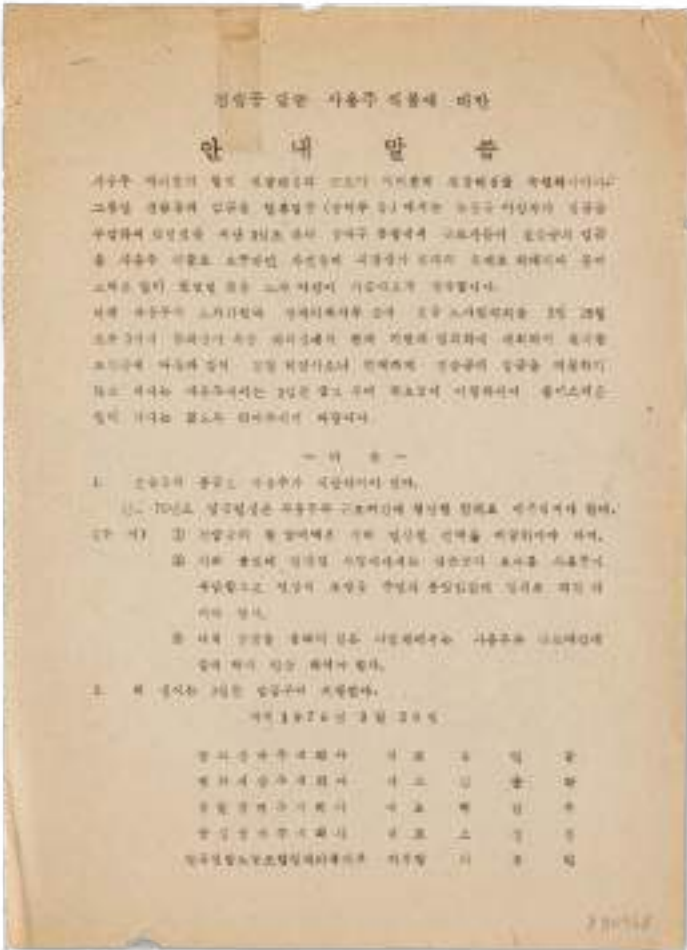
1977 | 26.6x19.4

청계피복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견습공 최  
저 임금과 미상사의 공임 인상을 노동자들  
에게 알리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 협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노조에 알려달라는 안내문이다.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에 대한  
안내 말씀  
Notice on the Factory Owners' Direct  
Payment to Apprentices

1976 | 26.9x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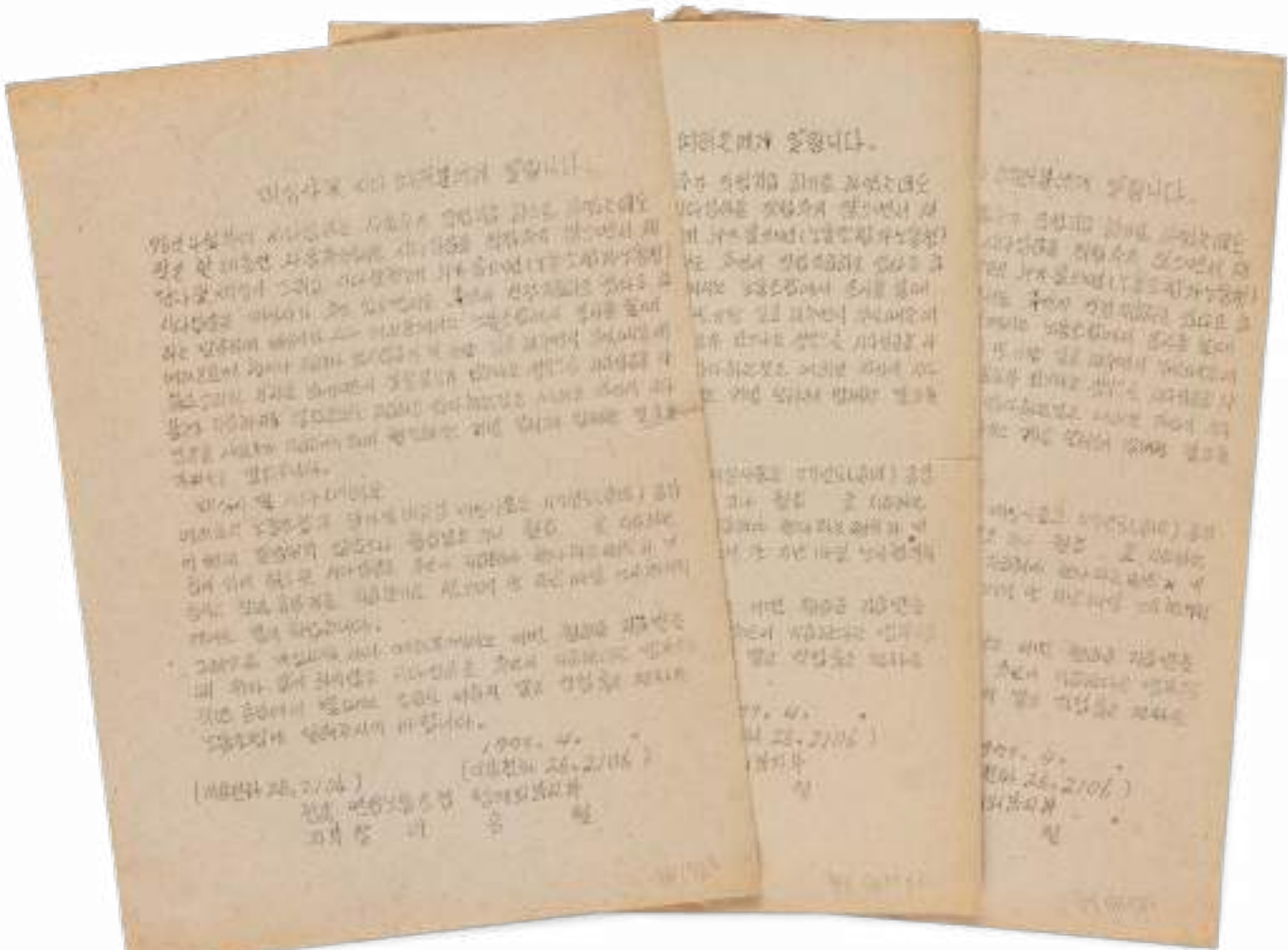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사용주의 견습  
공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안내문이다.



미싱사 및 시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Notice to Sewing Machine Operations  
and Their Assistants

1977 | 27.4x19.6

청계피복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사용주의 견습공  
임금 지급을 미싱사와 견습공에게 알리는 유인물  
이다.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  
Task Force for Wage Improvement

1975 | 27x19.5

1975년 5월 21일 개최한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한 자료로, 직종별 임금과 능률급 미상사의 품종별 임금 단가가 조사되어 있다.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에서는 5월 21일과 23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금 실태를 조사한 본 문서를 토대로 임금 인상 요구율과 교섭 전략을 결의했다. 능률급 미상사의 품종별 임금 단가 항목을 따로 빼서 조사한 것으로 보아 능률급 미상사의 임금제도 개선이 중요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능률급 미상사 품종별 임금단가

품명	임금단가 (원)				비고
	원	정	회	정	
직종별	110원	220원	130원	110원	비고
직종별	120	11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품명	임금단가 (원)				비고
	원	정	회	정	
직종별	120원	120원	120원	120원	비고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품명	임금단가 (원)				비고
	원	정	회	정	
직종별	120원	220원	130원	110원	비고
직종별	120	11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품명	임금단가 (원)				비고
	원	정	회	정	
직종별	120원	120원	120원	120원	비고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품명	임금단가 (원)				비고
	원	정	회	정	
직종별	120원	220원	130원	110원	비고
직종별	120	11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품명	임금단가 (원)				비고
	원	정	회	정	
직종별	120원	120원	120원	120원	비고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직종별	120	120	120	120	

임금 실태조사 자료  
Data from the Survey on Wages

1974 | 26.1x19.3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임금 실태조사 자료로 청계피복노조 임금 제도 개선 대책위원회 명단과 임금 조사 대상, 품목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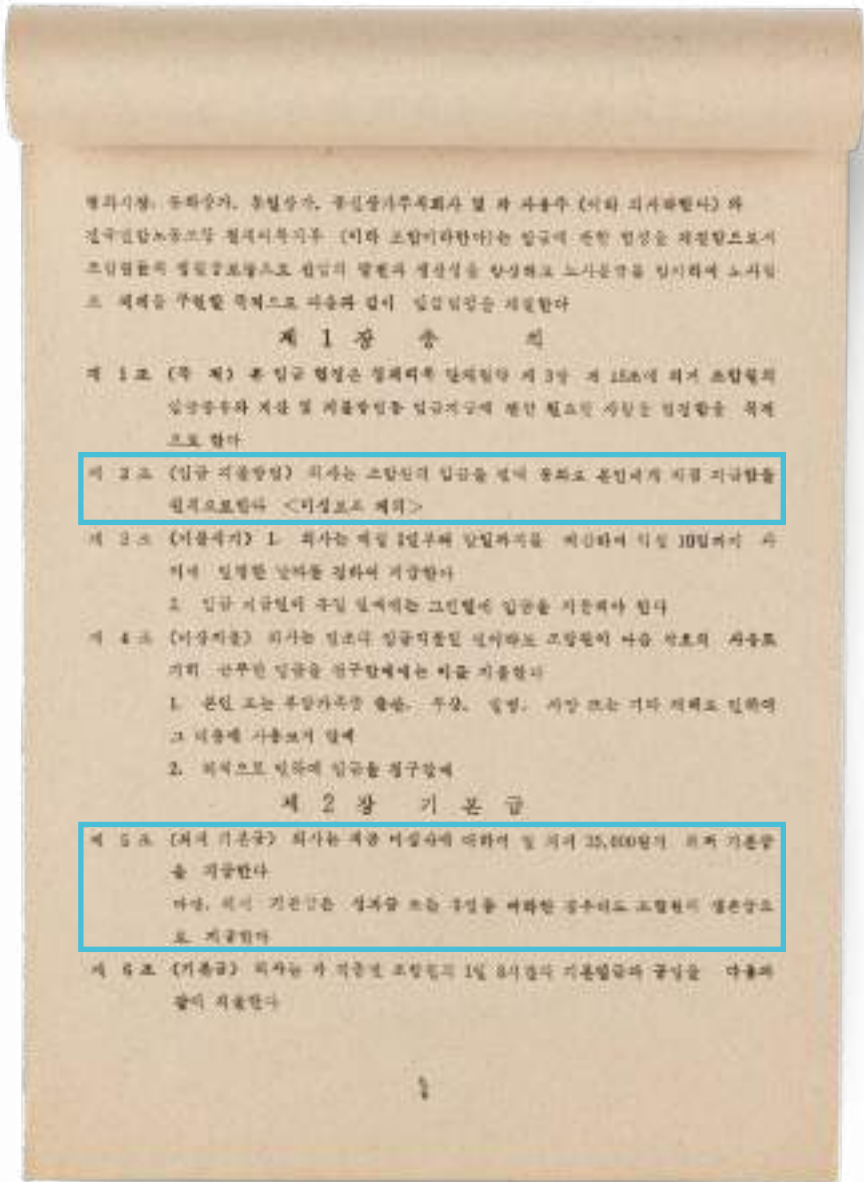




임금협정서  
Wage Agreement

1977 | 26x18.8

청계피복노조와 4개 시장(광화시장, 동화상가, 동일상가, 동신상가)과 맺은 임금협정서이다. 시장상가 노동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기본급, 직종별 임금, 공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총칙에 제2조 임금 지불방법에 미상보조를 제외한 노동자의 임금은 사업주가 직접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76년 견습공 직불제 투쟁때 일부 미상사가 지급하던 견습공의 임금을 사용주가 주도록 결정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5조 최저 기본급에서 객공 미상사에게 최저 기본급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노조의 임금제도 개선 활동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위사항: 동화상가, 동일상가, 동신상가주주회와 및 와 사용주 《이와 외사하한다》와  
견습공노동자를 철저히취득주 《이와 조합이라한다》는 임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조업협정의 정당한보상으로 전입의 발전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사분쟁을 임하여 노사합  
조 취재를 후원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임금 협정은 청계피복 업체마다 제 3항 제 15조에 최저 조업협의  
상당수후와 저산 및 저불합일을 임금지급에 관한 필요인 사항은 협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임금 지불방법》 회사는 조업인의 임금을 월에 종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한다 <미상보조 제외>

제 3 조 《이물제지》 1. 회사는 매일 1일부해 앞뒤까지를 제한하여 당일 10일까지 사  
에게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

2. 임금 지급일이 국일 일제에는 그일월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4 조 《이물제지》 회사는 임근자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조업협의 다음 조업의 사용주  
가회 한부한 임금을 청구할때에는 이를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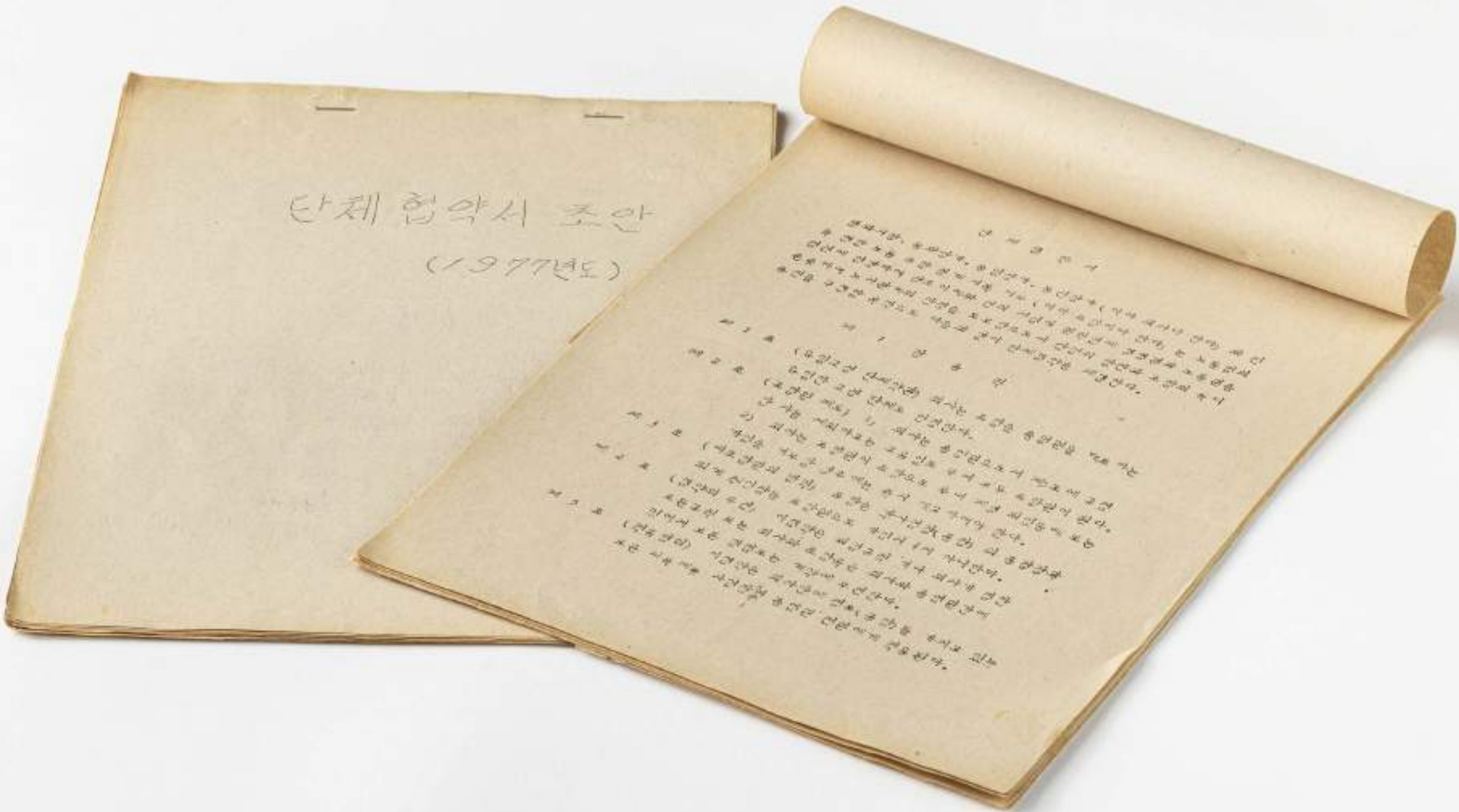
1.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주상, 일생, 사망 또는 기타 제책도 일하여  
그 다음에 사용주에 일제

2. 제책으로 일하여 임금을 청구할때

제 2 장 기 본 규

제 5 조 《최저 기본급》 회사는 제정 서정하에 의하여 월 최저 25,000원의 최저 기본급  
을 지급한다  
다만, 위의 기본급은 성과를 쓰는 후일을 제하한 경우라도 조업협의 정관상으  
로 지급한다

제 6 조 《기본급》 회사는 각 직종별 조업협의 1일 8시간의 기본임금과 공임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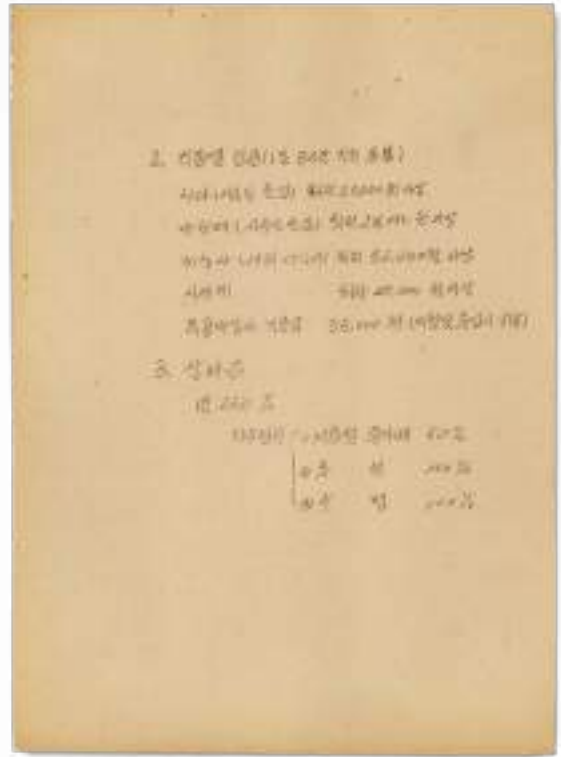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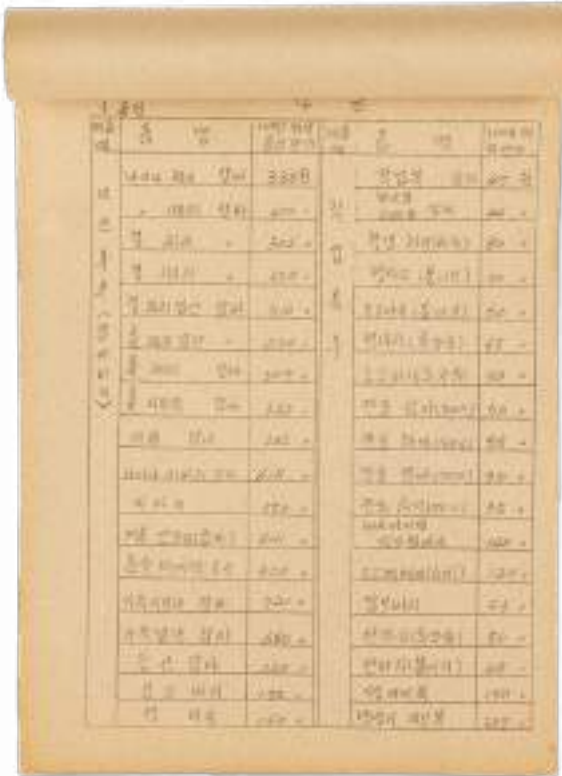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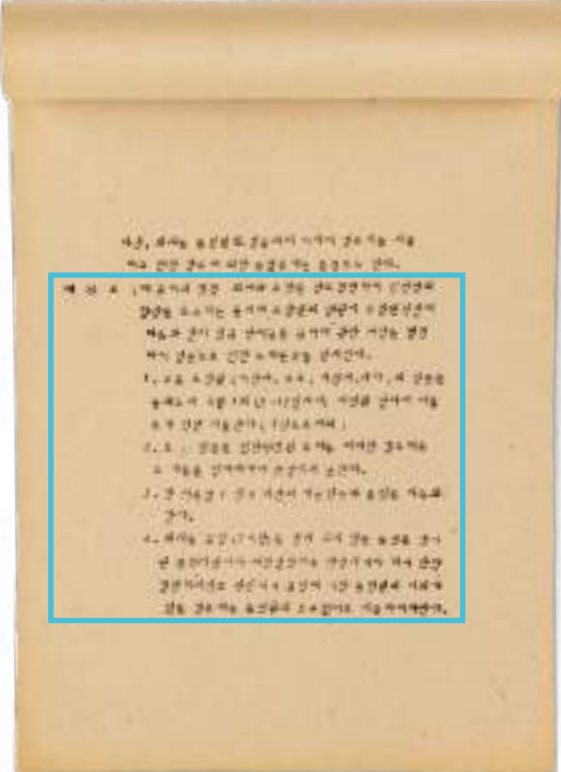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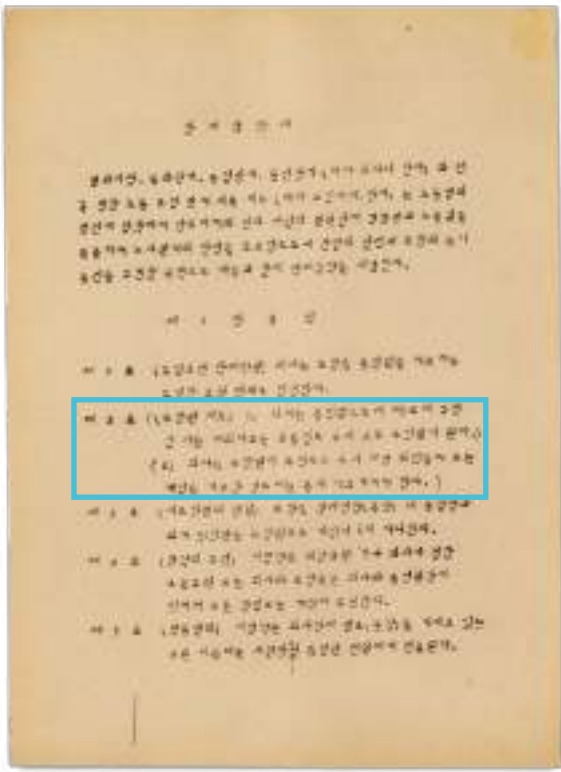




단체협약서(초안)  
Collective Agreement (Draft)

1977 | 27.2x19.7

청계피복노조와 4개 시장(평화시장, 동화상가, 동양상가, 동신상가)과 맺은 단체협약서 초안이다. 제2조 1항에서 '제3조에 규정한 자 외에 고용일로부터 모두 조합원이 된다'를 보아 유니온 습이 적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제19조 1항 '모든 조합원의 임금은... 사용주가 직접 지불한다(미싱보조 제외)'에서 견습공 사용자 직불제가 명시되었다. 단체협약서에서는 노조가 추진한 유니온 습과 견습공 사용자 직불제의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근로조건, 급여 관련 자료(공임, 직종별 임금,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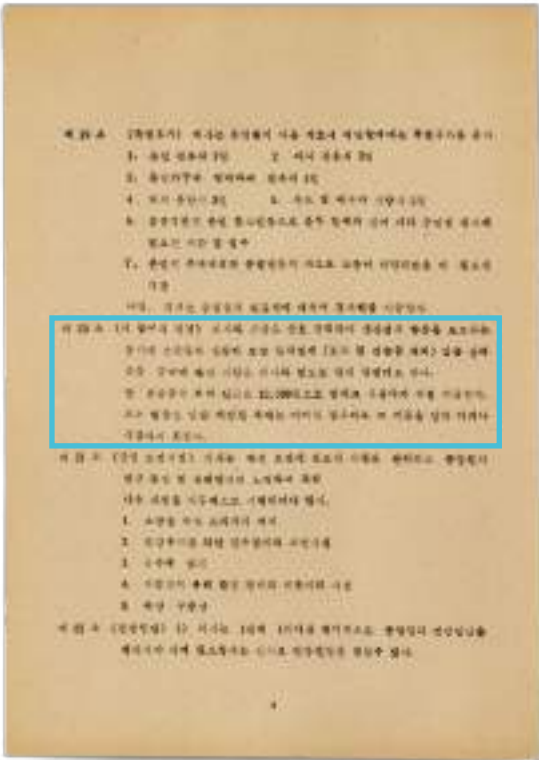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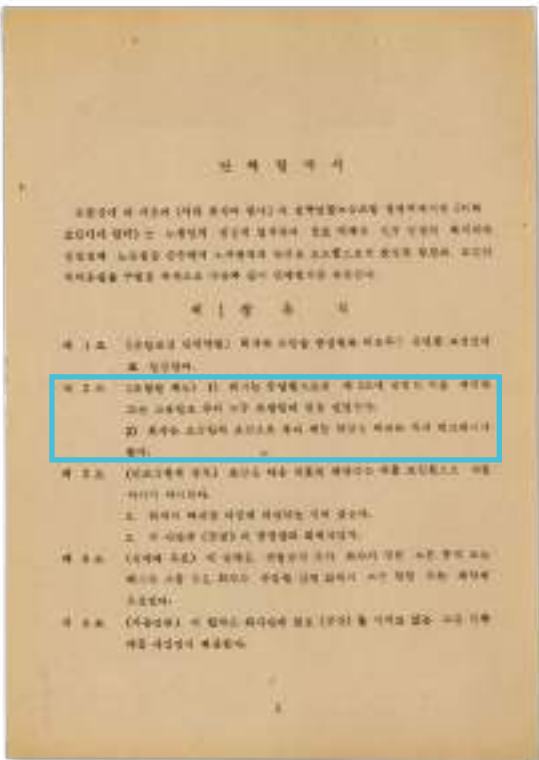




단체협약서  
Collective Agreement

1976 | 26x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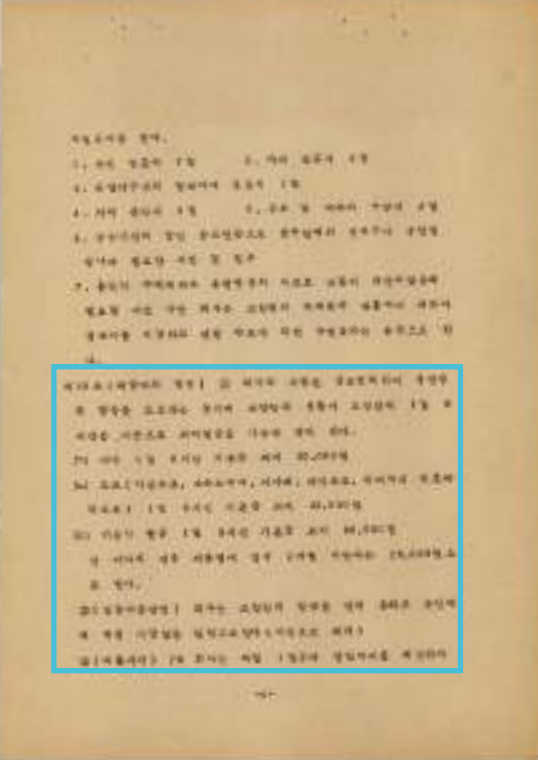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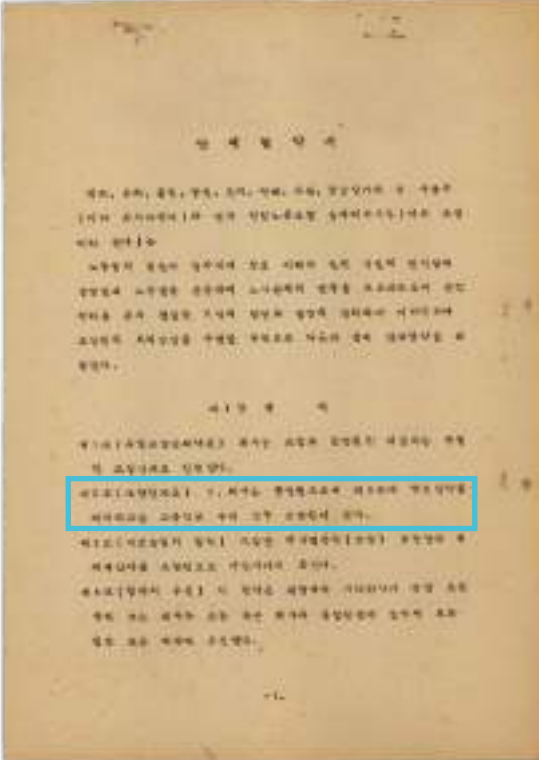
11월 청계피복노조와 동문상가가 체결한 단체협약서로 제2조에 유니온 스킵 제20조에 견습공 사용주 직불제가 명시되어 있다. 76년 말쯤 되면 4개 시장을 제외한 상가와의 단체협약에서 유니온 스킵이 체결되었다.



단체협약서  
Collective Agreement

1978 | 26x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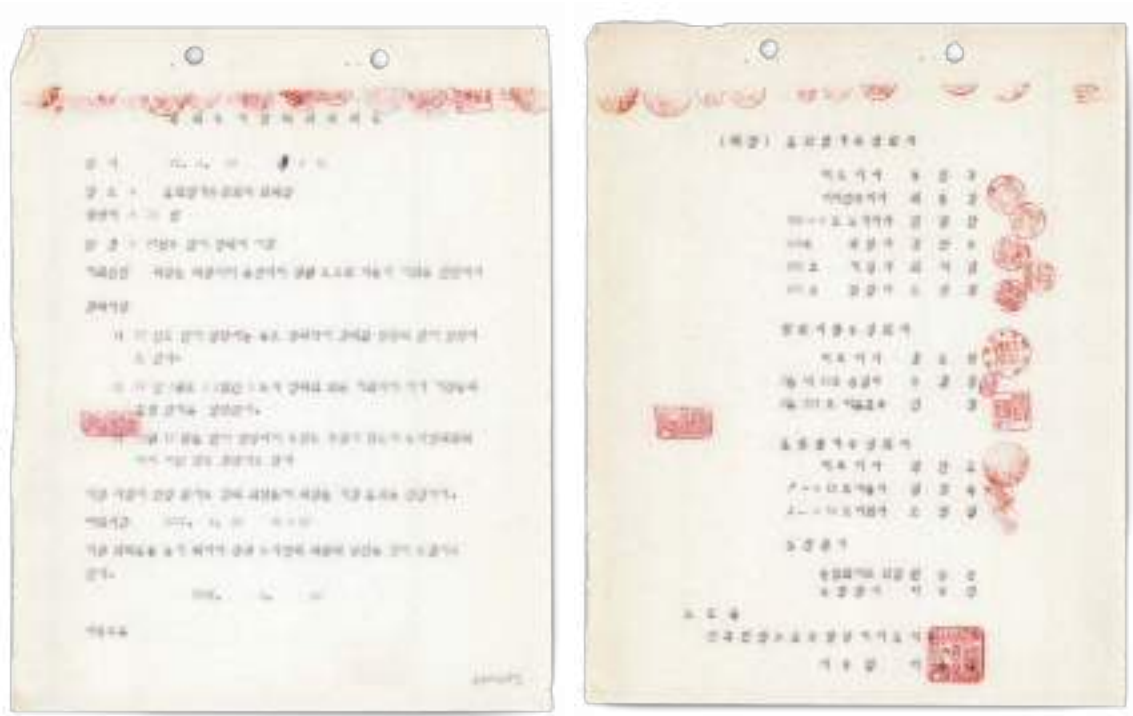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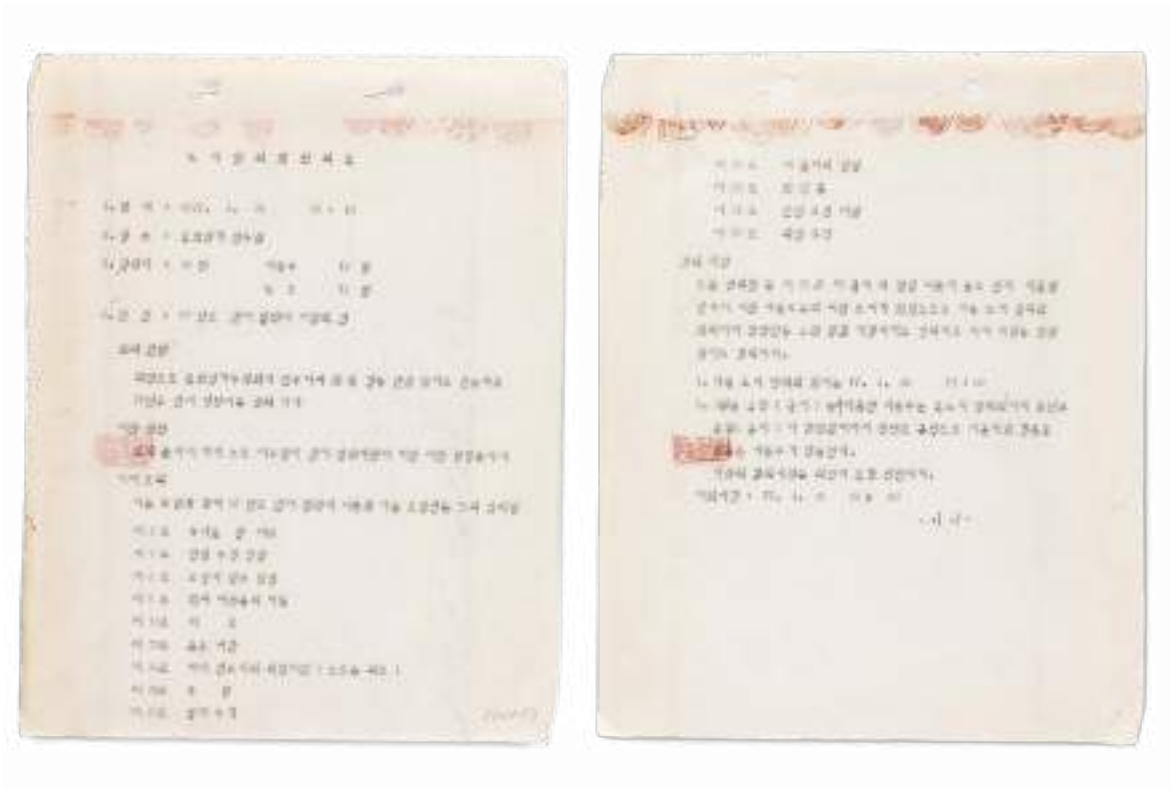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가 78년 체결한 단체협약서로 제2조에 유니온 스킵 제18조에 견습공 사용주 직불제가 명시되어 있다. 기존 단체협약서와의 차이점으로 조항에 견습공(시다), 보조, 미성사의 최저 기본급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77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77년도 단체 협의서 체결  
Minutes of the Union's Meeting with  
Factory Owners: The Conclusion of  
the 1977 Collective Agreement

1977 | 25.5x20.4

노사협의회에서 77년도 단체협의를 체결을 결의했다는 내용의 회의록이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77년도 단체 협약서 체결의 건  
Minutes of the Union's Meeting with  
Factory Owners: On Concluding the  
Collective Agreement of 1977

1977 | 25.5x20.5

노사협의회에서 77년도 단체협약서를 심의한  
회의록으로 유니언 슝, 견습공 직불제 관련 내용  
이 담겨있다.





진정 접수 및 해결 기록표  
Record of Submitted Petitions and Their Resolution

1976~7년 | 19.5x27  
청계피복노조에 1976년 5월부터 77년 7월까지  
지 체불 노임, 퇴직금, 휴일수당, 부당 노동 행위  
등의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 접수와 해결을 기록  
한 표이다.

진정번호	접수연월	소정성	외국인성	진정 내용	해결연월	해결금액	비고
86.5.2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영희노	
"	5월	김영희	"	"	"	"	
86.5.3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80,000원	"	
"	5월	김영희	"	"	30,000원	"	
"	5월	김영희	"	"	30,000원	"	
"	5월	김영희	"	"	30,000원	"	
"	5월	김영희	"	"	30,000원	"	
86.5.4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10,000원	"	
"	5월	김영희	"	"	10,000원	"	
"	5월	김영희	"	"	10,000원	"	
86.5.5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10,000원	"	
86.5.6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10,000원	"	

진정번호	접수연월	소정성	외국인성	진정 내용	해결연월	해결금액	비고
86.5.7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8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9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0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1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2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3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4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5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6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7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8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19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20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접수번호	접수연월	소정성	외국인성	진정 내용	해결연월	해결금액	비고
86.5.21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	5월	김영희	"	"	20,000원	"	
86.5.22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	5월	김영희	"	"	20,000원	"	
86.5.23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	5월	김영희	"	"	20,000원	"	
86.5.24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	5월	김영희	"	"	20,000원	"	
86.5.25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	5월	김영희	"	"	20,000원	"	
86.5.26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	5월	김영희	"	"	20,000원	"	
86.5.27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	5월	김영희	"	"	20,000원	"	
86.5.28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	5월	김영희	"	"	20,000원	"	
86.5.29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86.5.30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원	영희노	

9

진정번호	접수연월	소정성	외국인성	진정 내용	해결연월	해결금액	비고
86.5.31	5월	김영희	한국노임	76.5.10	20,000	영희노	
86.6.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del>86.6.2</del>	<del>6월</del>	<del>김영희</del>	<del>한국노임</del>	<del>76.6.10</del>	<del>20,000</del>	<del>영희노</del>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	20,000	영희노	
86.6.11	6월	김영희	한국노임	76.6.10	20,000	영희노	
"	6월	김영희	"				



행동

##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1975년 2월,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새마을노동교실의 운영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함께 행동하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는 청계피복노조의 노동교실과 소모임을 통해 노동 의식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10~20대가 노조 활동의 중심이 된 것과 맞물려졌습니다. 투쟁 열기가 거세지며 노조 지도부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젊은 노동자들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 3.



## Solidarity Made Much Possible

In February 1975, the Union members joined forces to win back the right to run the Saemaul Lessons on Labor program. They eventually learned that by acting together, it was possible to change reality. This realization came along as workers in their teens and twenties, who grew up being taught about labor movements through small groups and the Union's education programs, began to play more central roles in the Union's activities. Such young members may have sometimes disagreed with the Union's leadership during times of intense protest, but they continued to work together for the resolution of labor issues.

# 3-1

## 1975~77년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투쟁

1975~77 Union  
Protests

출처 : 제5~7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청계 내 청춘

## 1975.12

### 새마을 노동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 투쟁

**Classroom  
Protest to Reduce  
Working Hours**

을지상가 업체의 주휴제 위반과 근무 시간 문제로  
노조에서 항의하자 오후 8시 퇴근이 결정됐다.  
이후, 백지화되자 조합원 200여 명이 노동교실에서  
단식 시위에 나섰고 다음 날 오후 8시 퇴근과 주휴제  
실시가 확정됐다.

## 1975.4

### 광진복장사 임금인상·퇴직금 요구 투쟁

**Protest Against  
Gwangjin Apparel**

## 1975.2

### 새마을 노동교실 운영권 되찾기 투쟁

**Protest to Reclaim the  
Rights to Operate the  
Saemaul Lessons on  
Labor Program**

새마을 노동교실의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노동교실을 점거하고 시위했다.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노조가 노동교실을  
인계받아 유림빌딩 노동교실이 개관했다.

## 1976.3

### 절퍼공장 견습공 임금 직불제 요구 투쟁

**Protest for Jacket  
Factories to Directly Pay  
Apprentices**

## 1976.6

### 삼양사 사건 The Samyang Corporation Incident

삼양사 야간작업 위반을 조사하러 간  
이숙희 부장이 공장장에게 폭행당하자,  
노조가 확인서를 받았다.  
경찰은 도리어 공장장 집단 폭행 혐의로  
노조 간부들을 중부경찰서로 연행했다.  
조합원들의 석방 시위 끝에  
간부들이 풀려났다.

## 1976.7

### 유진산업 집단해고 사건 Yujin Industry's Mass Dismissal

유진산업 83명이 조합에 가입하자 사업주가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했다.  
노조원 등이 공장 가동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해고 수당 지급으로 합의했다.

## 1977.1

### 신일산업사 사건 The Sinil Industries Incident

임금 체불 문제로 조합원들이 시위를 시작했다.  
노동청 동부지방사무소 감독관이 임금 지급을  
약속한 날, 사업주가 도망갔다.  
이후 감독관의 책임하에 모든 자재를 팔아서  
임금의 약 90%를 지급하여 해결했다.

## 1977.5

### 와이셔츠 조합원 임금인상 투쟁 Protest Against Dress Shirt Ma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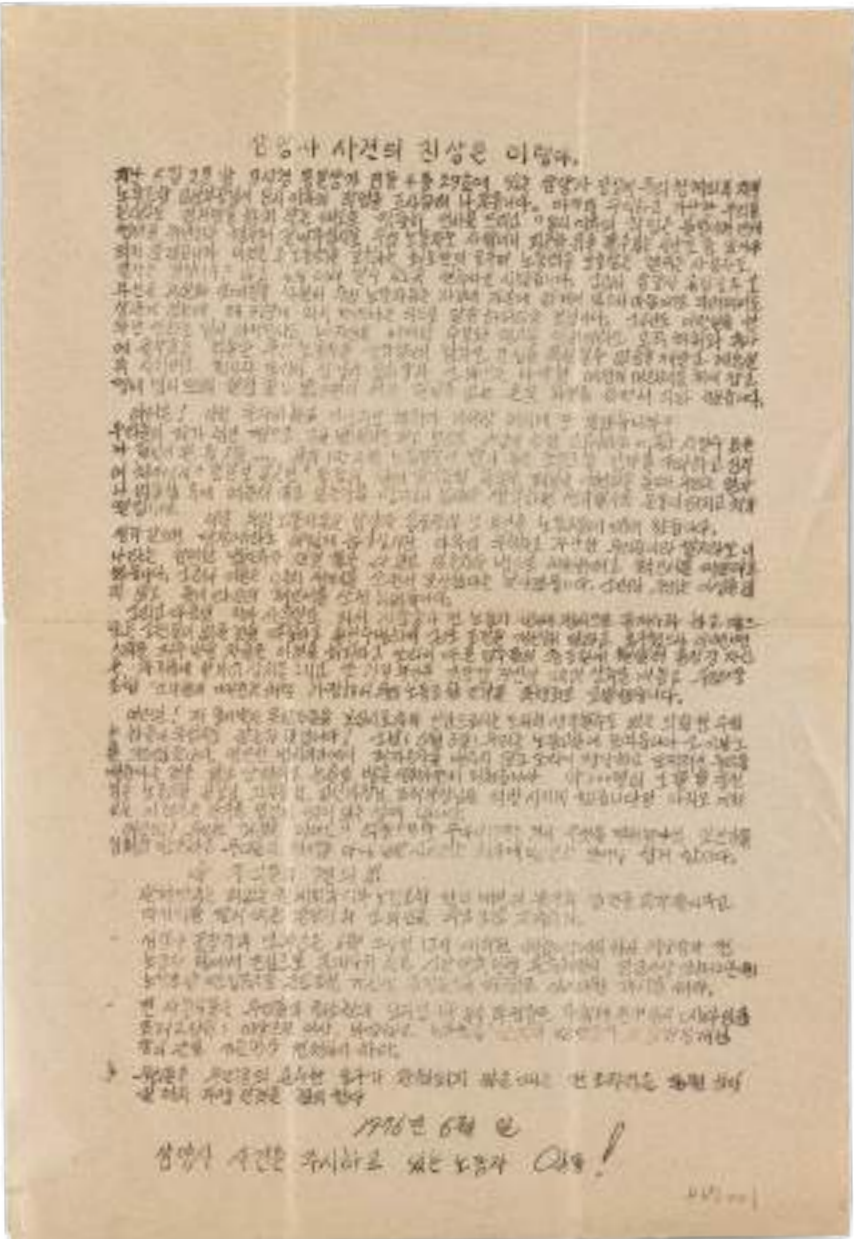


삼양사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The Truth Behind the Samyangsa Incident

1976 | 39x26.8

삼양사 사건으로 입건된 청계피복노조 간부 4명을 풀어주고 공장장과 그 부인을 무고죄로 구속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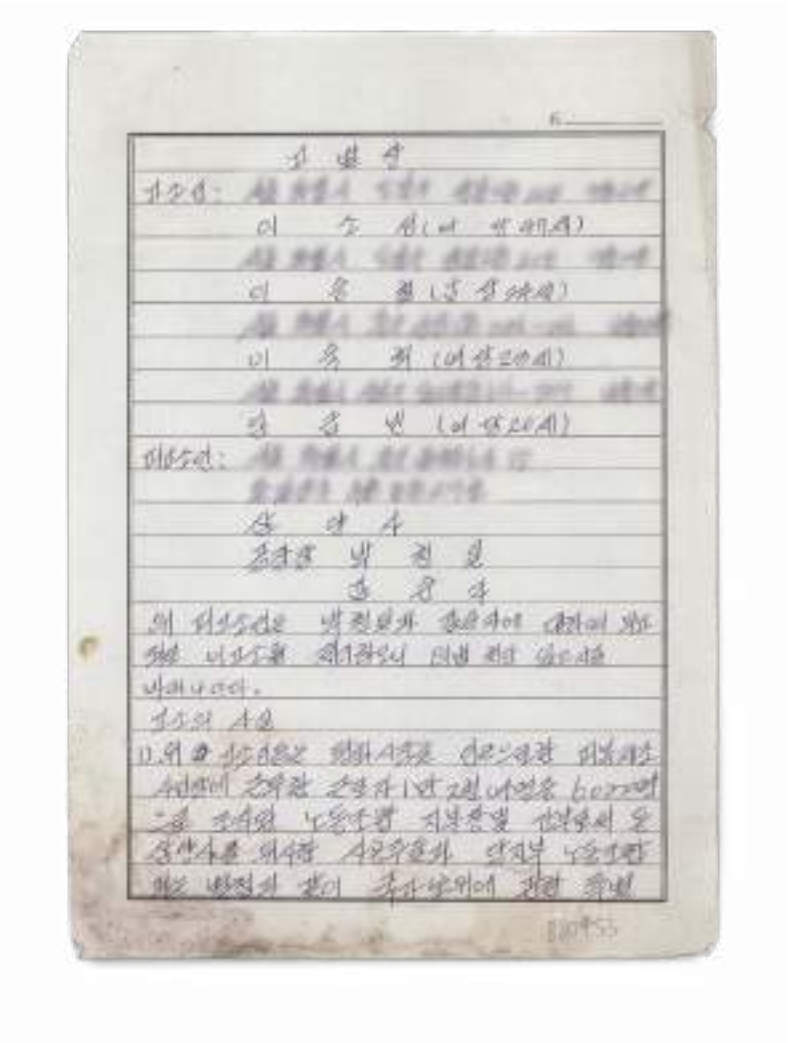


고발장: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이숙희가 삼양사 공장장에게 폭행당한 건

Indictment: The assault Yi Suk-hui, a Member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Suffered from Samyangsa's Factory Manager

1976 | 27x20.5

이소선, 이승철, 이숙희, 임금빈이 삼양사 공장장 부부를 무고죄로 고소한 고발장이다. 4인은 청계피복노조 간부 4명이 공장장을 폭행했다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 공장장 부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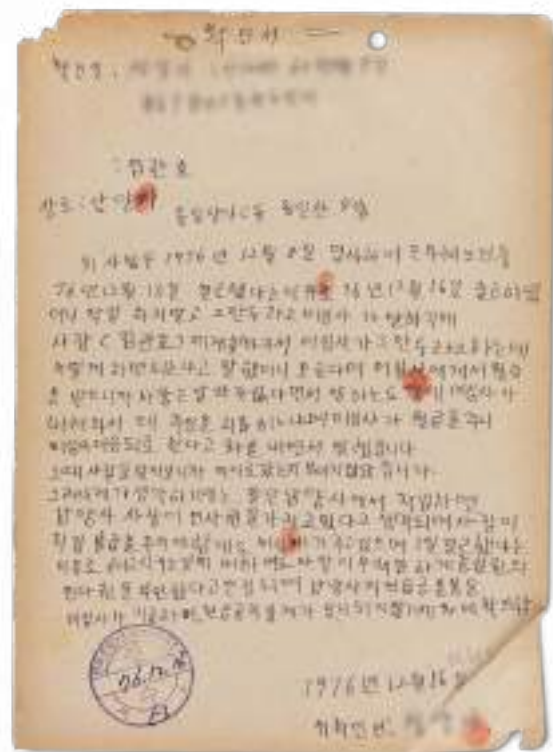


남양사 견습공 직불제 실시  
불이행 확인서

### Confirmation of Namyangsa's Failure to Directly Pay its Apprentices

1976 | 26.8x19.3

성양자가 남양사의 인사권이 사업주가 아닌 미상사에게 있는 부분과 견습공 임금을 미상사가 지급하는 것을 기재한 확인서로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다.



대도사 해고수당 진정서 처리 보고서

## Report on the Result of the Petition for Daedosa's Payment of Dismissal Pay

1976 | 26.5x19.4

청계피복노조가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직불제 투쟁으로 해고된 임금자의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처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이다.



## 신일산업사 체불 노임의 사건 진상

## Report on Sinil Industries' Wage Arr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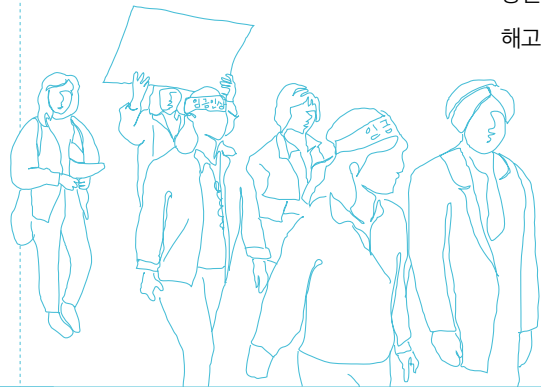
1977 | 28.4x18.1

신일산업사 체불노임사건의 일지와 각서, 신문 기사, 체불 임금 현황표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이다.



## 광진복장사 임금인상·퇴직금 투쟁

1975년 4월 와이셔츠업체 광진복장사의 미싱사 10명이 와이셔츠 1장당 35원에서 40원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주동자들을 해고한 사업주와 노조 집행부가 교섭에 나섰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금인상 투쟁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바뀌었다. 와이셔츠 공장의 미싱사들은 점심시간에 광진복장사 점포 앞에서 한 달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시위했다. 그 결과 해고되었던 전원이 재취업됐다.



## Protest Against Gwangjin Apparel

In 1975, ten sewing machine operators demanded that their employer Gwangjin Apparel raise their wage from 35 won to 40 won per dress shirt. After firing the operators who took the lead in making the demand, Gwangjin Apparel's owner sat down to negotiate with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executives but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The dress shirt maker's sewing machine operators then began to chant slogans and sing in protest in front of their employer's shop during lunch time. After a month of protesting, Gwangjin Apparel paid severance pay to the operators who were fired for demanding a raise.

## 신 순 애

미싱사로 일하면서 청계피복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75년 2월 노동교실 되찾기 시위를 비롯하여 광진복장사 임금인상·퇴직금 투쟁, 와이셔츠 미싱사 임금 투쟁, 77년 9.9 결사 투쟁 등에 참여했다.

### 광진복장사 퇴직금 투쟁에 대해 알려주세요.

광진복장 퇴직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퇴직금은 평화시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당시 (직원) 30명 넘으면 퇴직금을 받게 되었어요. 와이셔츠 공장들은 30명 넘는 곳이 많았어요. 회의를 하는데 점심 때 각 사업장 오아들을 만난거죠. 삼정사 오아 미싱사와 만나서 노조 사무실에 갔는데 이번 싸움을 이겨야 우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가 점심때마다 가게로 가서 시위를 하자고 했죠. 그 당시에는 장사가 잘워서 엄청 좁았고, 광진복장사 가게 앞에서 점심시간에 "광진복장 사장은 퇴직금을 주라." 구호하고 노래 부르다 45분 쯤되면 우리 일하러 가자고 몇 번을 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장 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해서 날아갈 것처럼 기뻐요.

### 광진복장사 퇴직금 투쟁에 참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시위인줄도 몰랐지만 우리가 가서 목소리를 내자. 우리는 절대 노조에서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겨야된다. 우리 노조에서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 저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한거죠. 목숨을 내놓을 사람도 있는데 못할거 없죠. 그런 마음으로 버텼어요.

### 광진복장사 퇴직금 투쟁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옷에 실밥 문은 채로 가서 경비가 호루라기 불고 그랬지만 심분 정도는 가게 앞이 아수라장이 되는거예요. 한 쪽에서는 "시끄러워, 우리 장사 못해. 빨리 주고 말어." 그러는 사람이 있고, "기집애들이 저런다고 되겠어? 퇴직금은 은행이나 그런데서 받는거지."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그런 와중에도 해결을 했으니까 엄청 기쁘죠. 저뿐이 아니라 다들 너무너무 행복해 했죠. 퇴직금은 은행이나 한전다니는 대기업만 받는게 아니라 우리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근로시간 몇조 몇항 다외우고 다녔죠. 우리에게 필요한건 다 알았죠.

### 나에게 있어 청계피복노동조합이란?

저에게 노동조합은 당시에 생명줄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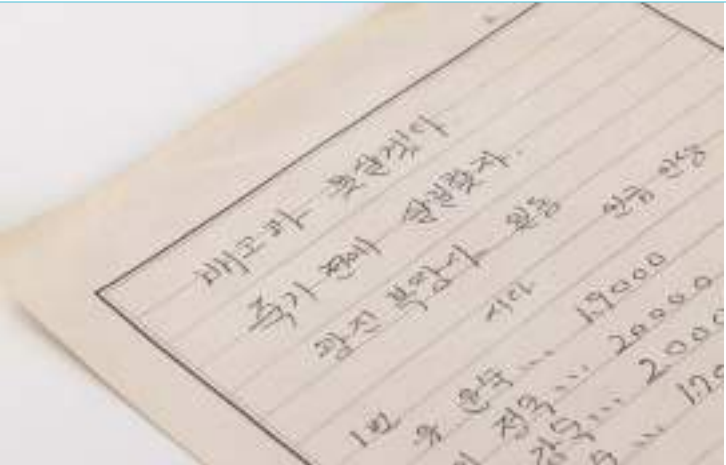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소식》 제4호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Newsletter, No. 4

1975 | 38.3x27

청계피복노조의 소식지 2면에 실린 광진복  
장사 임금인상 관련 기사다. 노조가 개입하여  
조합원과 사용자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노  
사분규를 해결했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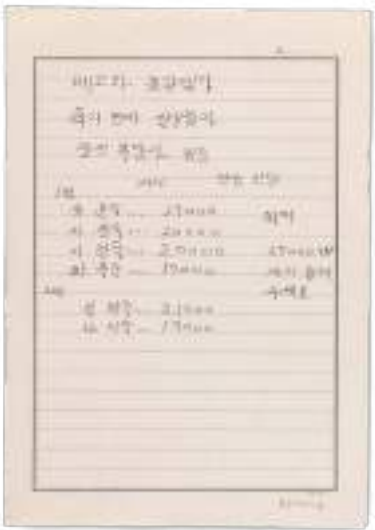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

Let's Find a Way to Survive Before  
We Starve to Death

1970년대 | 24.8x17.6

임금인상 및 퇴직금 받기 투쟁을 실시한  
광진복장사 미싱사와 시다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대 서명한 문서다.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

Let's Find a Way to Survive Before  
We Starve to Death

1970년대 | 24.8x17.4

미싱사, 시다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연대 서명한 문서다.



견습공(시다) 실태조사 통계문서

Statistics From the Survey of Apprentices (Assistants)

1970년대 | 27.2x19.8

시다의 성별, 연령, 품목, 직위, 임금, 경력, 사업장 규모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집계한 문서이다. 견습공의 최저임금 설정 및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 등의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싱사 실태조사 통계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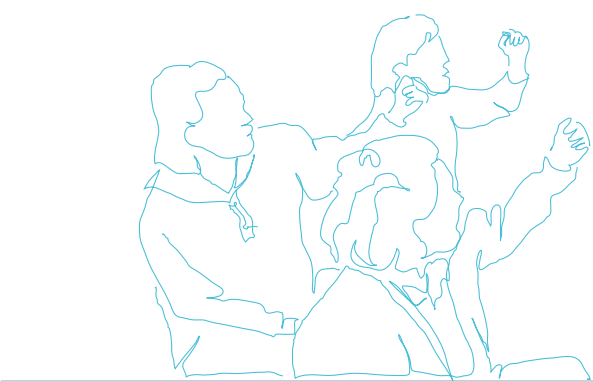
Statistics from the Survey of Sewing Machines Operators

1970년대 | 27.2x19.8

미싱사의 성별, 연령, 품목, 직위, 임금, 경력, 사업장 규모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집계한 문서이다. 미싱사의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조사한 것으로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제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임금 직불제 요구 투쟁

1976년 3월 6일 청계피복노조의 임금 제도 개선위원회 점퍼 부문 대책위원 임금자, 정선희의 주도하에 견습공 임금 직불제 요구 투쟁이 시작됐다. 보름 동안 25개 공장이 참여하자 사업주는 기존대로 미싱사가 견습공의 임금을 지불하되, 50원까지 미싱사의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했다. 일부 공장에서 주동자들을 해고하자 노조원들이 26일 평화시장 앞에서 가두시위를 시도했다. 발각되어 시위는 못했지만, 관계 당국이 조정에 나서 점퍼공장의 견습공 임금은 사용주 지급으로 합의됐다.



Protest for Jacket Factories  
to Directly Pay Apprentices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had created a task force to improve wages in jacket making. On March 6, 1976, two of the task force’s members named Im Geum-ja and Jeong Seon-hui launched a protest demanding jacket factories to directly pay their apprentices. Over the next two weeks, twenty-five factories joined the protest. Factory owners responded by offering sewing machine operators a raise of 50 won per jacket in exchange for maintaining the practice of having sewing machine operators cover their apprentices’ wages. Then some factories fired their workers for leading the protest, which prompted the Union members to plan a street demonstration in front of Pyeonghwa Market on March 26. Although the plan failed because of a leak, the authorities mediated the situation by having jacket factory owners agree to directly pay their apprentices.

###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직불제 요구 투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보통 내 밑에 한명, 1:1도 있고 3:1도 있어요. 내 밑에 3명이 있는데, 나도 직원이잖아요. 나도 사장님에게 돈을 받잖아요. 내가 이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견습공) 주고 나면 가지고 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1년 열두달 다 되는데 아니잖아요. 일년에 한 6개월은 일하지만 그 나머지는 미싱사들, 객공들은 일을 못해요. 우리가 하루에 14, 15시간 일을 했을때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되지만, 또 일을 안했을때에는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나면 없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임을 올리는 것보다도 견습공의 임금을 사장이 주고 우리가 공임을 1년 늦게 올려받으면 좋겠다. 일을 할 때 나도 그나마 마음 편히 쉬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마음을 갖고 투쟁에 참여했죠.

### 점퍼공장 미싱사와 견습공의 월급 상황은 어땠나요?

저희 점퍼같은 경우에는 비철이라는게 있어요. 여름에 몇개월 일을 안해요. 그리고 가을부터 봄까지 일을 많이 해야해요. 많이하는 만큼 내가 또 가지고 가야하고 또, 그걸 많이 벌어야 실패 먹기도 해야하고 또 견습공들에게 작은 돈이나나 용돈을 줘야해요.

### 당시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직불제 요구 투쟁을 했던 분들의 나이는 어땠나요?

제가 그때 22살, 23살 보통 저랑 비슷한 나이에요. 지금 말로는 견습공이라고 하는 시다들 나이는 참 어렸어요. 저희 직장안에선 13살이 있었고, 제 밑에서 일하는 견습공은 15살이었고, 다 어렸어요. 참 가슴아프죠.

###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직불제 요구 투쟁과 노조원들의 가두시위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저희 공장같은 경우는 파업을 했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일부가 파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싱사의 공임을 올리지 말고 견습공 월급을 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거절당하자 다같이 시위하기로 했어요. 노조원과 점퍼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같이 가두시위에 합세하기로 했는데 정보국에 이야기가 흘러 들어간거예요.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고 무산됐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사장들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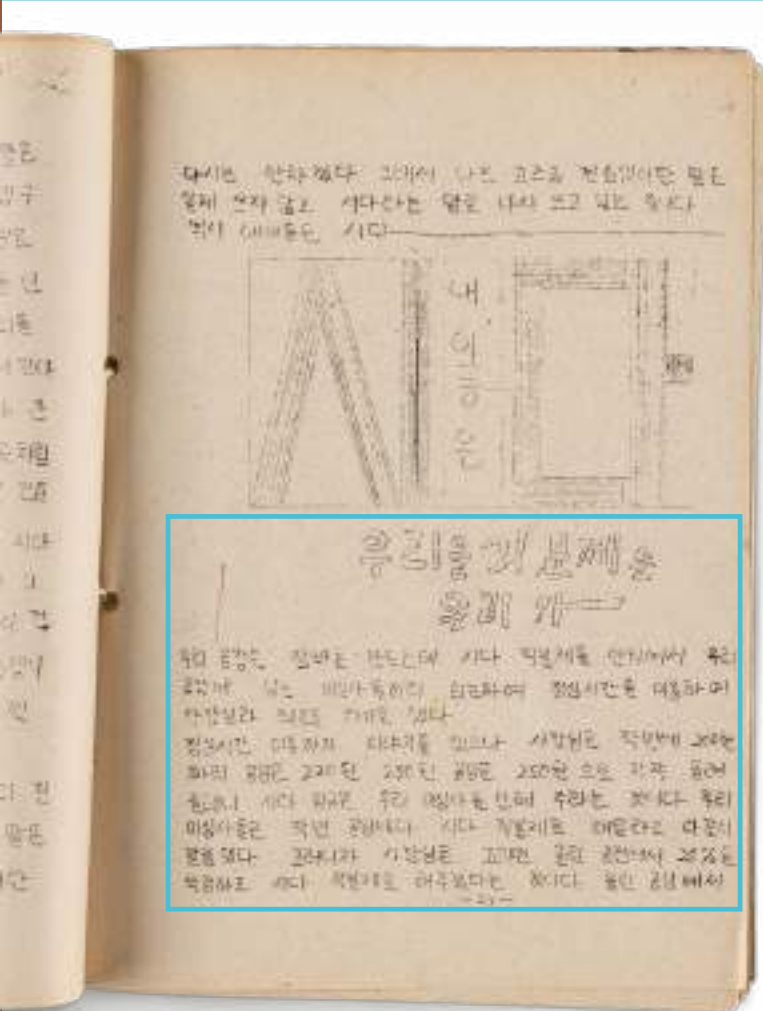
###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직불제 요구 투쟁 성공 후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아이들이 월급 받을때 느꼈죠. 봉투가 항상 하나만 나왔어요. 사장이 월급날 몇 명이 있던 오야미싱사 봉투 한 개만 나왔는데 그날은 봉투가 많이 나와있는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받았을 때, 그건 뭐라 말 못해요. 저랑 같이했던 동료들이 “아! 하면 되는구나!” 그때 그 동료들이 제 손을 잡고 “선희씨, 몰랐어~ 이런걸 몰랐어 내가. 그동안 협조 못해 미안.”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 나에게 있어 청계피복노동조합이란?

저한테는 학교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노동조합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지식인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암흑 속에 살았나 하는 깨달음을 찾기 때문에 학교라고 표현하겠어요.

미싱사로 일하면서 청계피복노조에서 활동했다. 아카시아회 활동과 새마을노동교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76년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직불제 요구 투쟁을 동료인 임금자와 함께 계획했다.




다시본 한화했다. 그러나 다른 고르코 전집이던 모든 일제 안자 알고 서다라는 말로 내사 쓰고 있는 중이다. 복이 아이들은 기다...

우리를 잊지 않게  
우리 가

우리 공장은 점퍼를 만드는 데 시다 직불제를 안기어서 우리 공장에 있는 미싱사들한테도 지급하여 점퍼시간을 더줄수 있게 하길바라. 복된 가다. 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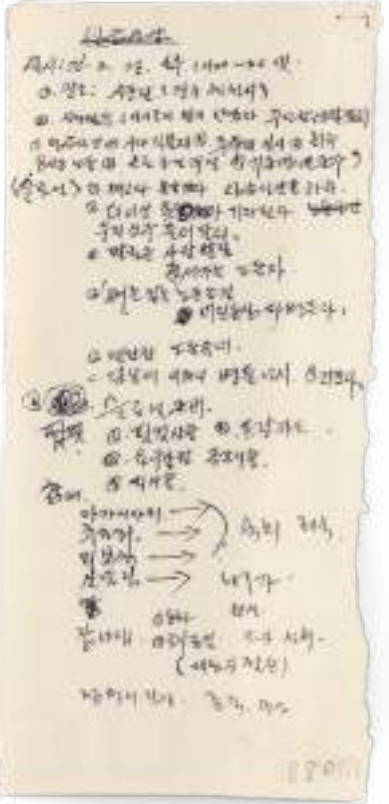
점퍼시간 미싱사들 다들지를 일이나 시합으로 직방에 보내는 화의 공판 고대된 250원 공판 250원으로 각각 돌려 줘서 시다 임금도 우리 미싱사들한테 주라는 것이다. 우리 미싱사들은 직방 공판이다. 시다 직불제를 해달라고 다같이 불을 켜다. 고대자가 시합으로 고대면 공판 공판에서 250원을 복음하고 시다 직불제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복된 공판에서...



「아카시아」통권2호  
Acacia, Vol. 2

1977 | 27.8x19.8

청계피복노조 여성 노동자 모임인 아카시아회의 회지會誌다. 여성 조합원의 수기 모음으로 시다 직불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시다공장  
시다공장 노조 학 (시다-노조)  
①. 열다: 시다공장 (시다)  
②.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③.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④.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⑤.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⑥.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⑦.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⑧.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⑨.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⑩.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⑪.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⑫.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⑬.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⑭.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⑮.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⑯.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⑰.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⑱.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⑲.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⑳.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㉑.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㉒.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㉓.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㉔.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㉕.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㉖.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㉗.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㉘.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㉙.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㉚.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㉛.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㉜.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㉝.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㉞.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㉟.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㊱.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㊲.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㊳.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㊴.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㊵.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㊶.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㊷.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㊸.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㊹.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㊺.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㊻.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㊼.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㊽.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㊾.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㊿. 시다공장 (시다)에 대해 단합다. 구두선(시다)

점퍼공장 미싱사 투쟁 연계 가두시위 계획 메모

Memo on Plans for a Street Demonstration with Sewing Machine Operators Employed by Jacket Manufacturers

1976 | 18.4x8.7

청계피복노조원들이 점퍼공장 미싱사의 견습공 임금 직불제 요구 투쟁과 연계하여 76년 3월 36일 평화시장 앞에서 가두시위를 계획한 메모이다. 장소와 시위 방법, 참여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정선희





점퍼공장별 임금 문제 분류 현황  
Status of Wage Disputes at Jacket Factories

1976 | 20.4x26.8

1976년 점퍼공장 미싱사들이 사용주에게 견습공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동화상가, 통일상가, 을지상가의 사업장 명단과 발생일을 기록한 현황표이다. 투쟁을 주도한 임금자가 일하던 대도사를 시작으로 각 점퍼공장에서 미싱사들이 견습공 임금 직불제를 요구했다.

점퍼공장 견습현황				
공장명	주소	견습생 수	견습생 임금	비고
동화상가	서울시 중구 동화상가	10명	월 10만원	1976. 3. 15
통일상가	서울시 중구 통일상가	15명	월 12만원	1976. 3. 20
을지상가	서울시 중구 을지상가	20명	월 15만원	1976. 3. 25
...	...	...	...	...

점퍼공장 견습현황				
공장명	주소	견습생 수	견습생 임금	비고
...	...	...	...	...

조합원 해고 사업장 조사 보고 문서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workplace where union members are fired

1976 | 25x18

청계피복노조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 조합원들을 해고한 태성사와 견습공 임금 직불을 사용주에게 요구한 미싱사에게 퇴사를 강요한 세운사를 조사하여 내부에 보고한 문서이다. 문서 작성일이 1976년 3월 25일이고, 태성사와 세운사가 점퍼공장인 것으로 보아 점퍼공장 미싱사 견습공 임금 직불제 요구 투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자 권리선언  
Declaration of Workers' Rights

1976 | 39.6x27.3

점퍼공장 미싱사 투쟁과 연계하여 계획된 가두 시위에서 사용하려 했던 선언문이다.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임금 인상과 견습공 직불제, 미싱사 기본급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권리선언				
...	...	...	...	...

우리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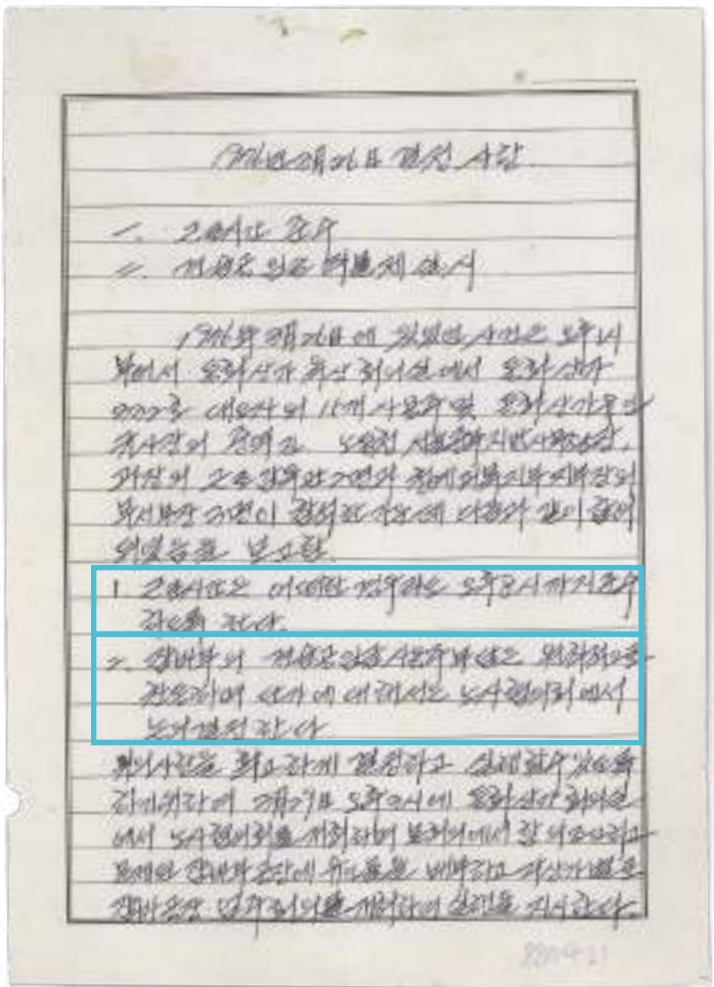
1. 임금을 인상하라.(시타의 임금을 최저 2만원으로 인상하고 미싱사, 재단사의 임금을 50% 인상하라)
2. 시타의 임금을 미싱사에게 맡기지 말고 주인이 직접 지불하라.
3. 능률급 미싱사에 있어서도 기본급을 보장하라.
4. 노동시간을 단축하라.(밤8시 이후의 노동을 일체 금하라)
5. 어린 동심과 부녀 노동자를 보호하라.
6. 일요일은 전면 쉬게하라.
7. 시간외 수당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불하라.
8.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점퍼공장 미싱사 투쟁 관련 노조 및  
사용주 협의 문서

Document of Consultation Between  
the Union and Jacket Manufacturers  
Regarding the Sewing Machine  
Operators' Protest

1976 | 24.4x17.5

3월 26일 점퍼공장 견습공 임금 직불제 투쟁 가  
두시위 계획이 사전 발각되어 사용주, 노동청 소  
장, 근로감독관과 청계피복노조 지부장 등이 협  
의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다. 이날 결정된 사안  
은 오후 8시까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사용주  
가 점퍼공장 견습공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단가는 추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  
기로 하였다.



Protest Against  
Dress Shirt Makers

와이셔츠 조합원 임금인상  
투쟁이야기

1977년 5월 2일 광진복장사, 다림사, 삼정사, 안광사, 유림사의 조합원들은 와이셔츠 1장당 34원에서 50원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사업주가 40원 인상으로 절충하려 하자 조합원들은 작업을 거부하고 파업에 나섰다. 5월 5일 미싱사들은 작업을 중지하고 노동교실에서 시위에 돌입했다. 250명이 참여한 조직적 파업이었다. 파급력에 놀란 노동청 중부지방사무소 및 중부경찰서 정보과가 개입하여 임금이 50원으로 인상됐다.

On May 2, 1977, members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who were working for Gwangjin Apparel, Darimsa, Samjeongsa, Angwangsa, and Yurimsa demanded a raise from 34 won to 50 won per dress shirt. When the factory owners suggested a compromise of 40 won per dress shirt, the Union members refused and chose to go on strike. A few days later on May 5, sewing machine operators stopped working and began to protest in the classroom originally meant for the Union's educational programs. Two hundred and fifty workers took part in what became the first organized strike to take place in the Cheonggyecheon area. Startled by the strike's impact, the Labor Administration's Jungbu District Office and the Jungbu Police Station's intelligence division intervened to reach an agreement to pay 50 won per dress shirt.

## 와이셔츠 미싱사 임금 인상 투쟁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체협약이 자꾸 결렬되는거예요. 노조에서는 37.5%를 요구하는데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단 최종 통보를 했죠. 그래서 오야미싱사들 네트워크로 일하는 공장에서 견습공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까 인원수가 되서 그 여파가 일파만파 퍼지는거죠.

## 와이셔츠 미싱사 임금 인상 투쟁 이후 변화는 어떠했나요?

### 계약서 작성과 월급제로 전환

계약서를 일일이 다 썼어요. 신순애는 하루 일당, 월차, 만근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생리휴가 얼마, 그런 계약서를 쓰게 된거예요. 월급에 신순애 임금 본봉, 주휴, 월차 얼마해서 딱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 근무 시간 준수

그동안에는 도급제였다가 월급제로 하자가 된거예요. 도급제로하면 시간외 수당을 줄 수가 없잖아요. 노조에서 1일 8시간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라는데 그래서 월급으로 체결하면서 본봉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6시간 되면 모터를 끄는거죠. 그만 하겠다고. 왜 안두려웠겠어요. 두렵지만 해야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거죠.

## 와이셔츠 미싱사 임금 인상 투쟁 성공 후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울쑥 울고 부둥켜안고 울고. 우리가 "짹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짹하고 햇볕을 봤다. 그리고 쥐구멍에도 별뜰날 있다는 말이 우리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쥐구멍에서 별뜨는 거다. 쥐구멍에서 별뜨리라고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그랬죠.

## 당시 아름다운 투쟁을 했던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다면...

그때 그자리에 함께해준 동료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거고, 그 때 어린 견습공 애들이 있어서 내가 성장을 한거지...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순애



미싱사로 일하면서 청계피복노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75년 2월 노동교실 퇴장 시위를 비롯하여 광진복장사 임금인상·퇴직금 투쟁, 와이셔츠 미싱사 임금 투쟁, 77년 9.9 결사 투쟁 등에 참여했다.

## 76년도 임금 및 77년 임금인상 예정액

List of Wages in 1976 and Estimates of Wage Increases in 1977

1977 | 26.8x38.8

점퍼, 아동복, 와이셔츠 공장 등의 76년도 품목 당 임금과 77년도 임금 인상 예정액이 기재된 표이다. 77년도 임금 협정을 위해 조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6년 1월 1일 기준													
구분	단위	76년 1월	76년 2월	76년 3월	76년 4월	76년 5월	76년 6월	76년 7월	76년 8월	76년 9월	76년 10월	76년 11월	76년 12월
총계	인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일반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 전문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 기술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 행정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교육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6. 의료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 사법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8. 기타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총계	인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일반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 전문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 기술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 행정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교육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6. 의료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 사법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8. 기타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총계	인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일반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 전문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 기술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4. 행정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 교육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6. 의료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7. 사법직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8. 기타	인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총계	인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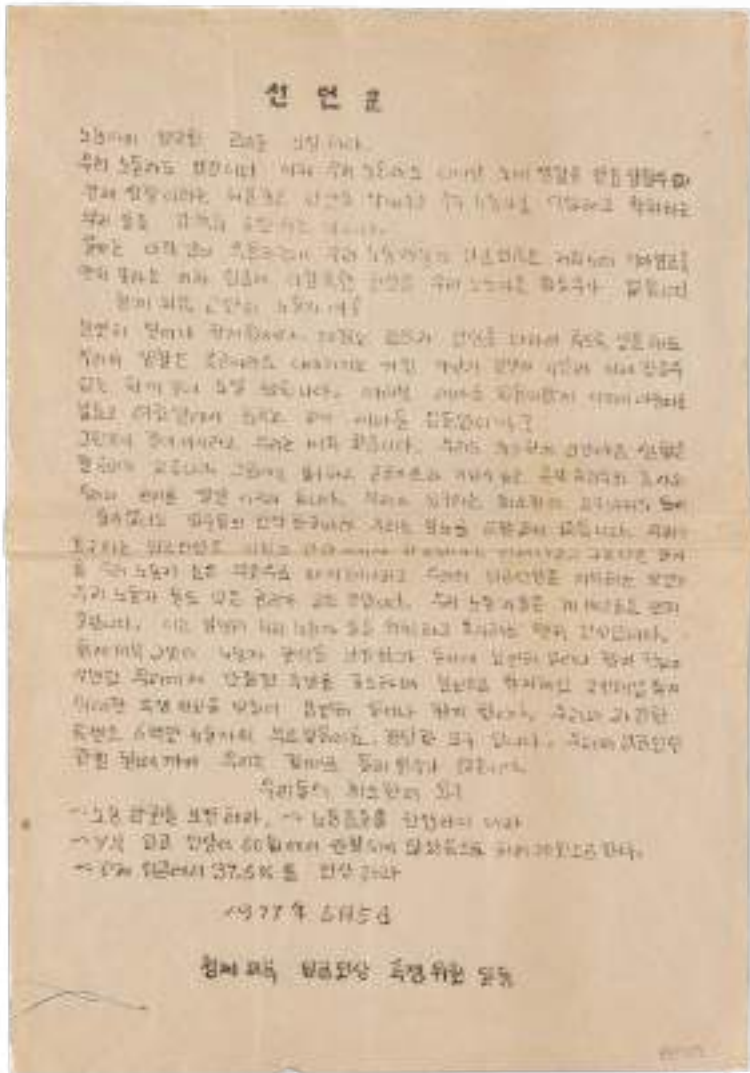


선언문

Declaration

1977 | 38.7x27

와이셔츠 미싱사 임금 인상 투쟁과 관련하  
여 노동 삼권 보장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선언문이다.



우리들의 최소한의 요구

1.노동 삼권을 보장하라. 1. 노동운동을 탄압하지 마라

1.와이셔츠부 임금 인상이 50원에서 관철되지 않았음으로  
최저 70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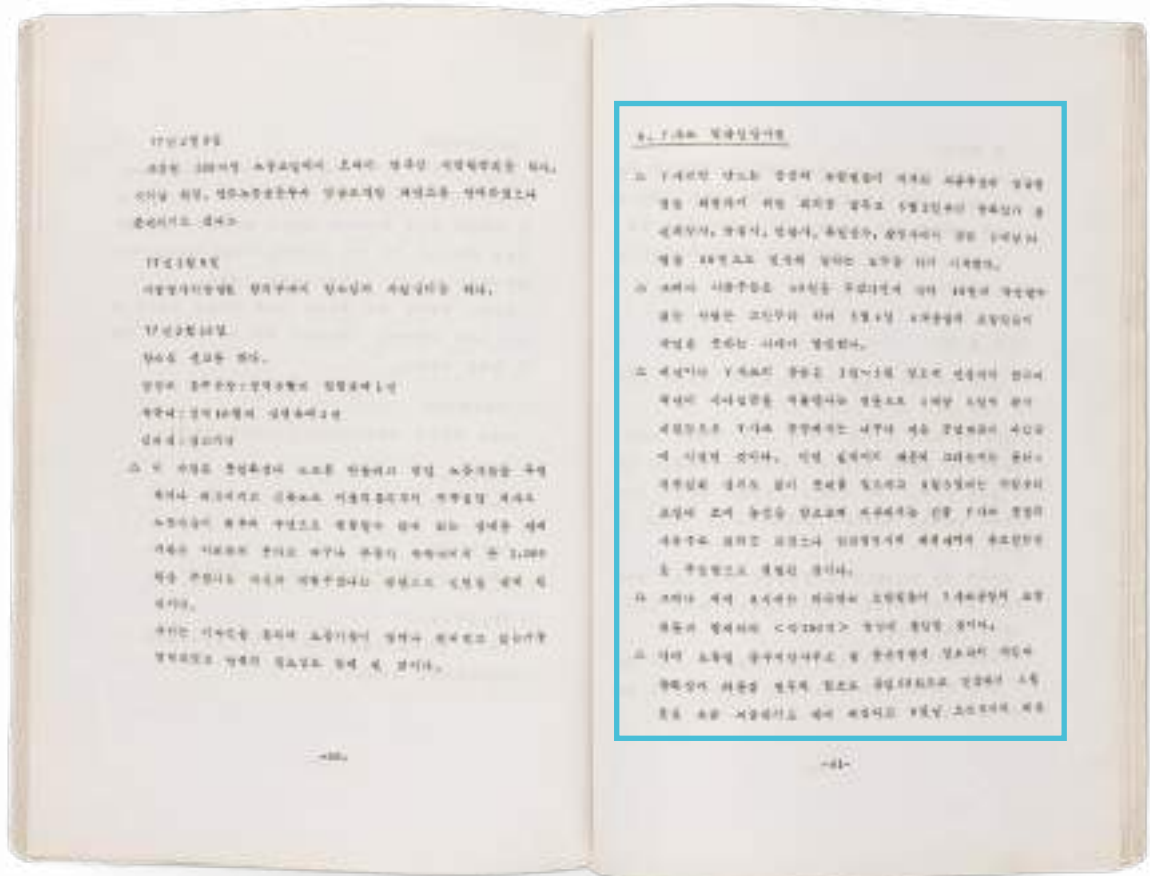
1.전체 임금에서 37.5%를 인상하라

제7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Materials for the Seven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7 | 25.9x18.9x1

와이셔츠 미싱사 임금 인상 투쟁의 내용이 수록  
된 대의원대회 회의자료이다. 와이셔츠 미싱사  
임금 인상 투쟁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등조  
원동원  
써히간

100%  
100%  
100%

우리는  
시간을  
기계가 아니다  
다들 하라

바라  
어린  
가르  
영

노영  
새하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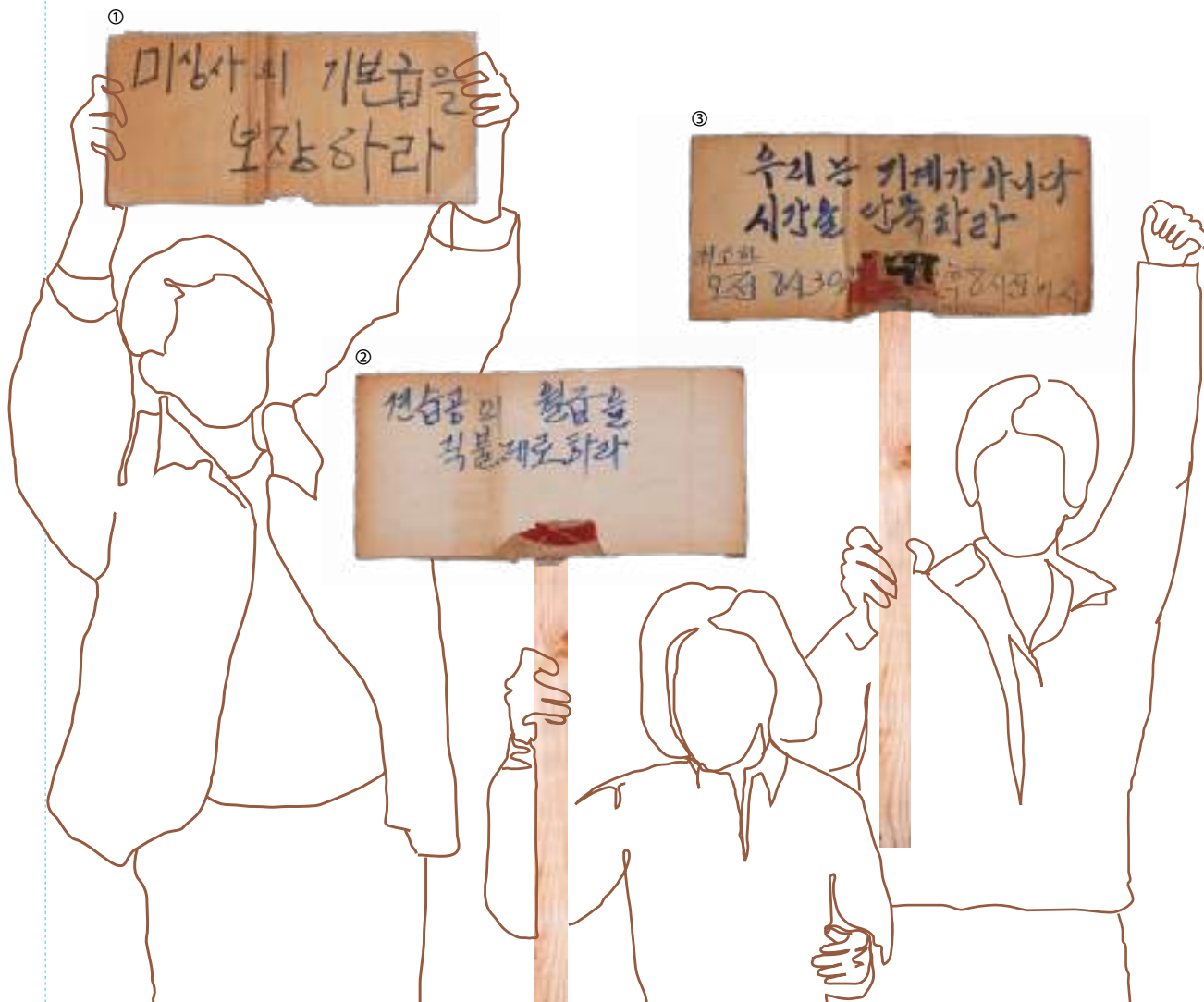
하  
의  
가  
하  
원

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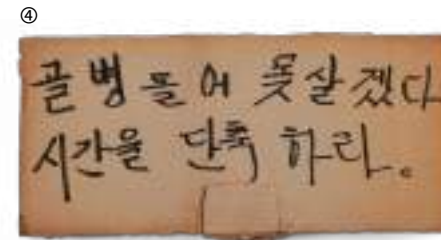


##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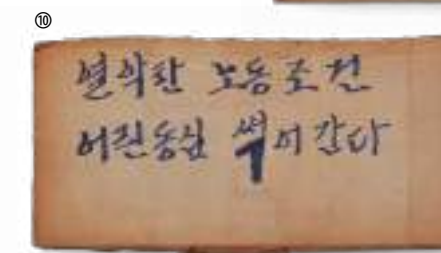
청계피복노조원들이 투쟁 당시 제작한 피켓으로 널판지에 종이를 붙여서 스테이플러로 고정했다. 종이 위에 사인펜으로 임금 인상, 견습공 직불제, 작업 환경 개선 등 노동자들이 필사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노동 환경의 내용을 기재했다.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시위는 피켓에 쓰여진 문구들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연설하고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 ① 미성사의 기본급을 보장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1x44.8
- ② 견습공의 월급을 직불제로 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2.5x45.7
- ③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시간을 단축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1.2x45



- ④ 골병들어 못살겠다. 시간을 단축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2.4x45.8
- ⑤ 배고파 못살겠다 임금을 100% 인상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2.4x45.8
- ⑥ 노동자도 인간이다 죽기전에 살길 찾다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1.3x44.8



- ⑦ 고전태일동지의 뜻을 헛되이 하지말자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3.3x44.2
- ⑧ 앞날의 어머니 배고파 쓰러진다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2.4x45.8
- ⑨ 노동자는 굳게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2.4x45.8
- ⑩ 열악한 노동조건 어린 동심 썩어간다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 23.2x45.3

# 3-2

## 그날의 기억

### Remembering Those Days

여자로 태어난 데다 못 배운 죄로  
나를 위한 요구는 해보지 못했는데,  
일하지 않겠다는 말에 사장이 찢찢매니 정말 기뻐요.  
나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8시에 전깃불을 내려 일을 못 하니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을지상가, 동화상가, 통일상가, 다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투쟁 성공 후, 내 이름과 임금 내용이 적힌  
월급봉투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야, 기쁨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저녁 8시 갑자기 일하던 공장에 전기가 나갔어요.  
모두 “요즘처럼 바쁜 시기의 웨일이지?” 하며 어리둥절했죠.  
근무 시간이 단축된 것을 알고 춤추고 싶었어요.

노동운동의 관심 없던 동료가  
“고맙다.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다.” 라고  
한 것이 가장 기뻐요.



# 우리는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We had a dream.**

Although everything has changed over the years,  
the fierce days of my youth  
are ingrained in my heart.  
Together, grains of sand were able to face giant waves.  
It was we who hung on to our wavering selves.

We had a dream.  
It was to reclaim our own name instead of Assistant No. 0.  
It was to know our rights and own them.  
Bearing in mind those glorious moments  
when we fought for ourselves,  
we get through another day.

Remembering the dream that changed  
the world and myself,  
I can now dare say  
after all this time  
that we were truly beautiful in those days.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변했지만  
내 젊은 날, 치열했던 시간은 마음속에 박혀있습니다.  
함께라서 모래알들은 커다란 파도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잡아준 건,  
결국 우리 스스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0번 시다에서 내 이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투쟁,  
그 빛나는 순간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담담히 살아갑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그 꿈을 떠올리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절 우리, 정말 아름다웠다고.







# 논고

- 1. 유경순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활동과 특징: 조합원 직접 투쟁을 중심으로」
- 2. 안재성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청계노조」

# 1.

##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활동과 특징

### 조합원 직접 투쟁을 중심으로

유경순

#### 1. 들어가며 - 평화시장의 상황과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청계천 평화시장은 1959년 청계천 복개 공사 계획으로 청계천 주변의 판자촌이 철거된 뒤 1961년 시장법에 따라 평화시장 주식회사로 발족했다. 1962년 4월 동신시장, 1968년 10월 통일시장 그리고 1969년 7월 동화시장의 개설로 청계 상가는 전국 규모의 기성복 공급시장으로 위치하며, 내수의 70%를 확보했다.<sup>01</sup>

1975년 청계피복노조 조사에 따르면 평화시장의 전체 노동자 수는 약 2만 5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 80% 정도인 약 2만여 명이 여성 노동자이었다. 직종별 남녀 구성은 여자 노동자가 미싱사, 미싱 보조, 시다, 마도메(완성공)를 담당하며, 남성들은 잠바나 청바지 등 특수미싱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하거나 재단사, 재단 보조, 포장공으로 일한다. 이는 대체로 남녀의 직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취업방식은 대체로 친지 소개, 또는 공장에 붙은 구인 광고나 ‘인간 시장’이라는 평화시장 내부의 자생적인 노동시장도 노동자들의 중요한 취업 통로였다.

임금은 생산 체계에 따라 다른데, 와이셔츠 공장같이 라인 작업을 하면 월급제로 하였고, 아동복 공장같이 일괄공정 체계일 경우 능률급여제로 했다. 능률급여제는 옷 한 벌당 단가를 정해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달 치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작업시간은 1970년 기준 평균 12~14시간 정도였으나 계절적인 소비 수요의 급증에 따라 연장되었고, 일요일 매주 쉬는 곳은 3% 정도였다.<sup>02</sup>

그 때문에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임금 지급 방식,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휴일 작업 등에 불만이 쌓여있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나고, 장례 투쟁의 결과로 청계피복노조 결성이 추진되었다. 당시 삼동친목회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조직된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급조된 것이었다. 1970년 11월 20일 전국연합 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가칭) 결성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최종인)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7일 가입 조합원 560명을 대표하는 56명의 대의원이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의

01 청계피복노조, 『영원한 불꽃-청계피복노동조합 20년사』, 1990, 20쪽.

02 유경순,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활동과 특징』, 『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 선인, 2005, 105쪽.

#### 2. 청계피복노조 초기 활동 (노동 환경 개선 활동)

: 노동실태조사,  
주휴제 실시·심야 작업 금지

결성대회를 했다.

이렇게 결성된 노조의 최우선 과제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노조 활동을 인정받고 조합원을 확보해 노조 기반을 안정화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노조에는 깡패들만 모여 있다”, “전태일이 개인 문제 때문에 비관해서 자살했다”라는 악선전을 퍼트렸고,<sup>03</sup> “노조에 가입하면 해고”라며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했다. 심지어 사용자 측은 노조 간부들의 현장 출입도 통제하고 노동자들이 작업 중 화장실에 가는 것이나 점심시간에 바깥출입 하는 것까지 제한하였다.<sup>04</sup>

이에 노조 간부들은 1970년 12월 21일 평화시장 옥상에 노조 가입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사용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바로 플래카드가 철거당하자, 그 자리에서 노조 간부들은 집단분신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노동청이 주선하여 1971년 4월 9일 평화, 동화, 동신상가 등 4개 시장에 최초의 단일 ‘청계피복 단체협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어서 발효되었다.<sup>05</sup>

#### 노동실태조사

노조는 일상 활동을 시작하면서 근로조건 개선을 지부 전체의 활동으로 전개했다. 근로조건 개선 활동은 사용자들과 직접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에 상호 힘의 관계가 작용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노조가 노동자들과 관계 맺는 중요한 고리였다. 노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던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 활동을 통해 새롭게 노조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조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971년 1차 실태조사는 1월 11일부터 19일 사이에 조합원 288명(남자 67명, 여자 22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차 실태조사는 9월 2일~10월 10일에 조합원 290명을 대상으로, 3차 실태조사는 10월 27일~10월 31일에 노동조건 상태를 파악했다. <sup>06</sup> 실태조사 사업은 1972년에도 진행되었는데, 7월 14일~8월 18일까지 동화상가 미싱사 200명을 대상으로 인적 사항, 근로조건, 의식 문제, 여가 문제, 시장상가 근로자 수 등을 조사했고, 이어 12월 1일~31일에는 이화여대 사회학과 학생 10명의 지원을 받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종 실태조사를 진행했다.<sup>07</sup> 이후 1973년에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YWCA 대학생부 15명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 규모, 주휴제 위반 실태, 야간작업 위반 실태 등을 진행하였다.<sup>08</sup>

또, 1974년에는 2월 18일~26일에 임금제도 개선대책위원회에서 694명을 대상으로 임금 실태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7월 19일 조사는 사업장의 다락 유무에 관한 것으로 다락이 없는 사업장은 전체의 7.8%에 불과하고, 나머지 94.2%가 여전히 다락이 있었다. 이어 10월 20일~25일까지 상집간부들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사업장 규모와 작업공간 크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업장의 평균 면적이 15.6평, 사업장 단위 노동자 수는 17.2명으로, 노동자 1인 평균 면적은

03 아소선 구술, 민중덕 정리, 『어머니의 길』, 돌베개, 1990, 148~149쪽.

04 청계피복노조, 앞의 책, 39쪽.

05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사업보고』, 1971, 연혁.

06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사업보고』, 1971, 58~78쪽.

07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사업보고』, 1972, 38~49쪽.

08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사업보고』, 1973, 35쪽.

0.9평이었다. 이는 공장 시설과 원자재가 차지하는 면적을 빼지 않고 계산한 것을 고려할 때, 작업공간이 매우 비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1월 15일~ 25일까지 상집간부들은 근로 시간에 관해 380명을 표본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10시간인 경우는 2.9%에 불과하고, 10시간 이상이 93.8%이었다. 이 중 1일 근로 시간이 14시간 이상은 5.3%나 되었다. 주휴제가 시행(일요일마다 쉬는 것)되는 곳도 40.3%에 불과하고 59.2%가 일요일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주휴제에 대한 의견은 “매주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80명 중의 308명(91%)이나 응답했고,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38명(10%)만 제외하고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고 있어, 주휴제 실시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에게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09</sup>

주휴제 실시와 심야 작업 금지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조는 주휴제 실시,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기로 했다.

주휴제 실시는 주로 노조에서 일요일 근무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노사협의회에서 주휴제 실시를 결의하게 한다. 사용주들은 노사협의회 자리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노조는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에 요구하여 사용주들이 참여하도록 압력을 넣게 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에서 주휴제를 결정해도, 실제 현실은 사용주가 일요일에도 일하러 나오게 하면 노동자들은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노조 간부들과 근로감독관들이 같이 단속하기 위해 일요일에 상가를 돌아다녔다.<sup>10</sup>

노동시간 단축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노조는 처음에는 ‘8시간 근무제’를 노사협의회에 요구했으나, 작업 현장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용주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노조는 차선으로 ‘저녁 8시에는 작업을 끝내는 것=심야 작업 금지’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즉, 철야 작업은 어떤 식으로라도 저지하기로 해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 역시 실제 상황은 오후 8시에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오후 8시만 되면 노조 간부들이 작업을 단속하러 상가를 돌아다녀야 했다. 노조가 단속할 권한은 없었으나, 노조는 확인서를 만들어서 오후 8시 넘어도 작업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공장장에게 확인서를 쓰게 했다. 확인서 내용은 “몇 월 며칠 몇 시, 현재 작업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였다. 이 확인서는 사용주 측을 협박하는 용도였다. 그리고 나면 노조 간부들이 작업장의 불을 내리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매일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간혹 저항하는 사용주는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sup>11</sup>

이처럼 주휴제 실시와 심야 작업 금지를 위한 단속 과정에서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1975년 12월 14일은 둘째 일요일이자 정기 주휴일이었는데, 이날 노조 간부들이 주휴제 실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날 을지상가(공장 67개)에서는 약 30개 업체가 주휴제를 위반하였는데, 노조 간부들이 사용주 대표들과 상의하여 단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단전하려 했다. 그런데 주휴제 위반 사업장 사장들은 “근로감독 과장이 일

09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사업보고』 1974, 61~68쪽.  
10 최종인 구술, 2004.7.14.  
11 임현재 구술, 2004.7.13.

요일이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휴일을 주면 된다”고 했다면서 노동조합이 억지를 부린다며 작업을 하였다.

그동안 노사협의회 결의와 노조 간부들의 단속으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는 주휴일의 질서가 파괴된 것에 분노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 40여 명이 노동청 서울 중부 지방사무소에 물러가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들은 “근로감독 과장의 발언에 대한 진상 여부와 주휴제 철저히 이행, 작업시간 오후 8시 종업, 다락철거, 건강진단 100%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노동자들은 근로감독 과장에게 “12월 16일부터 작업시간 단축 등을 단속하겠다. 일요일이 아닌 날의 휴일 실시 등은 사용주가 잘못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를 즉각 시정 조치하여, 일요일에 주휴일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을 받고 돌아왔다.<sup>12</sup>

그 결과, 12월 16일 밤부터 저녁 8시에 전체 시장상가가 일제히 작업을 끝냈다. 상가마다 이 시간에 단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일주일도 채 못되어 백지화되었다. 이처럼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장시간 노동으로 지쳐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였다.

체불임금 문제 해결과 임금인상 활동

평화시장 노동자들은 노조의 활동을 보면서 점차 자신들의 문제를 노조에 진정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진정은 1971년 93건, 1972년 86건, 1973년 80건, 1974년 56건, 1975년 83건 등인데 대부분 체불임금 문제였다. 1974년부터는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청구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차츰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sup>13</sup>

체불임금 문제는 일하고도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여서 시급히 해결해야 했다. 영세사업장 사용주들은 임금체불을 거의 사습적으로 했으며, 이런 현상은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사용주들은 시간을 끌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날마다 임금만 받으러 다닐 수가 없었다. 생계를 위해서는 바로 다른 공장에 취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들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했다.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가면 손찌검을 해서 내쫓는 사업주들도 많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청이나 경찰청에 가서 호소해도 시간만 낭비하고 오히려 망신당하기 일쑤였다.<sup>14</sup>

노조가 생기자, 노동자들은 점차 노조에 문제를 호소했다. 노동자의 진정을 받은 노조 간부들은 사업주들을 노조 사무실로 불러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대화로 안 되면 협박과 폭력을 써 받아냈다.<sup>15</sup>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노조를 ‘문제 해결을 해주는 대리기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노조는 1973년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3년 동안 손낼 수 없었던 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 교섭과 공동 권유 활동을 진행했다.<sup>16</sup> 1974년에는 4개 시장의

12 청계피복노조, 앞의 자료, 51쪽.  
13 유경순, 앞의 글, 120쪽.  
14 유경순, 위의 글, 121쪽.  
15 유경순, 위의 글, 121쪽.  
16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사업보고』 1974, 77~95쪽.



단체협약 갱신체결과 더불어 동대문 종합시장을 신규 체결했으며 주변 노사협의회 운영을 활발하게 전개했다.<sup>17</sup>

실제 노사협의회를 하려면 노동청에 업포를 넣고, 근로감독관이 사용주들을 움직이도록 해서 회의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어야 했다. 노조 초창기에 사용주들은 노조가 파업한다고 해도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 사무소장이 사용주들에게 노사협의회에 나가라고 연락하며 강제하는 식이었다.

이처럼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을 압박해서 사용주들이 노사협의회에 나오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했다. 협의 내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부 측의 대리인을 압박해 그 내용을 근거로 노조 간부들이 직접 각 사업장에 강제하는 방식이었다.

노조 집행부는 주휴제 실시, 심야 작업 금지, 체불임금 문제 해결 등과 같은 활동을 목숨을 걸고 해결하려 노력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조 집행부는 주체 역량의 한계 속에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했다.

노조가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공식 조직으로 인정된 뒤 개별 사용주와 노조의 힘 관계는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제였지만, 점차 노조가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는 초기 노조를 인정받기 위한 ‘극한적’ 방식의 투쟁에서 한 단계 나아가 노사관계가 상대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 활동 방식은 노동자들을 노조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소모임 활동이나 새마을 노동 교실 활동과 맞물려서 점차 조합원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중견 조합원 양성을 위한 노조의 노력이 결합하면서 극복 가능성을 보였다.

### 3. 중견 조합원들의 등장—노동 교실 확보 투쟁과 전태일 추도식

청계피복노조는 1975년부터 활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삼동친목회원과 다수 중견 조합원으로 구성된 투쟁적인 조합원들이 조합 활동의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70년대 전반기에 소모임 활동과 비공개 모임을 통해 형성되어 초기 지도부와는 달리 노동조합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한 세대였다. 이들은 노동교실 확보 투쟁과 전태일 추도식을 기점으로 노조 활동을 펼쳤다.

당시 노동교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노조는 정부와 사용주 측의 지원으로 1973년 ‘새마을 노동교실’을 개관했다. 그러나 노동교실 개관 직후 노조는 사용주들과 노동교실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노동교실 설립추진위원장인 유인규 사장은 1973년 5월 23일 추진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개칭하고 노동교실을 자신이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노조가 운영을 담당한다는 초기의 취지를 뒤엎은 것이다. 노조는 항의하며 사용주 측과 정부와 대립하며 ‘노동교실 운영의 독자성’을

<sup>17</sup>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사업보고』, 1975, 95~100쪽.

확보하려 했다. 노동교실을 둘러싸고 정권·사용주 측과 노조는 계속 대립했다.<sup>18</sup>

이에 1975년 2월 7일, 집행부와는 별도로 중견 조합원들과 조합원 250여 명이 노동교실에 모여 노동교실을 되찾기 위한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운영개선 촉구, 근로자의 교실은 근로자의 대표인 노조에 넘겨줄 것과 노동청 당국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7시간 동안 농성했다. 노동청 중부소장, 지부장과 농성자 대표 5명, 그리고 동화상가주식회사 측이 참석해 대책을 협의했다. 그 결과, 사용주 측이 2월 10일까지 노동교실 처리 방안을 제시하기로 약속하고, 노동자들은 농성을 해산했다. 이후 몇 차례의 협상 결과, 마침내 3월 19일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노동교실을 사용주로부터 노조가 인수하였다.<sup>19</sup>

노동교실 확보 투쟁은 이전의 몇몇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과는 달리 처음으로 청계피복노조의 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 노동교실의 ‘독자성’을 확보한 것이었다. 나아가 이 투쟁은 정부와 사용주 측의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노동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특히 이소선을 중심으로 양승조, 민종덕 등 일부 노동자들은 비공개 모임을 조직했다. 이들이 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조 활동의 계기로 잡은 것은 전태일 추도식이었다. 그동안 추도식은 작업하는 평일 낮, 묘소에서 추도식을 하므로 일반 노동자들이 참석할 수 없었다. 이에 중견 조합원들은 주위 사람들을 모아서 ‘전태일 동지 5주기 추모위원회’를 만들어 집행부 주도의 추도식과는 별도로 조합원들이 작업을 끝내고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추도식을 기획했다.

11월 13일 저녁 8시, 조합원들이 추도식을 노동교실에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국민 의례, 묵념, 추모예배, 전태일 수기 낭독, 추도사와 추도시 낭독, 끝으로 결의문 낭독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부경찰서 형사들과 중견 조합원 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결의문 낭독 이후 몇몇 조합원들이 그 자리에서 농성하려 했으나, 노조 간부들의 만류로 행사는 마무리됐다.<sup>20</sup>

### 4. 조합원들이 중심이 된 노동시간 단축 투쟁

노동교실 확보 투쟁과 전태일 추도식을 추진해 온 중견 조합원들은 이제 투쟁의 방향을 근로조건 개선 투쟁에 맞춰서 모임과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노조 조직체계와는 다른 독자 활동이었다. 추도식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명분을 세운 이들은 조직을 더 확대했다. 추모행사를 치른 ‘전태일 추모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산울림회, 리본침회 등의 소모임들과 연합하여 ‘근로기준법수호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특히 가장 핵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준비했다. 노동자들에게도 배우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했다. 중견 조합원에게는 ‘노동자들을 의식화시키려는데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작업이 보통 밤 10시, 12시에 끝나니 조합원들의 모임이나 학습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sup>18</sup> 유경순, 앞의 글, 153쪽.

<sup>19</sup>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사업보고』, 1976년, 127~128쪽.

<sup>20</sup> 이소선 구술, 민종덕 정리, 앞의 책, 238~243쪽.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다시 불붙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75년 12월 14일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항의하여 노동청 서울 중부지방사무소가 ‘12월 16일부터 작업시간 단축’을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12월 16일 밤부터 저녁 8시에 시장상가가 일제히 작업이 끝났으나, 사용자 측은 저녁 8시 작업 종료를 일주일도 안 되어 무시했다.

이에 1975년 12월 23일 밤 8시, 노동교실에 ‘근로기준법수호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합원 200여 명이 모여 노동청과 사용주의 약속 불이행을 규탄했다. 이들 중 50여 명이 ‘주휴제 전면 실시, 근로 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다락철거), 건강진단 시행, 임금인상’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했다. 농성 중에 한 조합원은 손가락을 깨물어 “끝까지 투쟁하자”라는 혈서를 쓰기도 했다.

다음날인 12월 24일 오전에 경찰이 출동하여 온갖 공갈과 협박을 하였다. 농성 조합원들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굳게 뭉쳐 경찰의 해산 중용과 협박을 물리쳤다. 잠시 경찰이 철수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농성장에 들어와 회유하기 시작했다. 농성 조합원들은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저녁 8시에 모든 시장상가의 전깃불을 내릴 것과 다락을 내년(1976년) 3월까지 완전히 철거시키겠다”라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오후 1시경 노동청 중부지방사무소 소장과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이 나타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농성 노동자들은 농성을 풀었다.<sup>21</sup> 노동시간 단축과 다락철거의 요구가 관철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다음 날부터 시행이 되고 이후 단체협약에 명시되었다. 다락철거는 소방법 위반으로 1976년 3월까지 사장 상가에서는 완전히 철거되었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 이후 중견 조합원들은 더욱 고무됐다. 중견 조합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임을 확대해 ‘햇불회’를 만들어 이 조직을 중심으로 ‘임금인상 투쟁위원회’를 만들었다. 조합원들의 반응도 좋았다. 노동시간이 단축되자 노동자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 노동교실로 모이기 시작했다.<sup>22</sup>

중견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활동은 노동시간 단축 투쟁 이후 좀 더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은 노조의 변화였다.

노조 활동 초기인 1970년대 전반기의 노동자들은 소모임이나 교육 활동을 통해 노조에 참가하였다면, 1970년대 후반기 들어 노동자들은 중견 조합원들이 주도하는 투쟁을 매개로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주체로 나서면서 노조 활동의 폭을 넓혔다. 조합원들은 투쟁 과정에서 사용주와의 대립적 관계를 인식했으며, 노동자들이 결집할 때 갖는 힘을 직접 체득했다. 특히 개별 사용주와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대부분 노동자의 성과로 끝났으며, 그 결과는 소모임의 구성이나 소모임들의 연대조직 구성이라는 조직 성과로 모였다.

<sup>21</sup>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사업보고』, 1976년, 34쪽.

<sup>22</sup> 민중덕 인터뷰, 2003.5.

## 5. 1976년 시다 직불제 확보, 임금인상 그리고 공임인상 투쟁<sup>23</sup>

노동시간 단축의 성과를 확보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가 투쟁에 참여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자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들의 불만과 임금인상 요구가 터져 나왔다. 우선 잠바집 객공 미싱사들은 수입이 줄어들자 “왜 노조에서 시간 단축을 해서 우리 수입을 줄게 하나?”며 노조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견 조합원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장기적인 우리 계획은 임금이 그대로 보전되도록 하는 거다”, “객공 미싱사 같은 경우는 시다 임금을 자기 임금에서 떼어 주는데, 그 시다 임금을 사용자가 직접 주게 하면 그만큼 임금이 보전되지 않겠냐”라며 설득했다. ‘시다 임금 직불제’는 그동안 고용주가 시다들에게 임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하는 방식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임금의 간접 지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방식이었다.

중견 조합원들은 ‘시다 임금 직불제’를 투쟁 고리로 잡아 활동했고, 평화시장의 임금자, 정선희 등 일류기술자를 중심으로 영향력 있는 몇몇 잠바업체 노동자들이 파업했다. 파업으로 표현된 노동자들의 요구는 하루 만에 관철됐다. 이 싸움은 이어 대인복의 퇴직금 지급 투쟁으로 연결되어 노동자들이 퇴사 뒤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투쟁에 집행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다가 사용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만 참여했다. ‘시다 임금 직불제’ 싸움은 대인복 집 노동자들이 진행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시장상가 전체의 임금인상은 노조에서 매해 3월에 공식적인 단체교섭 체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중견 조합원들은 임금협상이 교섭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투쟁을 통해 집행부의 교섭력을 강화해 단체교섭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임금인상 시위를 3월 10일과 3월 26일, 두 번에 걸쳐 계획했는데, 정보가 누설되어 실패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사용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노조의 교섭력을 높였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둘러싼 투쟁의 기획은 중견 조합원과 노조 집행부와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으며, 이 투쟁을 통해 중견 조합원들은 노조의 주도권을 잡았다. 결국, 1976년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인 집행부는 책임지고 일괄 사퇴했고, 뒤를 이어 이승철 집행부가 등장했다.

이승철 집행부가 등장한 뒤 노조는 조합원들을 업종으로 조직하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장의 분산성과 업종의 다양성을 극복하면서 조합원을 조직하려는 방침이었고, 노동자들의 일상적 요구를 현장의 투쟁으로 조직하려는 시도였다.

노조는 업종 중에서 임금형태, 근로조건 등 작업조건이 비슷한 와이셔츠 업종을 중점적으로 조직했다. 와이셔츠 업종은 옷의 디자인이 단순해서 어떤 공장에서 옷을 만들더라도 작업 형태가 비슷하고, 따라서 근로조건도 공장마다 비슷하다. 또, 와이셔츠 업체는 다른 업체보다 비교적 규모가 커서 대개 한 공장에 노동자 숫자가 30명 안팎이었고, 다른 업종에 비교해 계절을 타지 않으므로 비성수기가 짧다.

노조 간부들은 청계천의 모든 와이셔츠 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와이셔츠 업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에리(카라) 미싱사를 조직하기로 했다. 노조 간부들은 각 업체의 오야(책임자) 미싱사 모임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노

<sup>23</sup> 이 활동 관련해서는 (유경순, 앞의 책, 159~160쪽)을 참조하여 작성.

동조합법 등을 공부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은 ‘공전 인상’의 필요에 공감했다. 이들은 일반 미싱사, 시다들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서 ‘공전 인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 3여 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던 것에 불만이 쌓여있었다.

공전 인상 투쟁은 ‘공임 34원을 5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공장마다 일시에 요구하는 것이었다. 5월 2일 신순애를 중심으로 각 공장 오야 미싱사들이 앞장서자, 전체 노동자들이 투쟁에 참여해 ‘공전 50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사용주들이 협상에서 불성실하고 고압적 자세로 나오자, 노동자들은 분개해 파업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sup>24</sup>

1977년 5월 5일, 오야 미싱사들이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노동교실로 불러 모아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교실에 약 250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 임금인상의 구호를 외쳤다. 노조 간부들은 파업 소식을 알리는 선전물을 시장상가에 나누어 주고, ‘37.5% 인상’이라고 쓴 리본을 조합원들에게 달아주었다. 중부경찰서 정보과에서는 강제 해산으로 사건을 확대시키기보다 와이셔츠 업체 사장들에게 노동자들과 협상하도록 강제했다. 노사협의회가 진행됐다. 파업 결과, 노동자들은 공임을 50원 인상할 수 있었다.<sup>25</sup> 이러한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노조 간부들의 의식적인 노력과 더불어 신순애 등 사업장에 영향력을 갖고 있던 고참, 일급 미싱사의 힘이 노동자들의 실질적 요구와 맞물렸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이 투쟁을 기점으로 와이셔츠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한 단결의 힘’을 인식해 갔으며 좀 더 노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 6. 노조 탄압에 맞선 조합원들의 투쟁

1970년대 후반기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면서 노조의 역량이 성장하였다. 이에 사용주들은 노조 간부를 폭행하거나 투쟁을 주도한 노동자들을 해고하였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 했다. 이러한 탄압 사건 중에 유진산업의 집단해고 사건을 살펴보면, 1976년 7월 초에 노동자 8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자, 회사 대표가 7월 19일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83명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였다. 83명의 조합원은 7월 19일 오전부터 공장 정상 가동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에서는 이 투쟁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고, 7월 20일 조합원 50여 명이 이 농성에 동참했다. 노동자들이 계속 투쟁을 벌이자, 결국, 사용주가 굴복하여 ‘6개월 이상 근무자는 2개월분의 해고수당 지급, 6개월 이하 근무자는 1개월 해고수당 지급과 노임 지급’을 약속하면서 투쟁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sup>26</sup> 이 투쟁은 이 시기에 노조 탄압에 맞서 현장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권 역시 청계피복노조를 탄압하였다.<sup>27</sup> 유신체제 후반기 들어 학생운동, 재야 민주세력의 반유신 투쟁과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격화되자, 유신정권은 반유신운동,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정권은 청계피복노조에 대해서

<sup>24</sup> 신순애 인터뷰, 2003.3.26.

<sup>25</sup> 이소선 구술, 민중덕 정리, 앞의 책, 296~301쪽.

<sup>26</sup> 유경순, 앞의 책, 162~163쪽.

<sup>27</sup> ‘1977년 9·9투쟁’관련 내용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사업보고1977년(38~63쪽) ; 민중덕, ‘1977년 9월 9일 청계피복노조 결사투쟁사건」(『기억과 전망』여름호, 2004) 등 참조 작성

도 탄압의 빌미를 잡으려 했다. 1977년 7월 19일, 경찰은 ‘긴급조치 위반과 청계피복노조 배후 조종 혐의’로 구속된 장기표의 재판 과정에서 이소선이 검사와 재판장에게 항의한 것을 ‘법정모독죄’라 하여 구속했다. 동시에 수백 명의 경찰이 노동교실을 완전히 포위해 봉쇄했다.

조합원들과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이소선의 석방과 노동교실 강제폐쇄 철회’를 위해 움직였다. 7월 29일 종교단체와 민주화운동 단체에서 ‘평화시장 사건 대책위원회’를 노조 사무실에서 결성하면서 <전태일 어머니(이소선)는 왜 연행되었나?> 라는 성명을 발표한 뒤 노동교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또, 집행부 가운데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비공개로 모여 싸움을 비밀스럽게 추진했다. 9월 8일에 <결사決死 선언>이란 제목의 선전물이 시장상가 일대에 뿌려졌다. 9월 9일 조합원들은 ‘결사 선언’을 하고 노동교실 사수 투쟁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어머니 즉각 석방, 폭력 경찰 처단, 노동운동 탄압 중지하와 노동 삼권 반환”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4개의 방마다 입구까지 쳐들어온 경찰들이 휘두르는 곤봉에 대항해 형광등, 거울, 책장 유리를 깨뜨려 유리 조각들을 집어 던졌고, 남성 노동자들은 걸상에서 뺀넌 몽둥이로 경찰에 대항했다.

그러나 20여 명의 경찰이 방안까지 들이닥쳤다. 민중덕이 투신, 4층에서는 신승철(신광용)이 유리 칼로 두 차레 배를 가르고, 박해창은 유리 조각으로 동맥을 끊으려 15cm가량 그었다. 동시에 노동자들은 방 안에 있던 신문지를 모아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며 경찰들을 향해 “들어오면 다 같이 죽자!”라고 울부짖었다. 노동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모두 창문으로 몰려가 기동 경찰들에게 “어머니를 당장 모셔와라! 모셔 오지 않으면 모두 다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오후 6시, 김주삼과 신승철(신광용)의 활복 시도, 전순옥의 투신 시도가 있었고, 임미경도 투신을 시도하면서 “평화시장에서 남자 한 사람(전태일) 목숨 바쳤으니까 제2의 전태일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 단 사람 희생할 것 없이 내가 죽겠다!”라고 소리쳤다.

노조 지부장이 올라와 요구를 관철시킬 테니 농성을 풀 것을 권유했다. 밤 10시경에 노동자들은 계속 피를 흘리는 신승철(신광용), 박해창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과 지부장의 입장을 살려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그러나 농성을 풀고 나온 노동자들은 전체가 중부서로 끌려갔다.

‘1977년 9·9 노동교실 사수 투쟁’은 1970년대 민주노조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자해, 투신 등의 투쟁방식을 보였다. 이 투쟁이 갖는 의미는 유신정권이 한계 지은 테두리를 넘나드는 ‘자주성’ 확보의 모범적 투쟁이었다. 그러나 노동문제의 사회화 방식이 지도부를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자들과 괴리를 낳은 면도 있었다.



## 7. 1970년대 청계피복노조 활동의 특징과 의미

### 조합원 직접 투쟁을 중심으로

1970년 11월 27일 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되어 1971년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노조는 일상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 전반기 노조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 노조가 가장 집중한 활동은 노동조건 개선, 특히 주휴제 실시, 심야 작업 금지, 체불임금 문제 해결 등이었다. 그 이유는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조 집행부는 주체 역량의 한계 속에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했다.

활동 방식은 노조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을 압박해서 사용자들이 노사협의회에 나오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했다. 협의 내용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역시 근로감독관들과 노조 간부들이 직접 각 사업장을 감시하며 결정 사항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노조가 노사협의회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공식 조직으로 인정된 뒤 개별 사용자와 노조의 힘 관계는 폭력과 협박에 의한 강제였지만, 점차 노조가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는 초기 노조를 인정받기 위한 ‘극한적’ 방식의 투쟁에서 한 단계 나아가 노사관계가 상대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 활동 방식은 노동자들을 노조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중견 조합원 양성을 위한 노조의 노력이 결합하면서 극복 가능성을 보였다.

1975년 노동교실 확보를 위한 투쟁으로 시작된 1970년대 후반기에는 중견 조합원 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조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기 노조 활동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첫째, 전반기 노조의 근로조건 개선 활동이 간부들 중심이었다면 1975년 이후 투쟁 주체는 중견 조합원에서 소모임 구성원으로 나아가 현장 노동자로 확대되면서 점차 투쟁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높아졌다.

둘째, 투쟁방식의 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전반기에 소수의 극단적 자해, 협박, 폭력, 진정 등의 방식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주로 노동교실에서 농성 투쟁이었으며,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파업 투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 외 실패했으나 임금인상 거리 시위를 시도하기도 했다.

셋째, 노동자들의 요구도 전반기에는 근로조건 개선에 머물렀다면, 후반기 들어 ‘노조 운영의 독자성’, ‘전태일 정신의 현장 투쟁화’ 같이 노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확장됐다.

넷째, 1976년 이승철 집행부에서 조직한 와이셔츠 업종 노동자들의 공임투쟁을 제외한 나머지 투쟁은 노조 집행부가 바뀌었으나, 여전히 지부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즉, 국가보위법, 유신헌법에서 사실상 노동자 단체행동 금지, 긴급조치법 등으로 공개적으로 대중을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는데, 특히 청계피복노조에는 중앙정보부, 노동청, 경찰정보과 형사가 항시 노

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노조 지부장의 동태는 항시 노출되어 있으며 1976년 임금인상 시위계획이 사전 발설되어 무산된 경험 등으로 지부장을 비공개 투쟁 준비에서 제외했다. 또한, 투쟁을 준비하는 중견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와 별도로 투쟁을 벌여 될 수 있으면 노조에 직접 타격이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요인은 대중투쟁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투쟁 사안은 동원 방식이 비공개로 소모임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달리 개별 사업장 문제인 경우는 현장의 작업장을 통해 노동자들을 동원했기에 대중 동원과 대중투쟁이 가능했다. 현장 내의 투쟁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여성 일류 미싱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들의 일상적 관계와 작업장 안에 가진 영향력으로 대중 동원이 가능했다.

다섯째, 1977년 ‘9·9 노동교실 투쟁’처럼 정권의 직접적 탄압에 대항한 노동자들은 격렬한 투쟁을 했으나 투쟁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했다. 그러나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민주노조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정권에 대항한 투쟁과 달리 일상적인 사용자들과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목적을 거의 이루었다. 이처럼 청계피복노조는 개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 있었다.

여섯째, 초기 중견 조합원들의 투쟁을 계기로 계속된 투쟁은 참여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통해 요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세력이 단련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견 조합원 중심의 투쟁은 소모임들의 결합, 투쟁조직의 형성으로 발전했으며 새로운 투쟁은 더욱 확대된 투쟁조직을 만드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투쟁과 조직 활동을 통해 성장한 조합원들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노조 활동의 중심인물로 성장했다.

#### 참고 문헌

##### 인터뷰 자료

최종인 인터뷰 (2004.7.14.)

임현재 인터뷰(2004.7.13.)

민종덕 인터뷰(2003.5/2005.1.15)

신순애 인터뷰 (2003.3.26.)

##### 문헌 자료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사업보고』, 1971~1979

민종덕, 『1977년 9월 9일 청계피복노조결사투쟁사건』 『지역과 전망』 여름호, 2004

유경순, 『1970년대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활동과 특징』 『1970년대 민중운동 연구』 선인, 2005

이소선 구술, 민종덕 정리, 『어머니의 길』 돌베개, 1990

이태호, 『불꽃이어 이 어둠을 밝혀라-70년대 여성노동자의 투쟁』 돌베개, 1984

장명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의 결성과 운영에 대한 실증적 고찰』 고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1

청계피복노동조합, 『영원한 불꽃- 청계 노조 20년 투쟁사』, 199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28 유경순, 앞의 책, 166~168쪽.

# 2.

##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청계노조

### 안재성

누가 내게 청계노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답하겠다.

‘사람다움’이란 단어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풀이되겠지만, 여기서 사람다움이란 경제적인 안정이나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존중받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곧 자기 자신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말이다. 이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일이자, 인류의 오늘을 만든 밑바탕이라고 본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곧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란 뜻이다.

청계노조는 관련된 수많은 사람에게 바로 이것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곳이다. 1970년 11월, 전태일 열사의 친구들과 이소선 어머니가 청계피복노동조합을 결성했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좋았다. 소위 개발독재와 이에 순응하는 어용 노총의 통제 아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1천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세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 가혹한 시대 상황에서 전태일의 친구들과 어머니라는, 다 해봐야 열 손가락에 꼽히는 극소수 선각자들이 일으킨 변화는 대단했다. 그 시작은 전태일이었으나, 친구들과 어머니가 없었다면 열사의 고귀한 희생은 허무하게 잊혀졌을 것이다.

벌써 20년 전, 청계노조 조합사인 <청계, 내 청춘>을 쓰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감동을 준 이들은 살아생전 전태일 열사의 친구들이었다. 필자도 1980년대 중반 비합법 시절에 잠시 청계노조에서 일한 적이 있지만, 당시 70년대 선배들이라면 직접적인 조합활동에서 떠나 활동비를 지원하는 분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제대로

취재하면서 많이 놀라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종인, 이승철, 임현재, 김영문, 신진철 ...

친구의 분신을 계기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전태일이 아니라 본인들이었다. 우연히 알게 된 친구 전태일이 분신을 하는 바람에 떠밀려 노동운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다. 애초에 전태일과 같은 생각으로 바보회와 삼동회에 가담했고, 분신 당일 시위도 함께했으며 친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앞장서 싸운 이들이다. 그리하여 최악의 노동 조건에 신음하던 평화시장 2만여 노동자의 삶을 조금이나마 변화시켜 나갔고 그 영향으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역사적 인물들이다.

훗날 노동 열사가 발생한 다른 현장에 취재하러 가서 살아생전 열사와 함께했던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항거의 의미로 죽음을 택한 열사만이 아니라,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이 모두 열사와 다름없구나하는 느낌이었다. 죽음까지 결행한 열사와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열사보다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싸워왔고 또 싸울 사람들이었다. 열사의 동지들을 보면, 열사보다 나은 사람도 없고 열사보다 못한 사람도 없다는, 곧 살아있는 열사들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투쟁으로 시작해 조합 결성과 수호를 위한 투쟁들, 조합원 확대와 탄압을 물리치기 위한 수다한 싸움에 꼬박 10년의 청춘을 바쳤던 전태일의 친구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열사들이었다.

지혜롭고 인화력이 있는 데다 따뜻한 성품으로 조합의 만형 역할을 했지만, 내면에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불길을 품은 최종인, 두뇌가 총명하고 행동이 기만한 데다 맺고 끊음이 명확해 이론적 지도자 역할을 한 이승철, 우직한 일꾼 같은 저돌적인 성격에 언변도 뛰어나 대중조직에 탁월했던 임현재,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이라 전태일과 가장 친했고 조합원들을 잘 품은 김영문, 다소 껄렁하고 참을성이 없어 문제를 일으키곤 했으나 강한 전투력으로 초창기 노조를 지켜준 신진철 등, 모두 친구의 분신이라는 충격을 이겨내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친구의 뜻을 계승한다.

초창기 노조집행부가 하나같이 옳고 그름에 예민하고 성격이 급한 데다 워낙 조합 활동이 힘들다 보니 술자리에서 사소한 일로 주먹질까지 하며 싸우는 일도 잦았으나 곧 바로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돌아갔다. 구속과 연행 등 정부의 탄압 때문에 임기를 온전히 마친 집행부가 없을 정도로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합법 시기 조합을 지키고 성장시킨, 지금까지 55년째 전태일재단과 청계 노조를 지키고 있는 전태일의 친구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열사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름다운 전태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전태일 열사를 아름다운 사람이라 불려왔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아름답다는 형용사는 전태일만 아니라 삼동회 친구들 모두에게 붙여주어야 할 찬사이다. 나아가 초창기 청계노조를 지킨 여성 노동자들 모두에게 붙여주어야 할 찬사이다.

삼동회원들이 노동조합의 기초를 놓았다면, 그 위에 청계노조라는 크고 아름다운 건물 지어 올린 이들은 자발적으로 노조를 찾아온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적게는 16살부터 많게는 서른까지, 누구보다 넓은 마음을 가졌던, 따뜻하지만 정의로웠던, 진정 아름다운 여성들이었다.

이들의 노조 참여는 자발적으로 시작되었으되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밟아 이뤄진다.

청계천의 산증인이던 박명옥이 전태일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들은 것은 분신 사건이 난 직후였다. 사장들은 깡패 하나가 스스로 분을 못 이겨 불에 타 죽었으니,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으나 박명옥은 시장 현실을 개선해 보려다가 죽은 사람에게 강한 호감을 느낀다. 얼마 후, 죽은 이의 엄마가 평화시장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에 앉아 있다는 말을 들은 박명옥은 혼자 조용히 찾아가 계단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던 이소선 어머니의 손등에 자기 손을 얹으며 위로하다가 기어이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찾아가간 박명옥은 노조의 초대 운영위원으로 시작해 지부장 직무대행까지 7년간 청계노조의 큰누나요 큰언니로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

나이 16살에 불과하던 동문시장 미싱사 임금자는 전태일의 분신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한 명이었다. 점심시간에 국숫집 앞에 줄을 서 있다가 유리창 너머로 전태일이 불길에 휩싸여 뛰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너무 놀라 점심도 굶고 돌아와 일을 하는 내내 죽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아팠던 임금자는 노조 결성식 날, 자진해서 평화시장 옥상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조합원이 되었다. 이후 동갑내기 정선희와 함께 견습공 임금을 사용주가 직접 지급하는 투쟁을 주도하는 등 70년대 내내 열성 조합원으로 활약한다.

신평화시장에서 일급 미싱사로 일하고 있던 22살의 유정숙도 자진해서 노조에 찾간 한 명이었다. 누군가 다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유정숙은 자기 발로 노조에 찾아가간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유정숙은 점심시간마다 노조 사무실 한쪽 책상에 앉아 크리스마스카드를 그려 팔아서 재단사 한 달 월급에 맞먹는 돈을 만들어 노조기금으로 낸다. 조합원도 없고 조합비는 더욱 없던 초창기 노조에 유정숙 같은 아름다운 여성의 존재는 대단히 소중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조합에 드나들면서 생각이 바뀌고 성격까지 변화한다. 비록 소수였지만, 자기 발로 노조를 찾아와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조합에 큰 힘이 되었다. 하나둘씩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들로 인해 노조 사무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져서 노조가 깡패집단이라는 악선전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에 가톨릭계 노동단체에서 조직강화 훈련을 받은 정인숙이 실무자로 채용되어 '아카시아' 회를 조직하면서 현장 내 소모임이 급속히 늘어나 이숙희, 신순애 등 많은 중견 간부가 양성된다.

하나같이 착하고 똑똑하지만, 집이 가난해 진학하지 못하고 열악한 봉제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이 여성들을 조합으로 이끌고, 탁월한 조직가, 선동가, 교육가로 성장

시킨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누구의 강요나 꼬임도 아니었다. 공부를 통해 배운 것도 아니었다. 친구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니었다. 전태일이 그러했듯, 그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본인들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순수하고 순결한 성품이 자기 발로 찾아오게 만든 것이었다. 이들의 한없는 순수함이야말로 청계노조를 살아남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가열찬 투쟁은 노동운동을 넘어 민주화운동이자 여성해방운동이었다. 사회와 공장은 물론, 집안에서도 차별받고 설움받아야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에게 씌워진 이중삼중의 굴레를 끊어내는 인간해방운동이었다.

이렇게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모인 초창기 조합 간부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노조가 뭔지도 몰랐던 조합 간부들은 한문으로 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쟁의 조정법을 몽땅 외웠다. 여성 간부들도 현장 활동을 위해 111조항이나 되는 노동법을 달달 외우다 시피 했다. 일부 간부들은 학생 출신 활동가들을 통해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으며 노동문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모순임을 배웠다. 이를 통해 청계노조는 청계천 일대 노동자들의 권익 운동을 넘어 전국적인 민주노조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게 된다.

1970년대 청계노조 투쟁의 외형적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절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합법적인 사전 신고 절차에 따라 시위농성 방법과 음향 크기까지 지정된 준법투쟁이 일상화된 오늘날의 노동운동가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저항으로 노조 활동을 지켜내야 했다.1975년 2월에는 조합원 교육의 산실인 노동교실의 폐쇄에 맞서 조합원 250여 명이 7시간 단식을 벌였고,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조합원 200여 명이 경찰의 방해와 연행 시도와 싸우며 노동교실에서 전태일 열사 5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다시 한 달 후인 12월 23일에는 조합원 200여 명이 노동교실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그중 50여 명이 철야농성에 돌입해 노동시간 단축, 다락방 철거 등 다양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킨다. 1천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 봉제공장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으나 주요 시장에는 적용되어 이듬해까지 시장상가 내 다락방의 대다수가 소방법 위반으로 철거되는 등 성과를 쟁취한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당연하고도 대수롭지 않은 규모로 보이겠지만, 모든 집회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사회 전체를 공포로 억누르고 있던 시대에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투쟁들이었다. 노동교실 투쟁 외에 일상적으로 이뤄진 싸움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록하기가 힘들 정도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반세기가 넘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을 각성시키고 있다. 진정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고 있다. 민주화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보다 나은 인간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영향을 끼친 것이 전태일평전일 것이다.

전태일 열사가 남긴 일기와 소설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특정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해



야 한다는 협소한 이권 운동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산업화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고통당하던 청계피복 노동자들만 아니라, 모든 임금노동자, 그리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해방을 넘어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설파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청계노조 활동을 보며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많은 대학생이 교회를 통한 야학과 비밀스러운 소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계노조를 지원하거나 스스로 봉제공장에 취업해 일하며 노동운동에 투신하였다. 또한 여러 노동자와 학생 출신들이 청계노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전국의 노동 현장과 사회단체로 퍼져 나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인적 기반이 된다.

개발독재 시절의 민주노조운동이란 단위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권을 위한 운동을 넘어 사회 전체에 인권운동과 연결되어 있었다. 단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만으로도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런 투쟁 자체가 다른 노동자를 위한 희생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다는 것, 변화를 위해 싸웠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평생의 자부심이자 자랑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더라도, 나머지 수십 년의 인생보다 훨씬 귀중한 기억이 된다. 여러 청계인들에게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기, 최고의 전성시대가 바로 청계노조에 몸담은 시절이었을 것이다.

많은 책을 써왔지만 <청계, 내 청춘>만큼 많이 눈물 흘리고 가슴에 감동을 새기며 쓴 책은 없었다. 취재에 응한 88명 모두의 가슴 아픈 사연들과 처절한 투쟁 과정에서 겪은 감정들이 내게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단체도 '청우회'다. 잠시 청계노조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청계노조는 필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곳이다. 전태일 열사에게 감사드리고 초창기 청계노조 선배들에게 감사드린다. 언제 만나도 반갑고 따뜻한 청우회 선배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오래 우리 옆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미싱사 : 출근하지 말고 노동교실을 가세요.

## 우리는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 있었지만  
나 혼자만 꿈꿔왔던 시간은 마음속에 막혀있습니다.  
함께하여 꿈꿔왔을 때에만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꿈을 꾸는 것.  
꿈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오랜 시간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꿈.  
그 꿈이란 순간을 가슴에 새기고  
우물도 감당해 살아갑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꿈을 떠올리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꿈이 어떻게 됐는지  
그 시절 무언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노동교실

노동교실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는  
공간입니다.

노동교실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는  
공간입니다.

노동교실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는  
공간입니다.

노동교실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는  
공간입니다.

노동교실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는  
공간입니다.

노동교실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이루는  
공간입니다.



다  
관  
문  
록

LIST OF PLATES

<b>01</b>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결성준비위원회 임원명단 List of Executives of the Committee to Form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Branch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Labor Unions  1970년대   25.3x18.3 881297
<b>02</b> 청계피복노조 가입원서 The Union's Membership Application Form  1970년대   26.1x19 881429
<b>03</b> 노조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 Photo Taken in Front of the Union's Office  1970년대   7.6x11.2
<b>04</b>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조합활동 현황 Status of the Activities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Branch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Labor Unions  1971   25.8x18
<b>05</b> 청계피복노조 단체협약서(원본)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Union (Original Copy)  1971   26.9x19.4 881371
<b>06</b> 단체협약서(배포용) Collective Agreement (Distribution Copy)  1971   26.5x18.5 881371

<b>07</b> 참고철(청계피복노조 단체협약서 초안) Reference Files (Draft of the Union's Collective Agreement)  1970~71   28.1x21.3 876288
<b>08</b> 단체협약서(초안) Collective Agreement (Draft)  1971   19x26.3 881364
<b>09</b> 청계피복 단체협약서(초안 비교표)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Union (Table for Comparison with Draft)  1971   26.9x18.9 881374
<b>10</b> 제1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Project Report for the First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1   26x18.7x1 이승철 기증
<b>11</b> 제2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Project Report for the The Second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2   25.5x18.5x1 이승철 기증
<b>12</b> 제3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roject Report for the Third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3   25.5x18.8x1 이승철 기증

<b>13</b> 제4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Project Report for the Four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4   25.9x19x1 이승철 기증
<b>14</b> 제5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Project Report for the Fif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5   26.2x18.8x1 이승철 기증
<b>15</b> 청계피복노조 대의원 투표 용지 Ballot for the Union's Representatives  1970년대   26.1x9 880709
<b>16</b>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제2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플랜카드 Banner for the Second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Branch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Labor Unions  1972   45x345
<b>17</b> 제1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진 Photo of the First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1   8.4x11.9 이승철 기증
<b>18</b> 제4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진 Photo of the Four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4   8.4x11.9

<b>19</b> 제5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진 Photo of the the Fif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5   8.4x11.9
<b>20</b> 제7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진 Photo of the Seventh Annual Convention  1977   8.4x11.9
<b>21</b> 직업병 36.9%가 소음탓 A newspaper article  《중앙일보》 1971년 2월 19일   14x14.3
<b>22</b> 근로기준법 10인 고용업체도 적용, 작업환경 나쁜 30개 업체입건 A newspaper article  《한국일보》 1970년 11월 24일   18.2x27
<b>23</b> 눈먼 감독…보호없는 근로자, 98%가 근로조건을 위반 A newspaper article  《중앙일보》 1970년 11월 19일   17.7x28
<b>24</b> 청계피복노조 제1차 실태조사 설문지 Questionnaire for the Union's First Survey  1971   26.3x20.2x2.5 885997
<b>25</b> 청계피복노조 제1차 실태조사 통계문서 Statistics From the Union's First Survey  1971   26.6x19.4 888084

**26**  
평화시장 노동 실태조사 설문지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of  
Pyeonghwa Market Workers

1968~9년 | 26.4x20.2

**27**  
청계피복노조 72년도  
실태조사 착수 기안문서  
Draft Document for the Initiation of the  
Union’s 1972 Survey

1972 | 28.2x21  
888727

**28**  
평화시장 조합원 실태조사  
Survey of Union Members at Pyeonghwa  
Market

1970년대 초중반 | 26.8x19.4  
888143

**29**  
청계피복노조 실태조사  
Survey by the Union

1973 | 26.9x18.7x3.4  
888117

**30**  
작업장 실태조사표  
Checklist for Surveying Workplaces

1970년대 | 26.7x50  
888132

**31**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현황표  
Table on the Status of Union Members

1970년대 | 25.8x36.2  
880375

**32**  
청계지역 사업자현황 실태조사  
Survey of Business Owners in the  
Cheonggye Area

1970년대 | 39.2x26.6  
886739

**33**  
시장별 다락 넓이 현황표  
Table of Attic Measurements by Market

1970년대 | 26x18.4  
888214

**34**  
사업장 실태조사 작성 보고  
Report Based on the Survey of  
Workplaces

1972 | 20.3x26.8  
888719

**35**  
단체협약서 1년간 위반 사항  
Annual Record of Violation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1972 | 27.4x20.5  
881609

**36**  
야간 작업장과 주휴제 위반업체 보고 문서  
Report on Businesses that Violated Rules  
on Weekly Holidays and Night Shifts

1972 | 26.8x19.3  
888224

**37**  
주휴제 위반 조사 결과 보고 문서  
Report on Violations Involving Weekly  
Holidays

1972 | 26.4x19  
888468

**38**  
휴일 근무 합의서  
Agreement on Working on Holidays

1970년대 | 25.9x18.3  
880392

**39**  
야간 근무 조사 보고 문서  
Report on Survey of Night Work

1972 | 26.8x19.8  
888220

**40**  
노사협의회 결의 사항 전달을 위한 보고서  
Report on Resolutions Between the  
Union and Factory Owners

1972 | 26.7x19  
880984

**41**  
주휴제 실시를 알리는 유인물  
Leaflet Informing the Adoption of Weekly  
Holidays

1972 | 26.7x19  
880995

**42**  
시장상가 노동자 건강검진 협조 요청 문서  
Request for Cooperation on Medical  
Checkups for Market Workers

1971 | 문서 25.8x17.7 | 진찰권 6x8.9  
876358

**43**  
시장상가 복지의원 운영 현황  
Operation Status of the Welfare Clinic for  
Market Workers

1970년대 | 25.4x17.8  
882358

**44**  
후생식당 식권 발행을 알리기 위한  
기안문서  
Draft Document to Publicize the Issuance  
of Meal Vouchers

1971 | 26.5x18.9  
876248

**45**  
후생식당 이용 현황 조사 결과 보고  
Report on the Cafeteria’s Utilization

1971 | 25.9x18.2  
888735

**46**  
시장상가 위치도  
Market Layout

1970년대 | 26x18.4  
888219

**47**  
임금 실태조사(개인표)  
Survey of Wages (Individual  
Questionnaire)

1970년대 | 27x19.8  
889490

**48**  
근로조건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  
Report on the Survey to Resolve Working  
Condition Issues

1974 | 18.9x47  
876816

**49**  
사업장 실태 현황  
Status of Workplaces

1977 | 20.2x27.3  
889042



50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Report on the Survey of Wages

1975 | 26.7x21.5  
888494

51  
시장상가 피복 제품 업계  
근로자의 임금실태 조사결과  
Results from the Survey of Market  
Workers’ Wages in the Garment Industry

1974 | 26x19.2  
876492

52  
청계시장상가의 노동문제 실태와 문제점  
The Reality of Labor Issues at Markets in  
the Cheonggye Area

1974 | 26.7x19  
876493

53  
시장상가 피복류 제품 사업장  
작업환경 조사결과  
Results from the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at Garment Manufacturers  
Operating in Markets

1974 | 26.7x21.5  
888092

54  
철야 작업과 휴일 근로 금지에 대한  
안내 말씀  
Notice on the Prohibition of Overnight  
Shifts and Working on Holidays

1974 | 25.8x19  
881773

55  
초급 견습공의 임금 인상 촉구  
Call for the Increase of Wages for Entry  
Level Apprentices

1975 | 27x19.4  
876478

56  
사용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  
1977년도 임금 인상에 대하여  
Message to Factory Owners: On the 1977  
Wage Increase

1977 | 37.9x26  
876286

57  
임금 수령에 대한 안내 말씀  
Notice on the Reception of Wages

1977 | 26.6x19.4  
880975

58  
견습공 임금 사용주 직불에 대한 안내 말씀  
Notice on the Factory Owners’ Direct  
Payment to Apprentices

1976 | 26.9x19.6  
880968

59  
미싱사 및 시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Notice to Sewing Machine Operations  
and Their Assistants

1977 | 27.4x19.6  
881783

60  
임금제도 개선 대책위원회  
Task Force for Wage Improvement

1975 | 27x19.5  
888255

61  
임금 실태조사 자료  
Data from the Survey on Wages

1974 | 26.1x19.3  
888234

62  
임금협정서  
Wage Agreement

1977 | 26x18.8  
880894

63  
단체협약서(초안)  
Collective Agreement (Draft)

1977 | 27.2x19.7  
880215

64  
단체협약서  
Collective Agreement

1976 | 26x19  
880211

65  
단체협약서  
Collective Agreement

1978 | 26x18.4  
880218

66  
노사협의회 회의록: 77년도 단체 협약서  
체결의 건  
Minutes of the Union’s Meeting with  
Factory Owners: On Concluding the  
Collective Agreement of 1977

1977 | 25.5x20.5  
880483

67  
노사협의회 회의록:  
77년도 단체 협의서 체결  
Minutes of the Union’s Meeting with  
Factory Owners: The Conclusion of the  
1977 Collective Agreement

1977 | 25.5x20.4  
880485

68  
진정 접수 및 해결 기록표  
Record of Submitted Petitions and Their  
Resolution

1976~7년 | 19.5x27  
880958

69  
삼양사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The Truth Behind the Samyangsa  
Incident

1976 | 39x26.8  
887001

70  
고발장: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이숙희가 삼  
양사 공장장에게 폭행당한 건  
Indictment: The assault Yi Suk-hui, a  
Member of the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Suffered from  
Samyangsa’s Factory Manager

1976 | 27x20.5  
880453

71  
남양사 견습공 직불제 실시 불이행 확인서  
Confirmation of Namyangsa’s Failure to  
Directly Pay its Apprentices

1976 | 26.8x19.3  
881553

72  
대도사 해고수당 진정서 처리 보고서  
Report on the Result of the Petition for  
Daedosa’s Payment of Dismissal Pay

1976 | 26.5x19.4  
881648

73  
신일산업사 체불 노임의 사건 진상  
Report on Sinil Industries’ Wage Arr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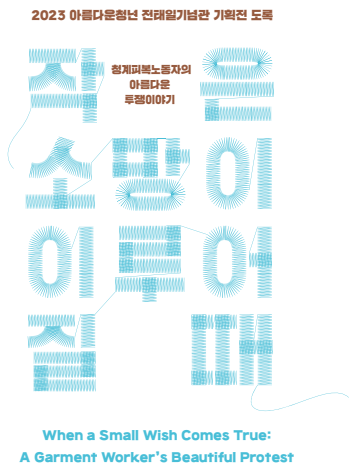
1977 | 28.4x18.1  
881005

<b>74</b> 《청계피복노동소식》제4호 Cheonggye Garment Workers’ Union Newsletter, No. 4  1975   38.3x27 881594	<b>75</b>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 Let’s Find a Way to Survive Before We Starve to Death  1970년대   24.8x17.6 880973	<b>76</b>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길 찾자 Let’s Find a Way to Survive Before We Starve to Death  1970년대   24.8x17.4 880974	<b>77</b> 견습공(시다) 실태조사 통계문서 Statistics From the Survey of Apprentices (Assistants)  1970년대   27.2x19.8 888141	<b>78</b> 미싱사 실태조사 통계문서 Statistics from the Survey of Sewing Machines Operators  1970년대   27.2x19.8 888136	<b>79</b> 『아카시아』 통권2호 Acacia, Vol. 2  1977   27.8x19.8 880511
---------------------------------------------------------------------------------------------------------------------	------------------------------------------------------------------------------------------------------------------------------------	------------------------------------------------------------------------------------------------------------------------------------	---------------------------------------------------------------------------------------------------------------------------------	------------------------------------------------------------------------------------------------------------------------------	------------------------------------------------------------------------------

<b>80</b> 점퍼공장 미싱사 투쟁 연계 가두시위 계획 메모 Memo on Plans for a Street Demonstration with Sewing Machine Operators Employed by Jacket Manufacturers  1976   18.4x8.7 880957	<b>81</b> 점퍼공장별 임금 문제 분류 현황 Status of Wage Disputes at Jacket Factories  1976   20.4x26.8 881016	<b>82</b> 조합원 해고 사업장 조사 보고 문서 Report on the investigation of the workplace where union members are fired  1976   25x18 880949	<b>83</b> 노동자 권리선언 Declaration of Workers’ Rights  1976   39.6x27.3 881519	<b>84</b> 점퍼공장 미싱사 투쟁 관련 노조 및 사용주 협의 문서 Document of Consultation Between the Union and Jacket Manufacturers Regarding the Sewing Machine Operators’ Protest  1976   24.4x17.5 880421
------------------------------------------------------------------------------------------------------------------------------------------------------------------------------------------------	--------------------------------------------------------------------------------------------------------------------	----------------------------------------------------------------------------------------------------------------------------------------------------	-------------------------------------------------------------------------------------------	-----------------------------------------------------------------------------------------------------------------------------------------------------------------------------------------------------------------

<b>85</b> 76년도 임금 및 77년 임금인상 예정액 List of Wages in 1976 and Estimates of Wage Increases in 1977  1977   26.8x38.8 881062	<b>86</b> 선언문 Declaration  1977   38.7x27 881709	<b>87</b> 제7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 Materials for the Seventh Annual Representative Convention  1977   25.9x18.9x1	<b>88</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미싱사의 기본급을 보장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1x44.8	<b>89</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견습공의 월급을 직불제로 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2.5x45.7	<b>90</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시간을 단축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1.2x45	<b>91</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골병들어 못살겠다. 시간을 단축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2.4x45.8
-------------------------------------------------------------------------------------------------------------------------------------------	-----------------------------------------------------------------	----------------------------------------------------------------------------------------------------------------------------	---------------------------------------------------------------------------------------------------	-------------------------------------------------------------------------------------------------------	---------------------------------------------------------------------------------------------------------	----------------------------------------------------------------------------------------------------------

<b>92</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배고파 못 살겠다 임금을 100% 인상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2.4x45.8	<b>93</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노동자도 인간이다 죽기전에 살길 찾다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1.3x44.8	<b>94</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고 전태일 동지의 뜻을 헛되이 하지말자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3.3x44.2	<b>95</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앞날의 어머니 배고파 쓰러진다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2.4x45.8	<b>96</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노동자는 굳게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하라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2.4x45.8	<b>97</b> 청계피복노조 투쟁 피켓 : 열악한 노동조건 어린 동심 씹어간다 The Union’s Protest Sign  1970년대   23.2x45.3
--------------------------------------------------------------------------------------------------------------	-----------------------------------------------------------------------------------------------------------	------------------------------------------------------------------------------------------------------------	-------------------------------------------------------------------------------------------------------	------------------------------------------------------------------------------------------------------------	----------------------------------------------------------------------------------------------------------



**2023년도 기획전**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때: 청계피복노동자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  
**2023.12.5.-2024.06.16.**

발행일	2024년 4월 26일
발행처	서울특별시, 전태일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Tel. 02-318-0903~4 Fax. 02-318-0881 www.taeil.org
ISBN	979-11-980330-9-3(03910)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과 사진은 한국 내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전태일기념관 소장 자료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하며, 그 외 개인 및 기관 소장 자료는 소장자 및 소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수록된 사진과 원문은 전태일기념관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됩니다.



작은  
소망이  
이루어  
질  
때

장애  
아동·청소년의  
아름다운  
투쟁이야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www.taeil.org  
02) 2273-0906

